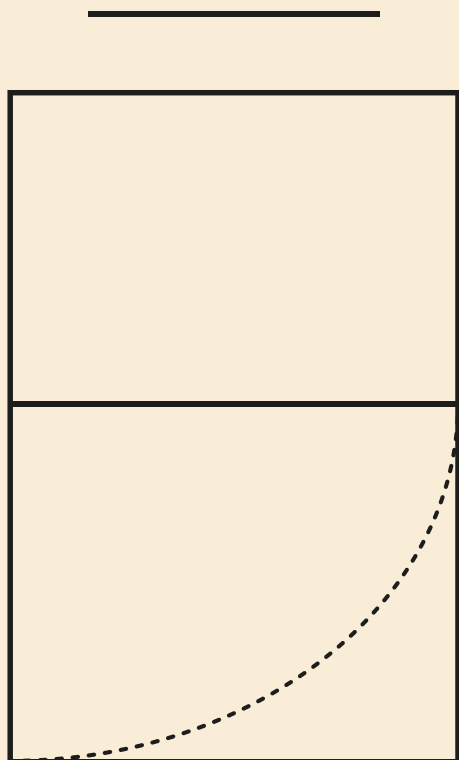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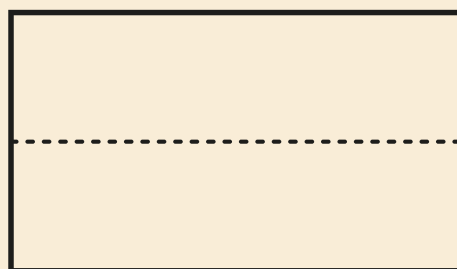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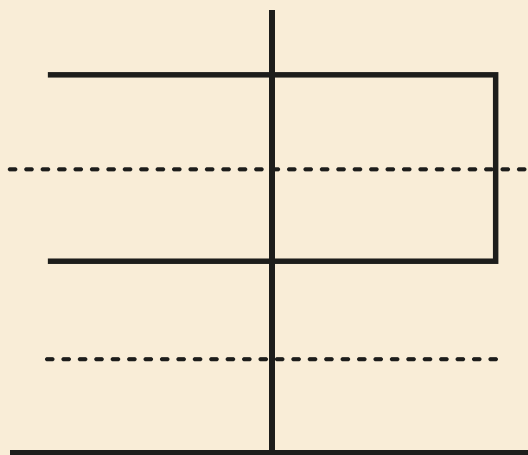


2011

—

2020



2011 - 2020

광주문화재단 10년 백서

Gwangju Cultural Foundation

10
years.

CONTENTS

006

I. 기관소개

012

II. 시간+공간+시민
+10년

044

III. 시간을 채우다

072

IV. 공간을 채우다

118

V. 시민과 동행하다

148

VI. 10년을 설계하다

166

V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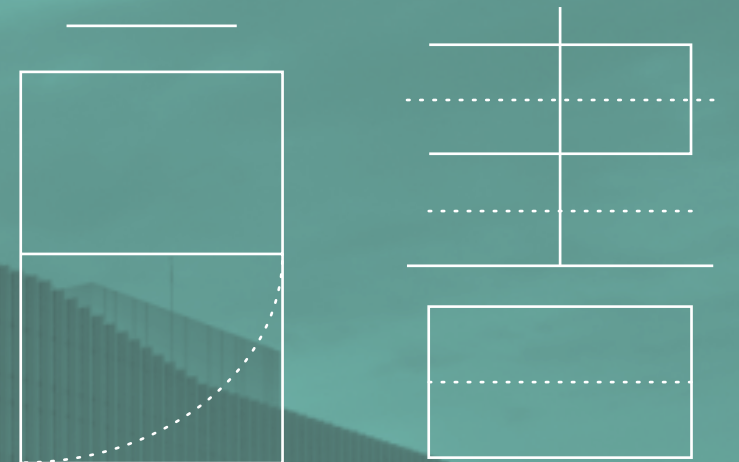
2011 - 2020

광주문화재단 10년 백서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I. 기관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광주문화재단 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상상과 창의를의 도시, 광주!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시민!

2021년은 광주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의 해입니다.

2011년 1월,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목표로 첫 발을 댄 뒤 10년이 흘렀습니다.

광주시민과 예술인들의 높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문화재단이 합당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깊이 성찰하며 백서를 내놓습니다.

지역문화자산 구축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광주형 문화브랜드를 추진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동시에

문화다양성을 확장하는 등 광주문화재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민과 관을 잇고, 시민과 예술인을 아우르며 문화예술정책을 효율적으로

매개하고 추진하는 일이 광주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10년의 세월은 굵이굵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성과와 시행착오,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10년의 백서 제작을 위해 전 직원 워크숍에서 꼼꼼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직원들이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섬마을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맞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광주문화재단이 광주라는 도시에 어떻게 정착하고

스며들었는지를 담았으며 광주시민의 문화향유 10년의 이야기도 오롯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의 과거를 충실하게 담아냄으로써 오늘을 정확히 진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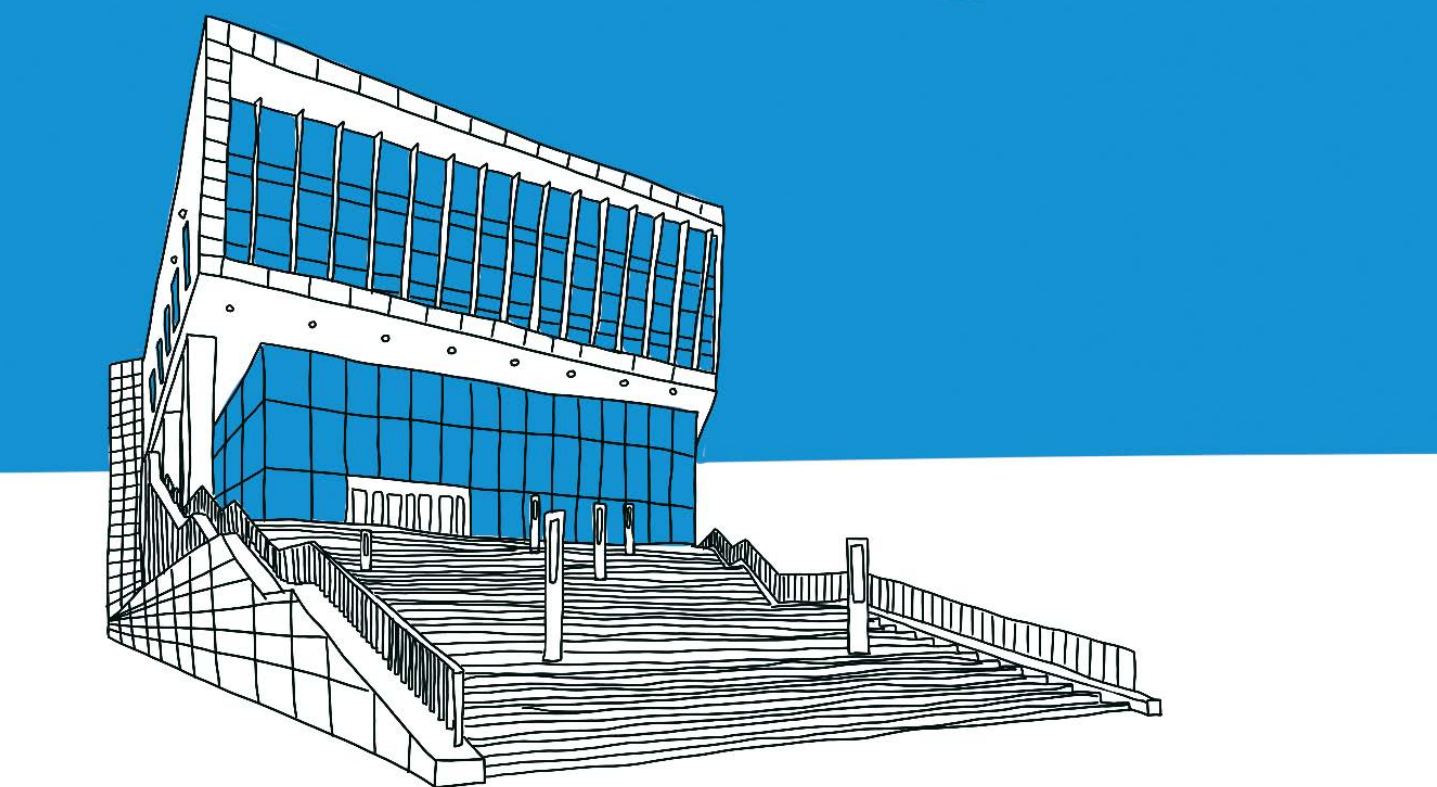
내일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를의 도시, 광주',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전문 서비스기관이자 문화정책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소개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의 창작 · 보급 ·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을 통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법인개요

설립 | 2011년
명칭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기금현황 | 105억원 (2011년 최초출연 82억)
임원 | 이사 15인/ 감사 2인

설립목적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
(광주문화재단 정관 제3조)

설립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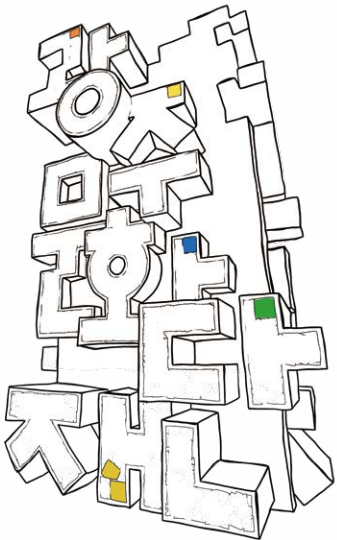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광주문화재단 CI



광주문화재단 심볼 마크는 재단의 영문표기(Gwangju Cultural Foundation) 이니셜 GCF를 소나무 형상으로 재조합한 것입니다.

심볼마크 활용형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II. 시간+공간+시민+10년

광주문화재단 10년 변천사

- 주요 연혁
- 조직도
- 비전
- 이사회

숫자로 보는 재단 10년

- 문화예술 지원 단체 수, 지원 금액
- 문화예술 교육 단체 수, 지원 금액
- 재단 기금 & 예산액
- 직원
- 방문객

광주문화재단 10년 변천사

주요연혁

2010

- 11월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
- 12월 재단법인 설립 허가



2011

- 1월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출범
- 3월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관리운영 수탁



2012

- 2월 전통문화관 개관
- 12월 문화바우처카드 발급률 · 이용률 2년연속 전국1위

문화바우처

2013

- 1월 재단 중장기발전전략 선포
- 2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센터 선정

- 3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플랫폼 공식 개관
- 12월 무지개다리사업 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6

- 3월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발전방향 2030' 비전 선포
- 10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단 신설 (1차 2실 1단 2관 14팀) 조직개편



2015

- 12월 · 문화메세나 기부자 예우공간 '문화보듬10000센터' 개소
- 지역협력형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스



2014

- 11월 1차 3실 2관 8팀으로 조직개편
- 12월 · 문화융성위원회 지역문화융성 우수사례 선정 - 공공미술 2.0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



2017



2018

- 1월 전통문화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8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
- 12월 미디어아트플랫폼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 선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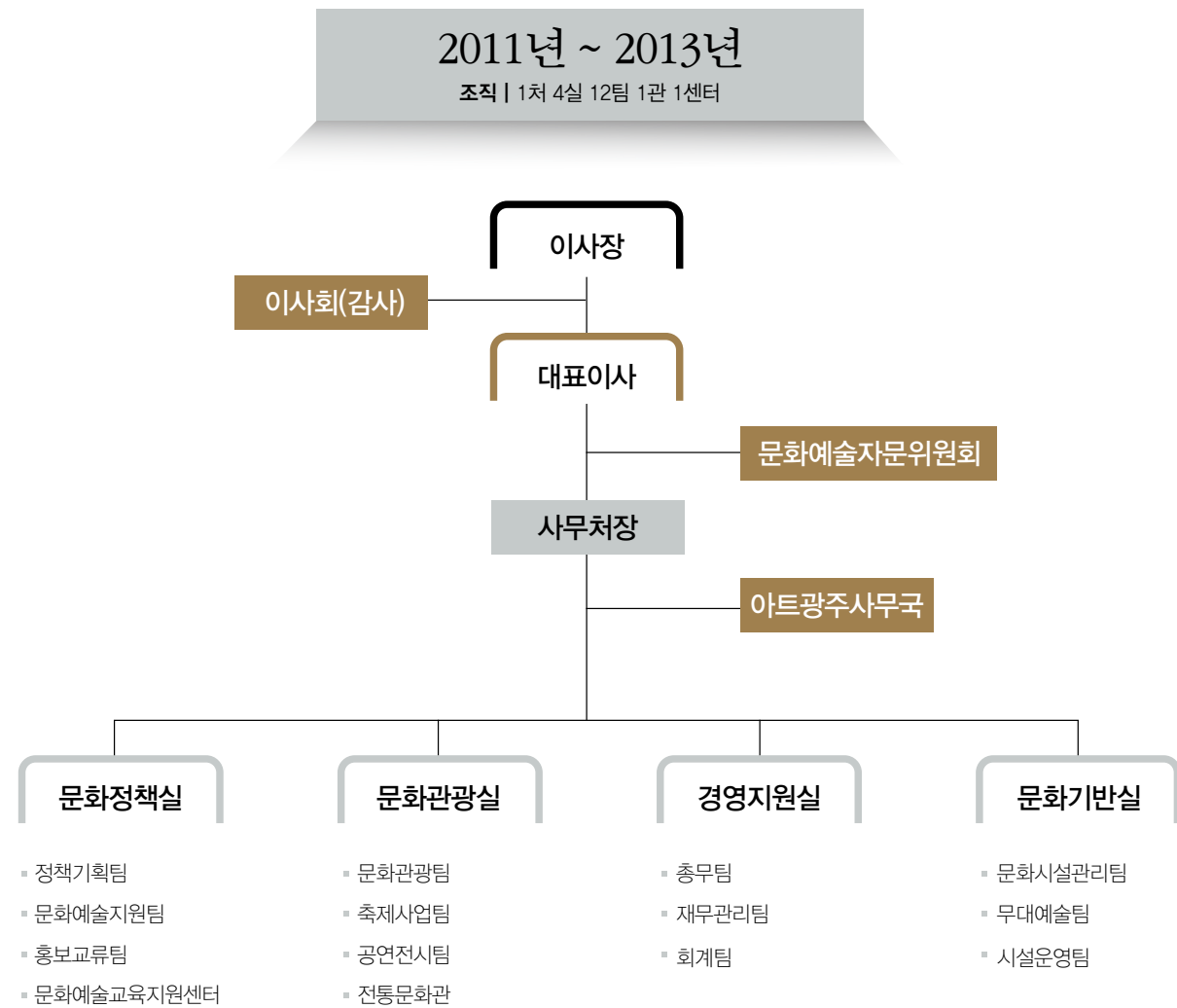
- 1월 市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선정
- 7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우수기관 선정
- 12월 문화이모작 지역교육 기관사업 최우수프로그램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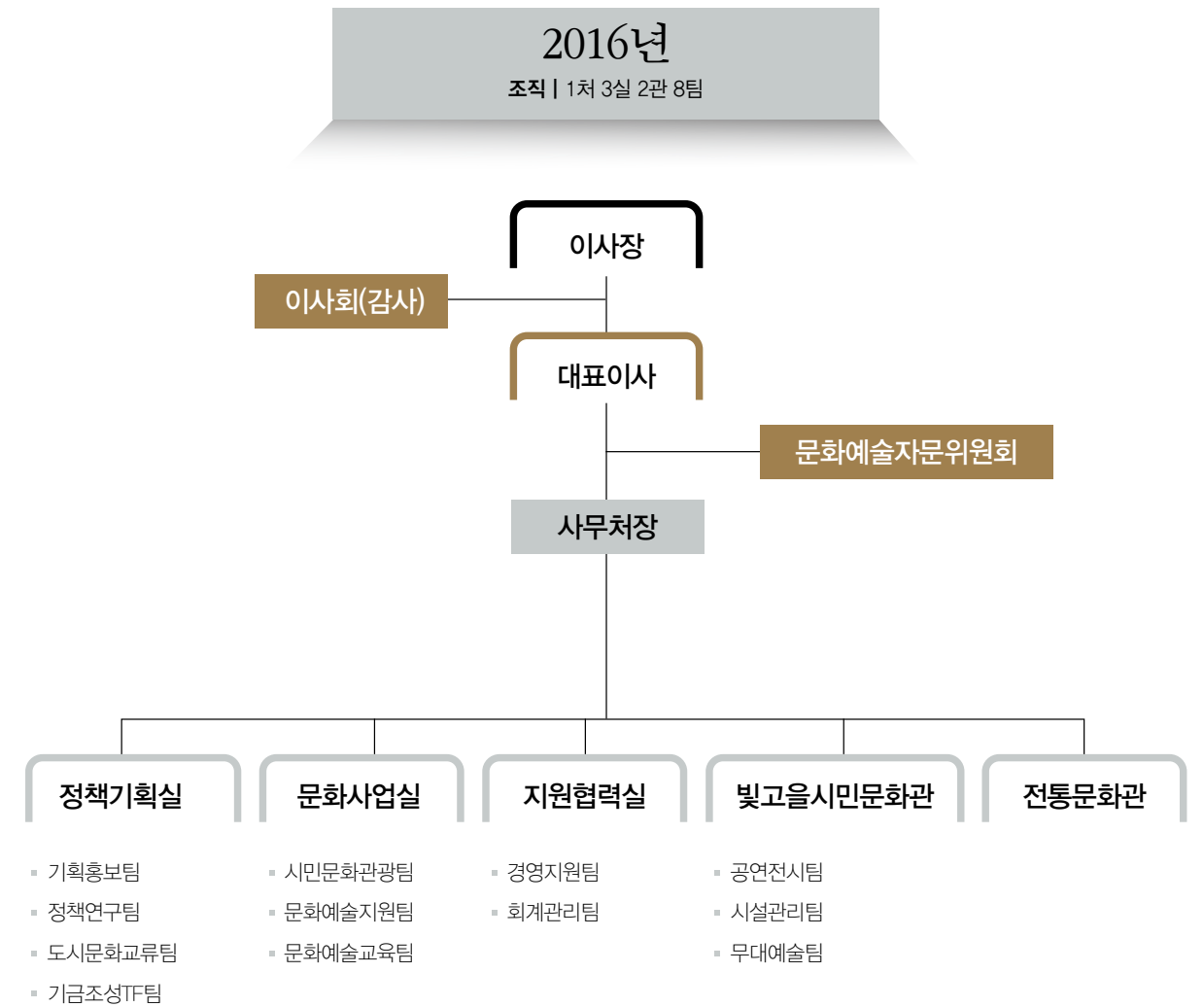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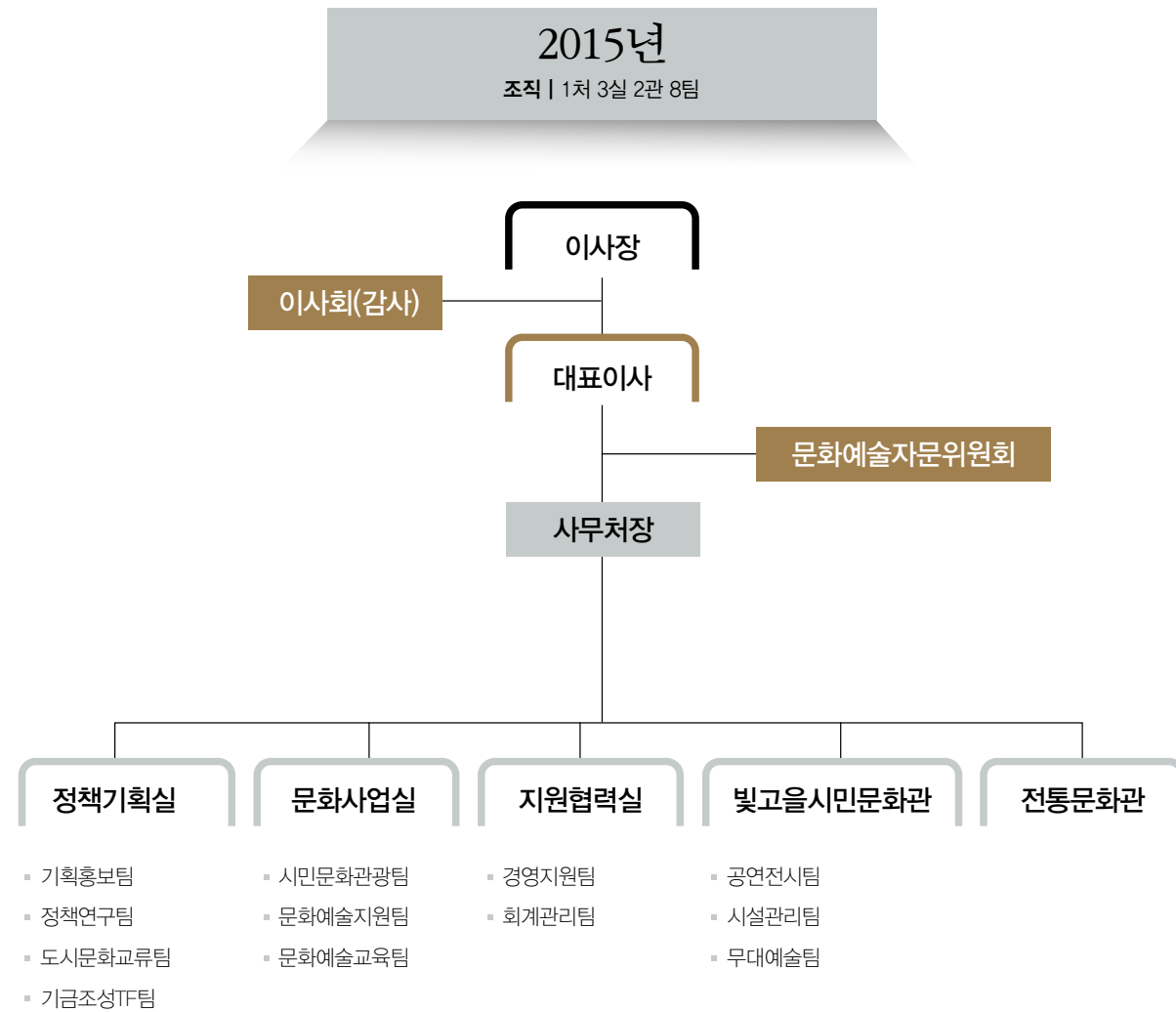
2020

- 10월 市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기관장평가 5년 연속 A(우수)등급 획득
-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범부처 Giga Korea사업단) 5G실증체험관 개관
- 12월 ·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 인증기관 8년 연속 선정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2개 분야 우수사례 선정 - 코로나19대응, 적극행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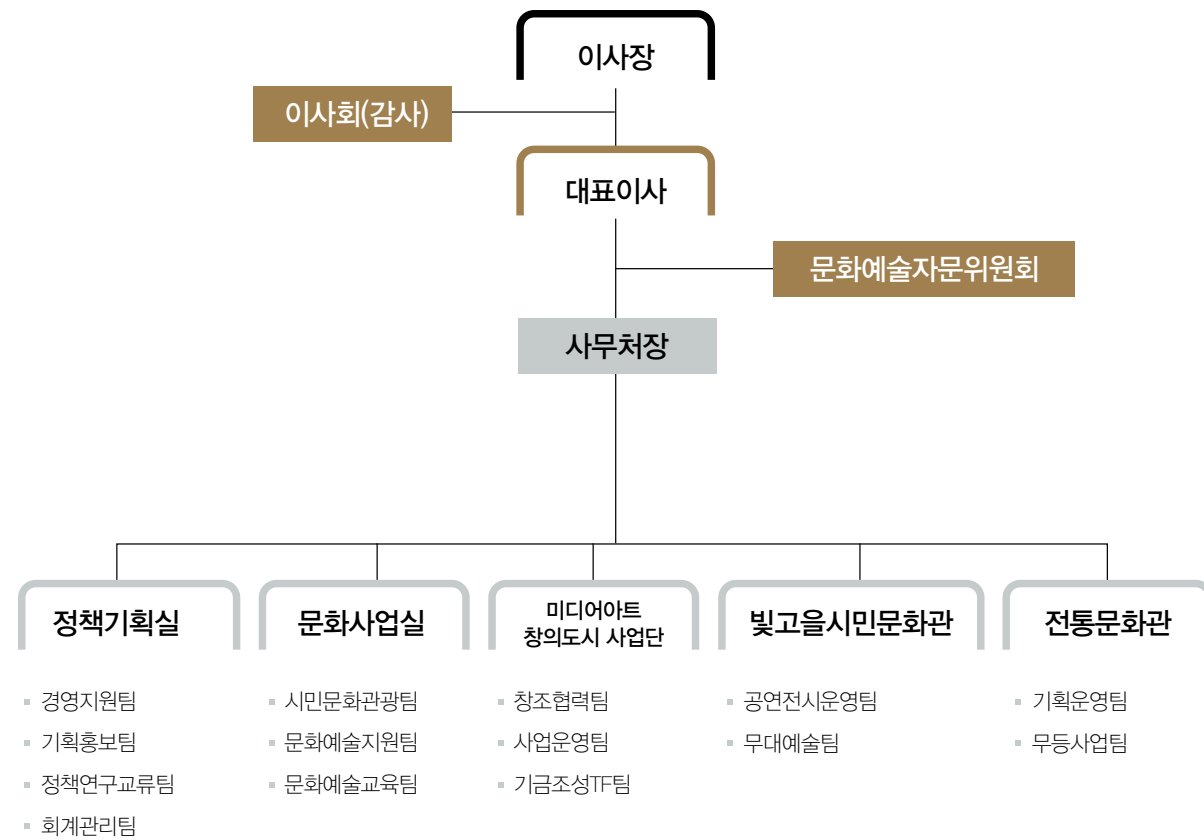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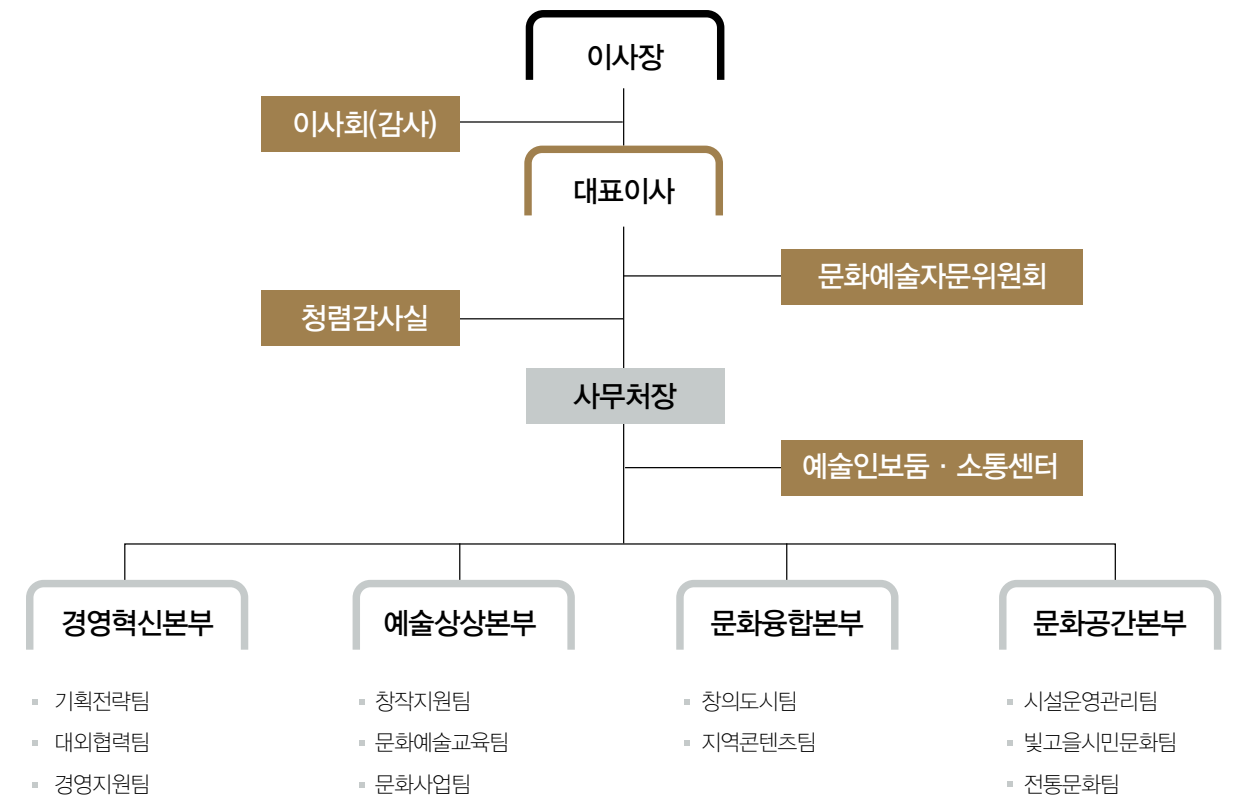
2017년 ~ 2020년

조직 | 1처 2실 1단 2관 14팀



2021년

조직 | 4본부 1실 1센터 11팀



경영 1기 초기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목표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
추진전략	1. 문화예술진흥지원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강화 3. 국제문화교류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 5. 문화콘텐츠 및 브랜드상품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6. 문화콘텐츠 및 브랜드상품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7. 축제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경영 1기 후기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
핵심가치	문화의 공적책임성 문화예술의 다양성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
6대 목표	문화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의 일상화 시민의 문화 주체화 문화정책 다원화 문화네트워크 구축 문화도시 가치확장
추진전략	1. 문화적 공공에 기여하는 창조적 예술기반 구축 2. 문화의 일상화와 문화적 권리확대로 시민을 위한 문화실현 3. 문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창조적 시민 주체 양성 4. 공감·공존·연대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수립 5. 시민, 예술, 지역공간을 잇는 문화네트워크 구축 6.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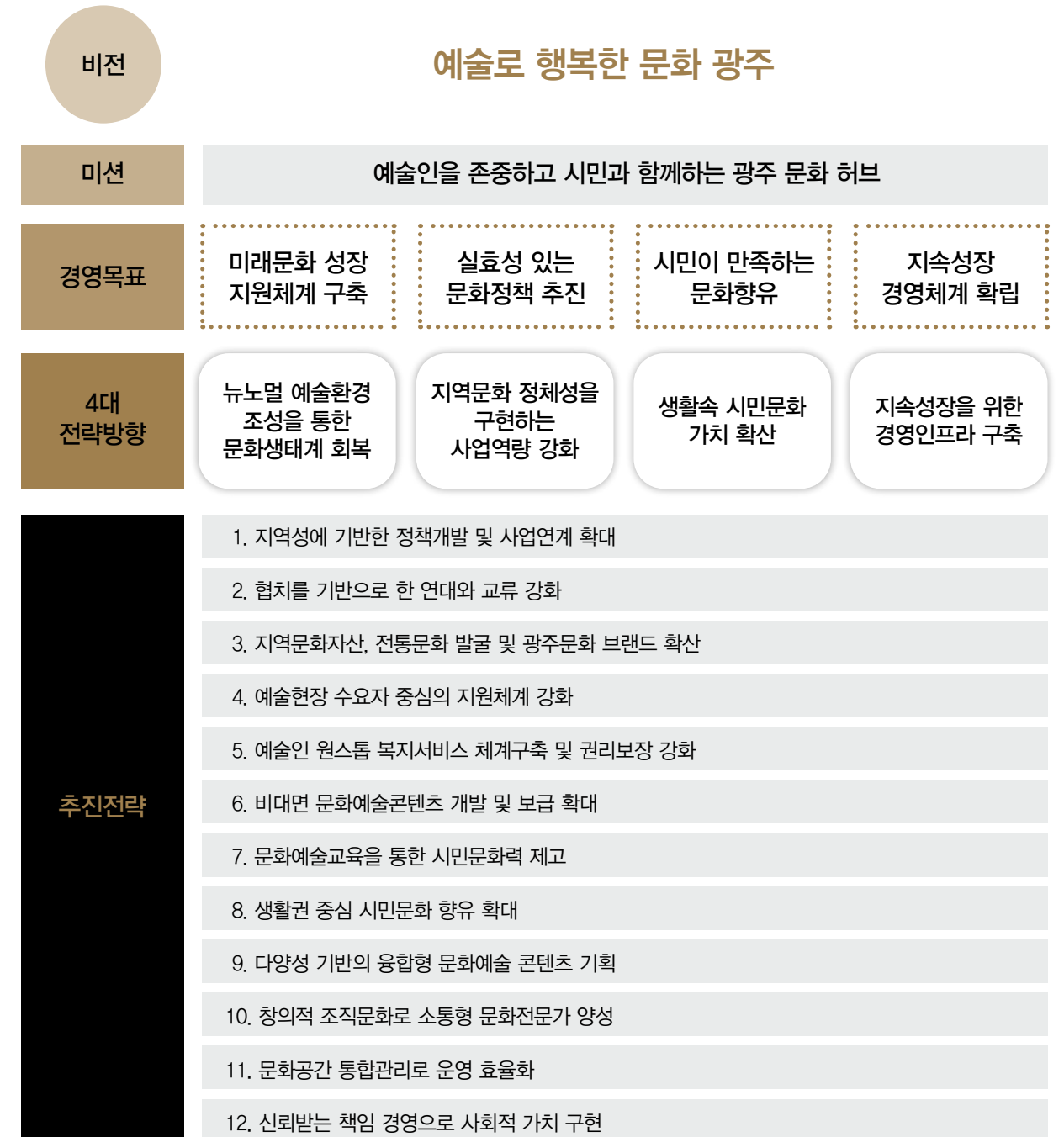
경영 2기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시민의 문화 주체화, 광주정신·문화의 허브
성과목표	문화협업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장 창조도시로 문화도시의 가치 극대화 사람중심의 함께하는 문화사회 구현
추진전략	시민이 주인 되는 문화공동체 광주 조성 · 시민 주도형 메세나운동을 통한 기금 확충 · 팔길이 원칙, 세대와 계층의 구분 없는 문화탕평 추진 · 공공 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개선 · 문화예술계 및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활성화 「문화트라이앵글」로 협업체계 구축 · 「광주시-시민문화단체-재단」 간 「문화트라이앵글」 구축 · 시-재단의 문화적 시너지효과를 위한 융·복합형 사업추진 광주문화 복권(復權)을 위한 플랫폼 구축 · 현장 중심 문화정책 연구 강화 · 시민에 다가서는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통문화관 운영 활성화 문화 브랜드로 「글로벌 시대」 개척 ·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도시 정체성 구현 · 국내·외 문화재단간 교류 확대 · 광주정신에 기반 한 광주 문화정체성 확립 나눔·도움의 대동정신으로 문화민주주의 실현 · 문화나눔·도움으로 광주의 대동정신 회복 · 시민문화 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생산기반 증대 및 청년 취업을 제고

경영 3기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경영 4기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광주문화재단 1기
이사회 (2011년~2013년)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이사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2	대표이사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	이 사	김상호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4	이 사	김포천	前 광주공연예술재단 이사장	
5	이 사	강봉규	前 광주예총 회장	
6	이 사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7	이 사	문순태	前 광주대 교수	
8	이 사	김응서	(주)남해종합개발 회장	
9	이 사	김 종	광주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10	이 사	김재규	광주영어방송사장	
11	이 사	윤장현	한국 YMCA 이사장	
12	이 사	이정애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	
13	이 사	강숙자	전남대학교 예술대 교수	
14	이 사	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감 사	박광석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장	
2	감 사	문정현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변호사	

광주문화재단 2기
이사회 (2014년~2016년)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이사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	대표이사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	이 사	염방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4	이 사	황영성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5	이 사	김포천	前 광주공연예술재단 이사장	
6	이 사	이미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7	이 사	박윤모	광주시립극단장	
8	이 사	성현출	광주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9	이 사	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0	이 사	지형원	문화통 대표	
11	이 사	송진희	호남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12	이 사	임해철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13	이 사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	
14	이 사	최선희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15	이 사	최명숙	현대병원 원장	
1	감 사	이평형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장	
2	감 사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광주문화재단 3기
이사회 (2017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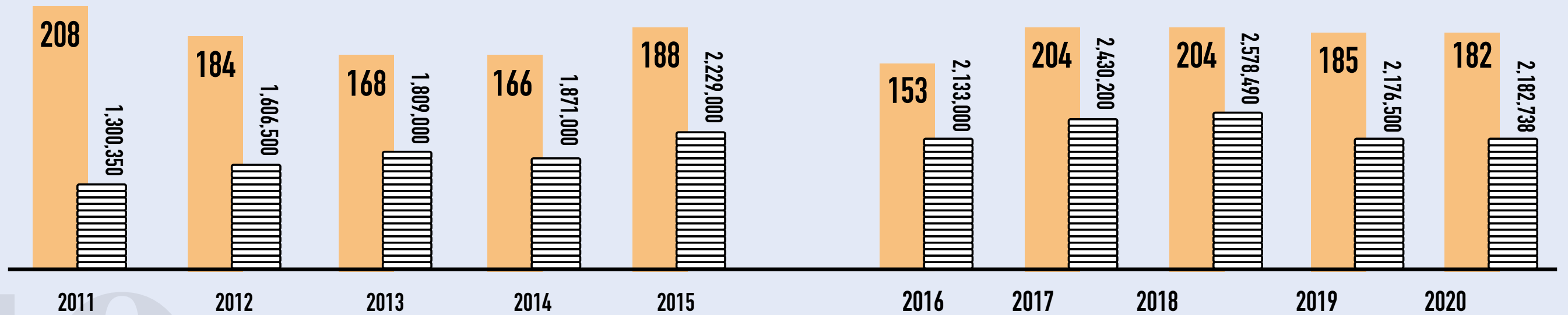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이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	대표이사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	이 사	박 향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4	이 사	김종남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위원장	
5	이 사	정혜경	송원대학교 초빙교수	
6	이 사	윤만식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7	이 사	김 성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8	이 사	박광석	前 광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장	
9	이 사	전명옥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	
10	이 사	김하림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11	이 사	임해철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12	이 사	송진희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13	이 사	최명숙	광주현대병원 원장	
14	이 사	박헌택	(주)영무토건 대표이사	
15	이 사	안태기	광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1	감 사	이평형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2	감 사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광주문화재단 4기
이사회 (2020년~2023년)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이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	대표이사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3	이 사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4	이 사	김미옥	前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5	이 사	김성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6	이 사	김옥희	前 광주무용협회 이사	
7	이 사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8	이 사	박정원	(주)반석약품 대표이사	
9	이 사	박헌택	(주)영무토건 대표이사	
10	이 사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11	이 사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12	이 사	장경화	前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	
13	이 사	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석좌교수	
14	이 사	한선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5	이 사	황병하	조선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1	감 사	김요성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2	감 사	김민표	김민표 법률사무소 변호사	

숫자로 보는 재단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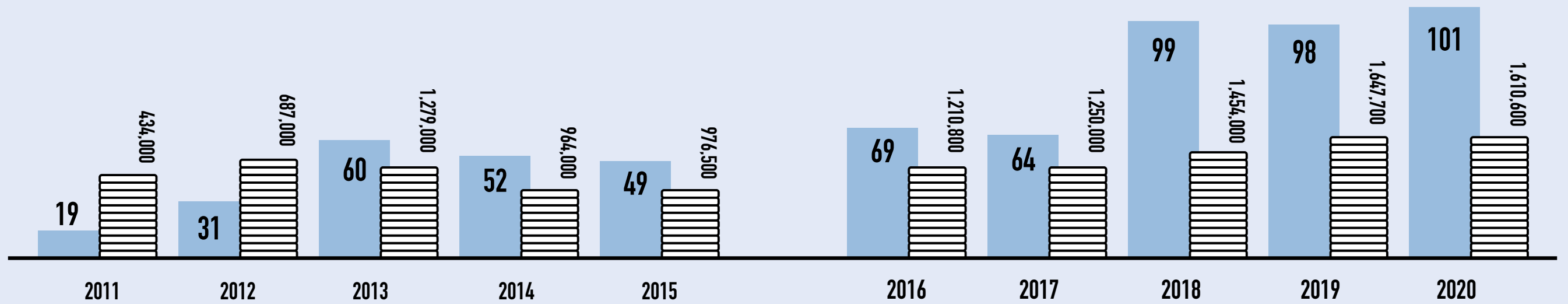
문화예술지원 단체 수
(창작지원) 단위(천원)



10년 간 **1,842** 개 문화예술 단체에 약 **203** 억원 지원

10
years.

문화예술 교육 단체 수
& 지원금액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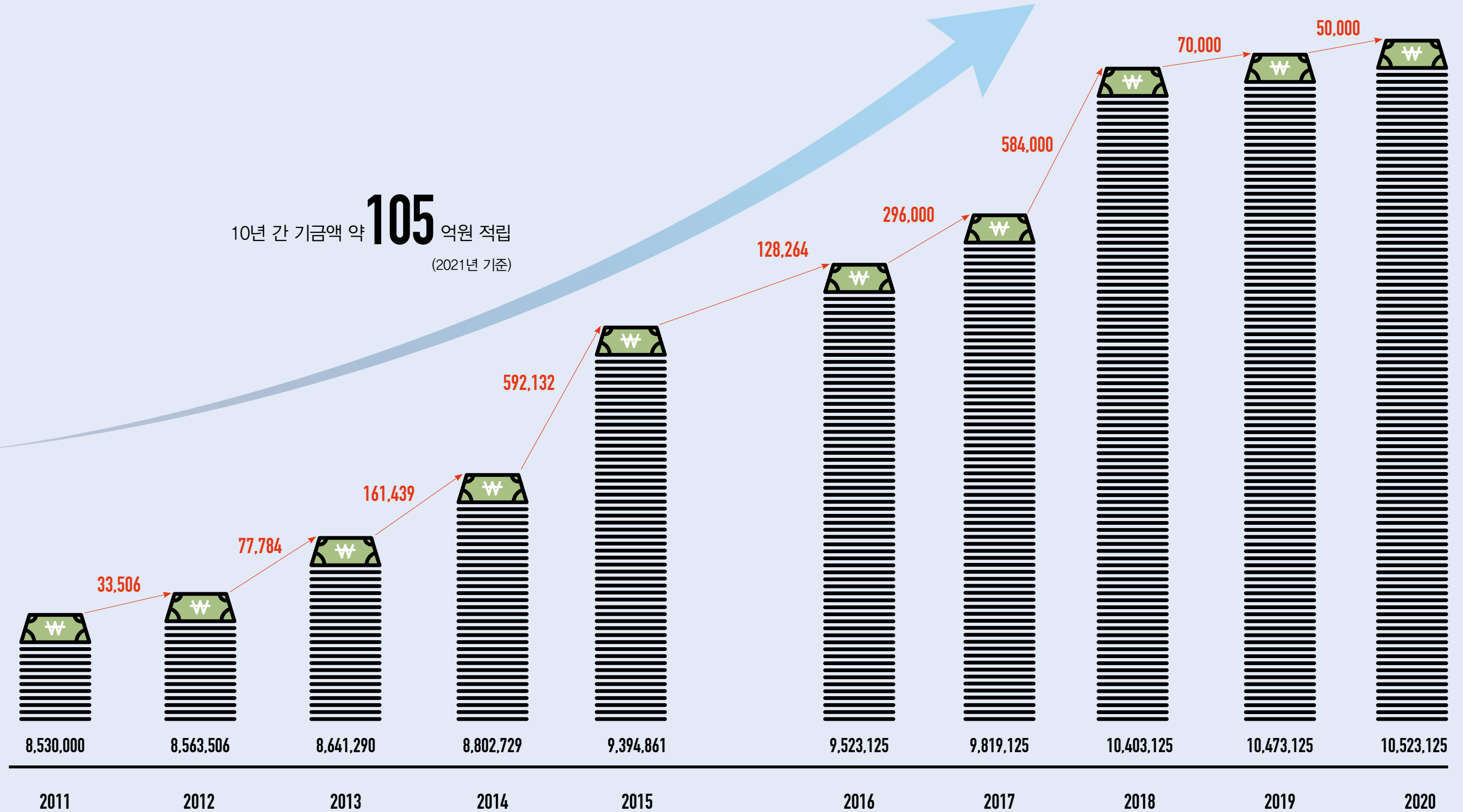


10년 간 **642** 개 문화예술 단체에 **115**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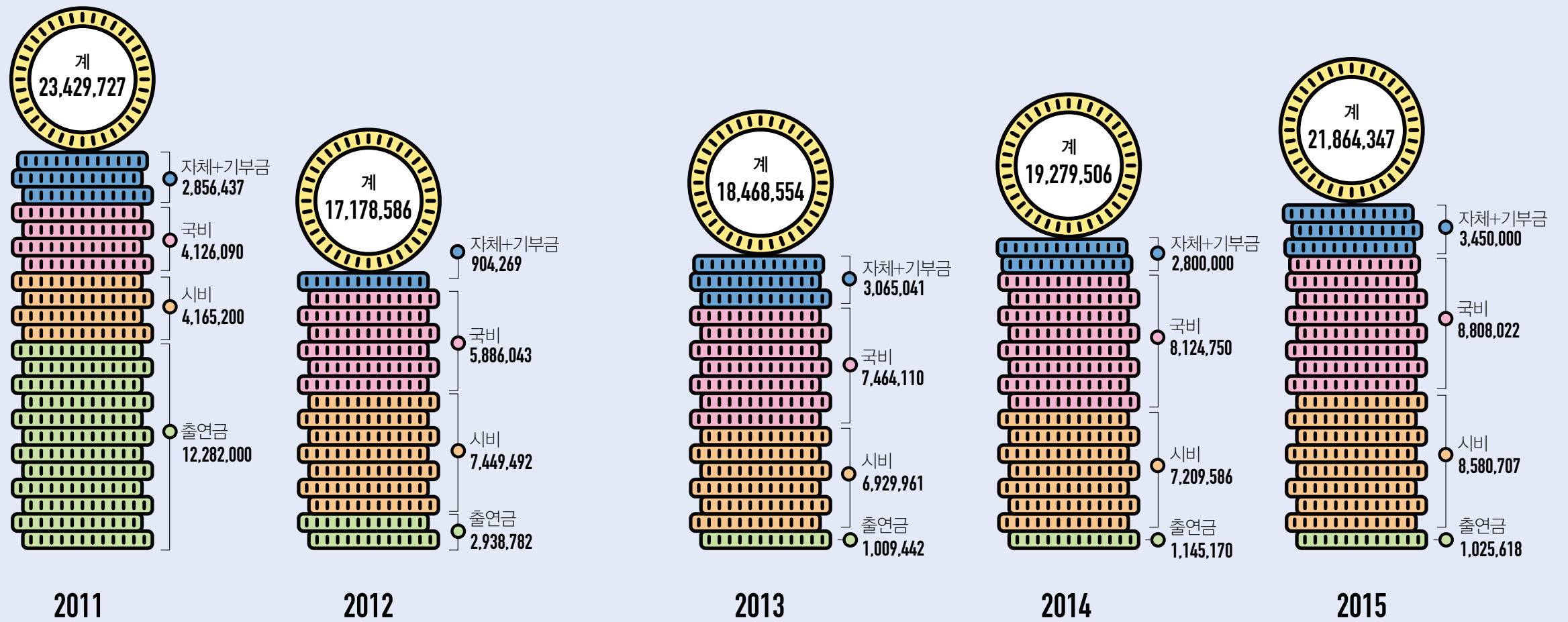
10
years.

기금액 금액(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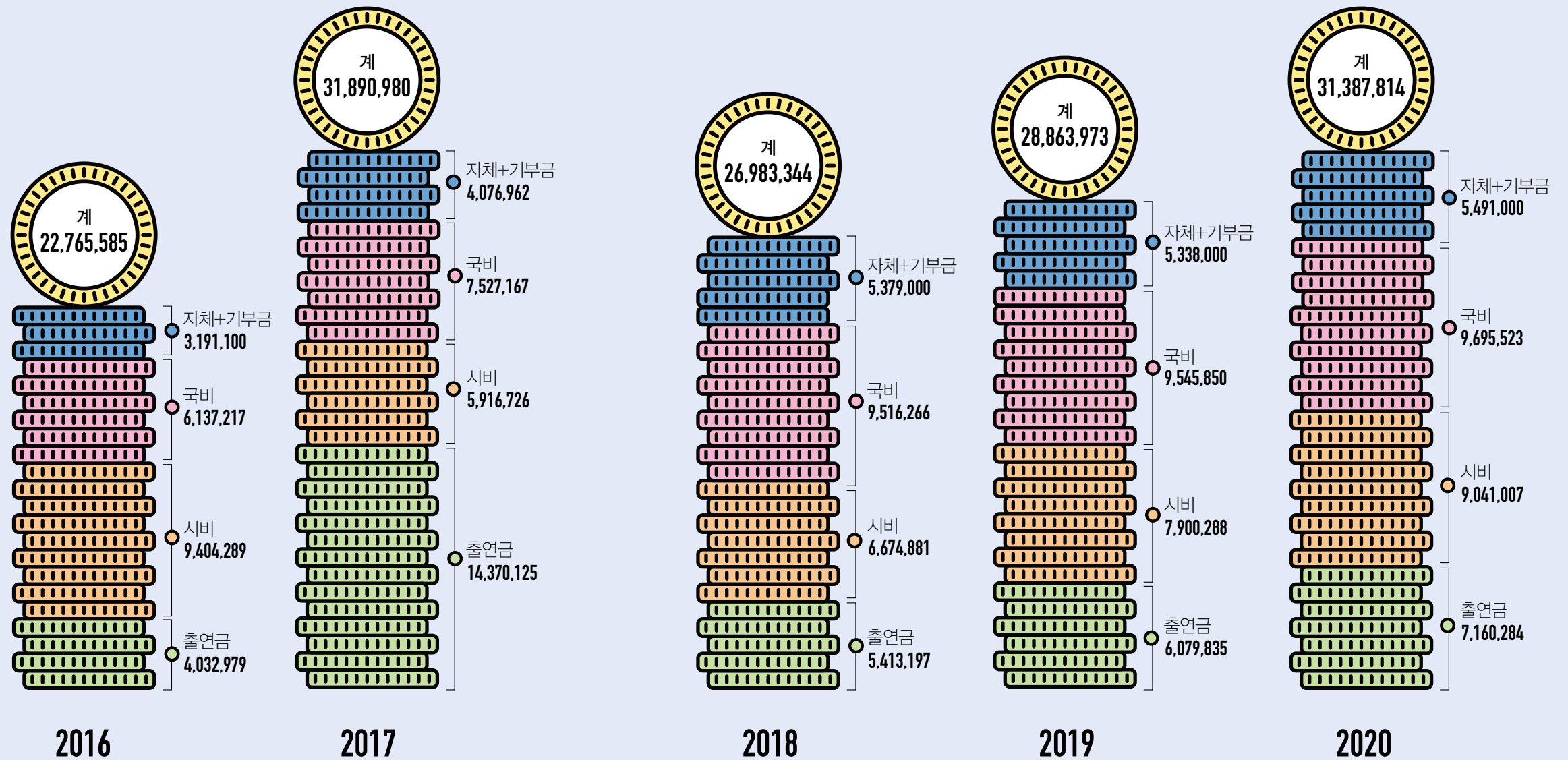
10년 간 기금액 약 **105** 억원 적립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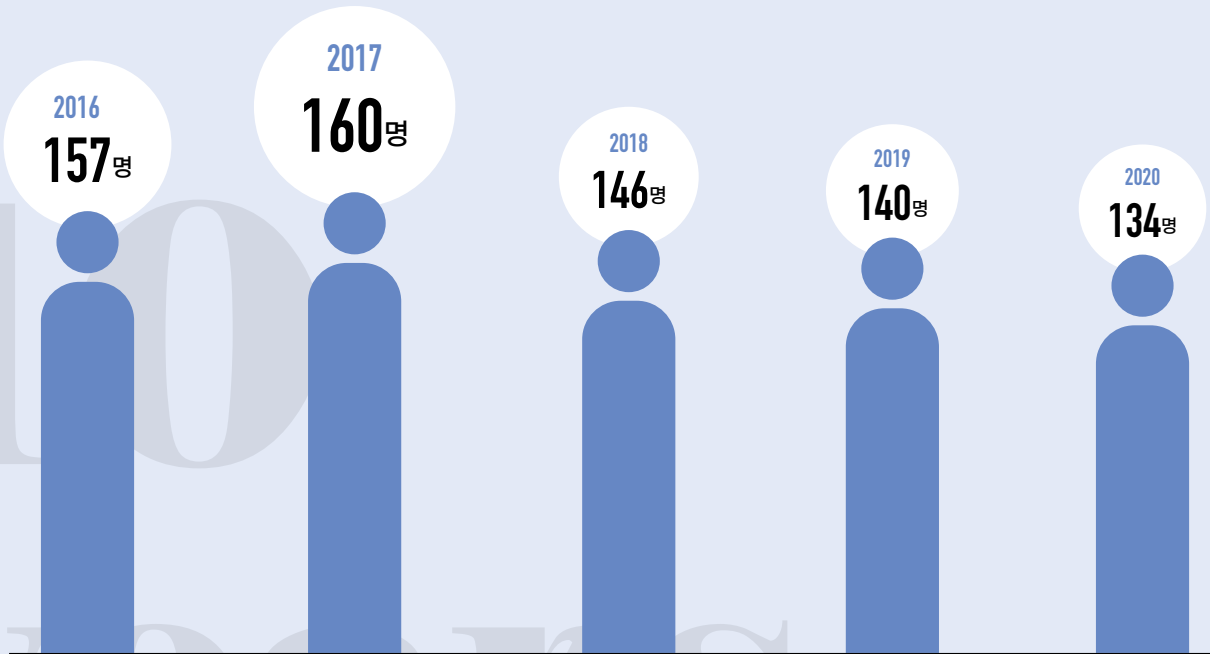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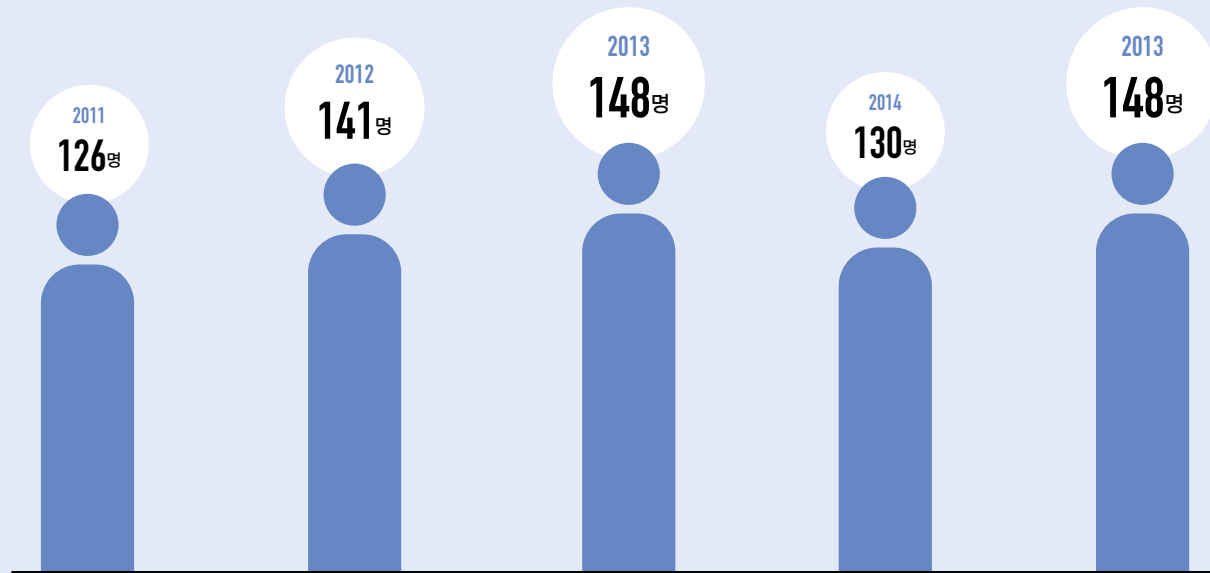
재단 10년
예산액 변화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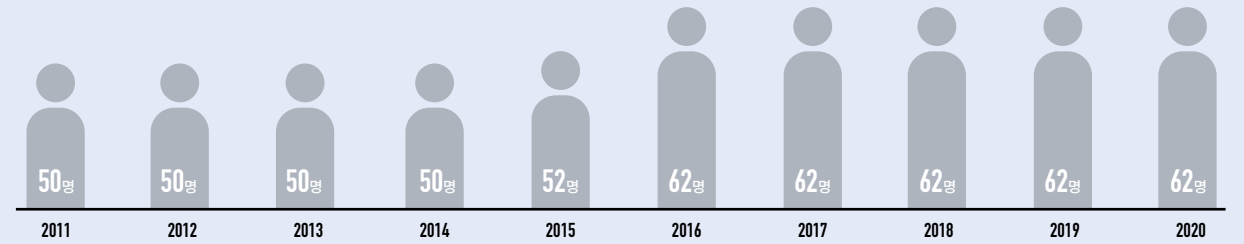
재단 10년
예산액 변화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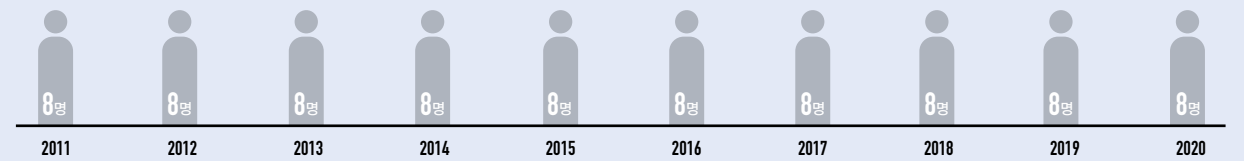
재단 10년 직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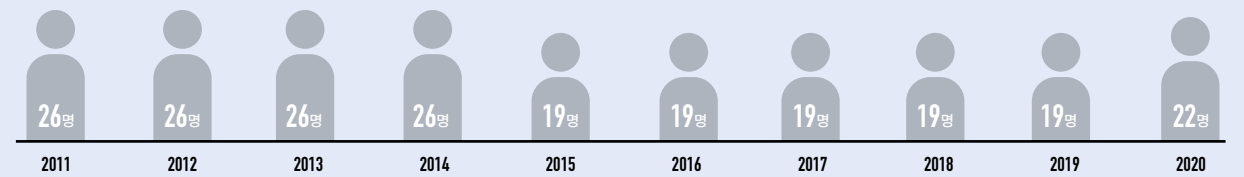
일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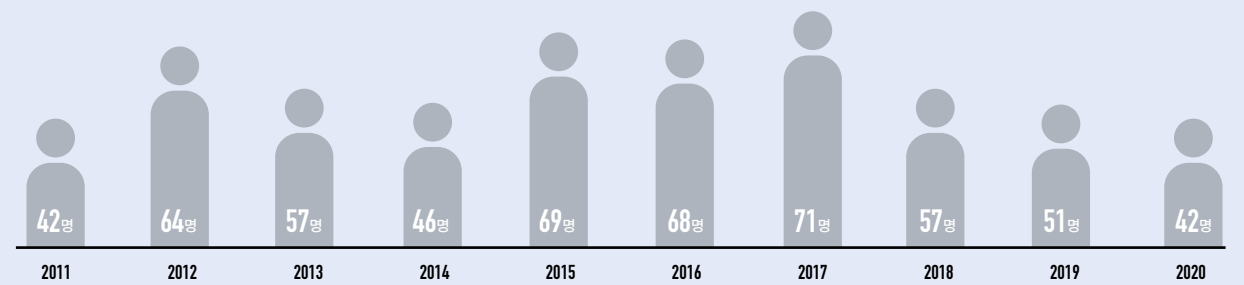
기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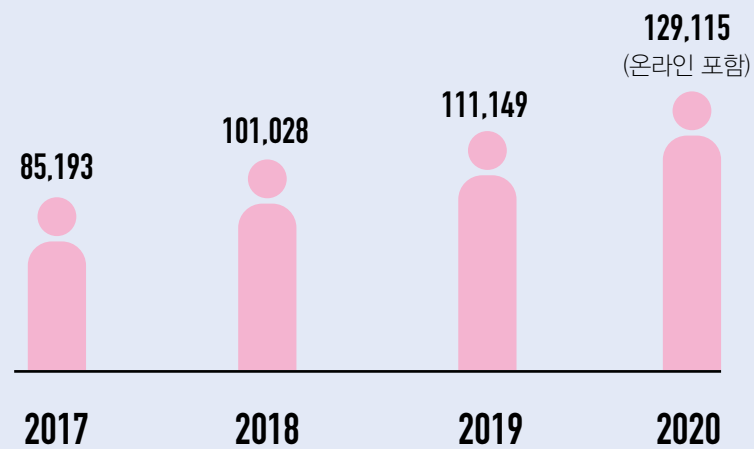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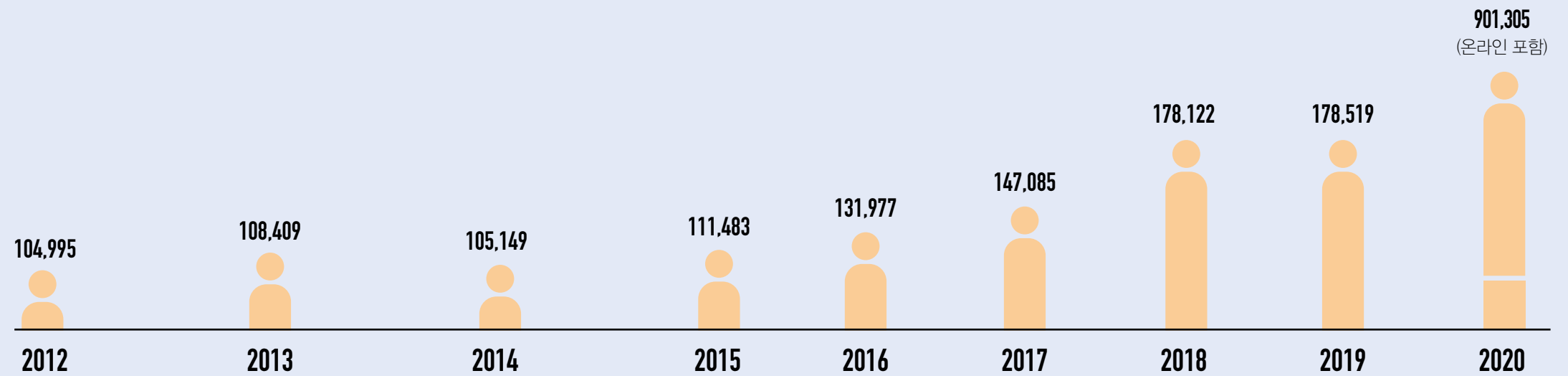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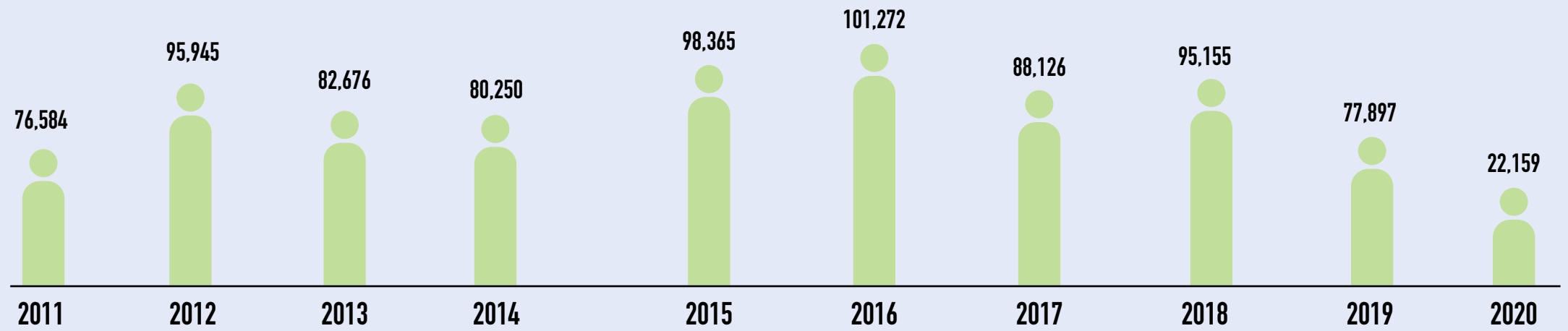
무기계약직 & 공무직



계약직 (기간제)



방문객 단위(명)



10
years.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2020
저음서오

Ⅲ. 시간을 채우다

5월 광주정신을 예술로, 축제로

- 자스민 광주
- 광주세계아리랑 축전과 뮤지컬 〈빛굴 아리랑〉
-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뮤지컬 '광주' & 관현악 편곡 '님을 위한 행진곡'〉

공연예술의 폭을 넓히다

-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 축제
- 정월성음악축제

광주의 터무니를 찾다

- 도시의 뿌리를 찾는 광주학
- 근심지목(根深之木), 광주학 10년의 성과와 의미
- 광주학의 전망과 과제

광주문화의 미래를 준비하다

- 영원한 개량주의
- 정책사업 10년의 성장통
- 지속가능한 성장

Ⅲ. 시간을 채우다

광주문화재단 창립 이후 지난 10년은
광주를 예술로 풍성하게 해온 세월로 채워졌다.
출범 당시 재단 건물 외벽에 걸린 캐치프레이즈가
‘문화의 숲을 가꾸는 농부가 되겠습니다’였다.

광주문화재단 창립 이후 지난 10년은 광주를 예술로 풍성하게 살찌운 세월로 채워졌다. 출범 당시 재단 건물 외벽에 걸린 캐치프레이즈가 ‘문화의 숲을 가꾸는 농부가 되겠습니다’였다.

광주문화재단은 2005년 출범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광역시 공연 예술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2011년 1월 출범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예술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 실행 업무등을 담당하였고, 공연 예술재단은 정월성축제 등 축제영역 업무를 담당한 조직이었다. 재단이 다양한 시민문화예술 축제를 운영한 근거이기도 하다. 축제와 기획 프로그램은 예술지원 영역과 다른 형식으로 광주 예술의 힘을 뒷받침하면서 광주 예술의 커를 단단히 쌓고, 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왔다.

매년 추진된 문화예술축제와 기획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계와 힘을 모아 창작한 작품들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여러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는 공연 예술의 다양화다. 지역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첫 해부터 브랜드공연과 브랜드 축제를 위해 노력했다. 세 번째는 ‘광주의 터무니’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광주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찾아나서는 저작을 알리고, 지역학의 정초를 세우기 위한 ‘광주학 콜로키움’을 구성 운영했다. 마지막 가치는 ‘광주 문화 예술의 미래’를 위한 연구다. 아시아문화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운영했던 포럼, 세미나, 자문위원회 등으로 광주 문화 예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0 뮤지컬 광주

창립 첫째 선보인 ‘자스민 광주’에서부터, 2012년의 창작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브랜드공연작품),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을 통해 선보인 ‘빛깔 아리랑’(2012~2014),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 2020년 첫 선을 보인 ‘뮤지컬 광주’ 등을 대규모 창작작품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는 지역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다. 재단 창립 기획 공연 ‘산도 30년쯤 바라 봐야 산이다’를 포함한 사직통기타촌 공연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페스티벌 오! 광주’라는 브랜드를 명명하고 브랜드공연축제, 정월성축제, 여성합창축제, 아듀 2011 축제 등을 운영했으며 국제교류 광주-북해도 연극 교류 공연도 추진했다. 클래식, 연극, 대중음악 등 공연예술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도로 지역 예술계를 풍성하게 넓혔다. 세 번째는 ‘광주의 터무니’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지역문화와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광주를 연구한 향토사학자들의 오랜 활동을 엮어 ‘광주학 총서’로 지속적인 출판을 이어갔다. 광주사람, 광주 땅, 광주의 사라진 소중한 것들까지, 미시 생활사에 속하는 광주 이야기들을 광주학으로 담아냈다. 네 번째는 ‘광주 문화의 미래’ 영역이다. 오지 않은 내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되어 온 아시아문화포럼을 시작으로 문화지표 조사, 정책연구, 재단의 비전과 미션 연구, 문화예술교육 연구, 청년예술인 지원 연구 및 실행 등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해왔다.

5월 광주정신을 예술로, 축제로

광주문화재단 10년의 발자취를 채운 첫 번째 지향은 '광주 정신의 예술적 승화'이다. 광주의 '5월'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재창조, 재고찰되어 새로운 예술로 탄생했다. 예술인들의 왕성하고 지난한 창작 노력에 재단의 방향이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대형 무대예술 창작 작품만 해도 여러 편이다. 광주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5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충분히 문화상품으로서 소구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자스민 광주

2011년 재단의 출범과 함께 주어진 사명 중 하나가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공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젖도 떼지 않은 신생아 같은 광주문화재단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만들어진 작품이 '자스민 광주'다. 이 작품에는 씻김굿을 도구 삼아 광주정신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자는 야심 찬 취지가 담겨 있다. 그해 2월에 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7월에 빛고을시민 문화관에서 2차례 공연, 8월에는 세계 최고의 축제인 에든버러페스티벌 참여라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에서 진행된 첫 공연에는 관람객으로 객석이 꽉 찼으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씻김굿의 절정인 '길뒹임' 순서에서 객석과 무대를 이은 긴 무명천 위로 수많은 관객이 명령들을 위한 노랫돈을 올리며 동참했다. 눈물과 감동의 순간이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나', 광주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부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인물로서 씻김 제의를 통해 다시 살아나 현대의 무녀와 소리꾼, 연주자,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무대를 이끌었다. '나=광주'는 5월 희생자이면서, 자스민 혁명의 발원지 튀니지에서 최초로 분신한 젊은 노점상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의 난민이 되기도 한다. 아픈 상처를 안고 떠도는 모든 영혼이 되고, 그 모든 영혼의 아픔을 위로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 나온 작품성에 관한 논쟁은 차치하고, '자스민 광주'는 광주문화재단이 처음 시도한 대형 창작 무대예술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작품의 기조는 1980년 광주의 희생에서 출발한 민주정신이었으며, 이후에도 광주문화재단이 만드는 무대예술 창작 작품의 흐름이 되었다.

광주세계아리랑 축전과 뮤지컬 <빛골 아리랑>

2012년 8월 광주문화재단이 새로운 축제의 개최를 알렸다. ‘2012 광주 세계 아리랑축전’이 그것이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중국이 가져가려는 움직임 속에 아리랑이 한민족 고유의 민요이자 문화임을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가 주최하는 축제였다. 극단 아리랑 창단을 비롯해 아리랑과 인연이 깊은 연극인 김명곤씨를 총감독으로 위촉, 주제공연인 총체극 ‘빛고을 아리랑’을 만들고, 3일간의 야외 공연으로 아리랑을 알렸다. 총체극 ‘빛고을 아리랑’은 민족 고난의 고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 온 아리랑을 ‘아리랑 여인’의 삶을 통해 조명했다. 당시 유명한 젊은 소리꾼 박애리씨가 남편인 팝핀현준과 함께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소설가 황석영씨의 아들인 작곡가 황호준이 ‘빛고을 아리랑’ 전곡을 창작해 주목을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새롭게 만들어진 ‘빛고을 아리랑’을 알리기 위해 광주 5개 구를 찾아다니며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다.

아리랑축전은 2012~14년 3년간 진행됐으나 주제공연은 매해 다르게 제작됐다. 첫 해는 총체극으로 진행됐으나 이듬해 두 번째 축전에서는 본격 창작 뮤지컬로 제작됐다. 총체극이든 뮤지컬이든 모두 광주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여러 그릇 중 하나였다. ‘빛고을 아리랑’(2012년)은 자전거를 탄 소년이 망월동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해 1980년 광주의 항쟁과 주먹밥, 희생과 부활, 대화합으로 구성, 광주정신이 우리의 미래임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뮤지컬 ‘빛골 아리랑’(2013~14년)은 식민시대의 항일운동, 한국전쟁을 거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견딘 보편적 광주의 인물, 막이할머니의 이야기와 노래로 구성됐다. 광주 출신의 유희성씨가 뮤지컬 연출을 맡아 광주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 1980년대 충장로 거리, 봉제공장, 들불야학, 금남로 항쟁 등이 재현됐다. 주제곡에 담긴 ‘빛고을 빛골 아리랑 무등 무등 아리랑’의 구슬픈 선율을 부르는 주인공 ‘막이’의 파란만장한 삶이 광주의 기억과 중첩되면서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민족의 애환이 담긴 민요이자 문화의 뿌리인 아리랑과 광주의 역사를 연결시킨 총체극 ‘빛고을 아리랑’, 창작뮤지컬 ‘빛골아리랑’은 이후 2019~2021년 민주주의 상징 문화 콘텐츠 사업 속에 뮤지컬 ‘광주’로 이어지고 성장했다.



2015 빛골아리랑



2012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공연을 만들자는 광주광역시의 의지는 2012년 ‘자스민광주’ 제작,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 등의 성과를 일궜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작품이 이어지지 못했다.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대작을 만들기에는 짧은 제작 기간, 광주에서의 2회 공연으로 마무리되고 타지역 순회가 무산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그러나 2012년 광주정신을 담은 브랜드공연작품 제작 의지를 다시 불태웠고, 광주문화재단은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 2011년 선보였던 총체극 자스민광주 2탄이 무용극으로 제작되는 셈이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유명 안무가 윤상진씨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고, 무용극 제작을 맡겼다. 젊은 안무가 류장현씨, 뮤지컬·무용음악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김태근씨가 동참했다. 광주시립극단 무용수 3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젊은 무용인과 류장현씨의 안무는 1980년 5월의 희생과 부활을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펼쳐보였고, 이후 광주 현대무용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12년 7월20~21일 이틀간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설공연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올려졌으나 아쉽게도 이듬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작품은 5·18을 경험한 한 남자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 그날의 기억으로 시작된다. 희생자 추모 형식의 일상적 틀을 벗어나 산 자들을 조명하는 새로운 변주를 춤으로 펼쳤다.

‘자스민 광주’를 비롯해 뮤지컬 ‘빛골아리랑’, 무용극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 광주’ 등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작품성을 선보였으나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



2018 관현악편곡 '님을 위한 행진곡'

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창작의 계기부터 과정에 지역 예술계 전문가들과의 교감이 미흡했던 탓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뮤지컬 '광주' & 관현악 편곡 '님을 위한 행진곡'>

2018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시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사업 국회예산 9억원 반영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세계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자는 아이디어에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2022년까지 5년간 총 83억원(국시비 5:5)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이 계획의 막후에서부터 준비해온 광주문화재단은 우선 2018년 국내외 작곡가에게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한 클래식 기반의 새로운 음악 창작을 의뢰했다. 당대 미국 최고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이클 도허티(교향곡)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김대성(교성곡) 박영란(피아노 협주곡) 황호준(서곡) 등의 작곡가가 동참했다. 또한 창작관현악곡 공모를 통해 4명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리스의 작곡가 트살리키안 미란이 최우수상, 국내에서도 김신, 임유미, 김민경씨 등의 작품이 선정됐다. 2018년 5월에는 광주에서 초연음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체코와 일본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됐다. 7월 7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국립교향악단과 함께한 연주는 현지에서 '프라하의 봄'을 연상시킨다는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연주회는 국내외에서 2018년 7회 진행됐다. 2019년에는 5월 18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이 5·18음악회를 통해 황호준의 '님을 위한 서곡'을 연주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25일 독일 뮌헨 콘서트, 10월 9일 부산민주공원, 11

월 15일 아시아문화전당, 11월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4회의 공연이 진행돼 위촉곡과 공모 선정작품을 세계에 들려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태였음에도 그해 6월 2일 익산, 4일 군산을 시작으로 11월말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까지 총 13회의 연주회를 개최했다. 특히 10월 16일에는 KBS교향악단이 연주를 해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으로 알려졌다.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대중화 사업'의 핵심은 뮤지컬을 제작, 보급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년간의 총 사업비 속에 절반 가량의 예산이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일이 쉽게 되지는 않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2019년 3월 공모를 추진했으나 참여제작사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2차 공모를 추진, 9월이 되어서야 제작사가 선정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작품명과 시놉시스가 '뮤지컬 광주'로 조정되었고, 첫 공연은 서울에서 2020년 10월 시작됐다. 2020년 1월 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미뤄진 탓이다. 사전 리허설도, 제작발표회나 쇼케이스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개막에 앞선 9월 29일 공연장 지하에서 열린 '시즈프로브 및 쇼케이스'에는 수많은 국내 언론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작품은 특수부대 편의대원 박한수와 5월 항쟁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작품 속 이름 윤이진), 들불야학 사람들을 교차해가면서 비취준다. 결국 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숨진 사람들과 참회하는 박한수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막상 개막된 '뮤지컬 광주'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작품을 이끄는 역할을 1980년대 광주에 배치된 특수부대 편의대원 박한수의 시작으로 제작되었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 컸고, 세세한 고증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낙담했지만 다시 관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작품을 수정하면서 그 해에만 서울 40회를 비롯해 고양, 부산, 전주를 거쳐 12월 11일 마침내 광주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다.



2018 '님을 위한 행진곡'(체코공연)

공연예술의 폭을 넓히다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 축제

브랜드공연 축제는 재단 출범 전 광주예총,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광주공연예술재단 등이 추진했던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2002~2010년)를 계승한 페스티벌이다. 10억원에 이르던 예산이 2억원대로 축소되면서 외국 작품 초청 없이 국내의 우수한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역 작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광주문화재단이 브랜드공연작품으로 제작한 총체극 자스민광주를 첫 개막작으로 한 달 간 멋진 무대예술로 광주를 물들였다. 지역 작품으로는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타악그룹 얼쑤의 '인수화풍', 극단 진달래피네의 '몽연', 김미숙&임지형무용단의 '연의 노래' 등이 참가했다. 국립무용단의 '코리안판타지',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보이책', 더 패트론 컴퍼니의 '카르마'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을 잇따라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축제였다.

2012년에는 광주 출신으로 뉴욕에서 명성을 쌓은 안무가 김영순씨의 화이트웨이브 무용단이 축제의 막을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브랜드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광주'도 참여했으며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등 국내외 8개 공연단 20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했다.

2013년에는 광주시립무용단의 한국 창작발레 '명성황후' 등을 비롯해 5개 시립무용단이 동참했다. 극단 푸른연극마을, 선댄스프로젝트, 타악그룹얼쑤,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등의 지역 예술단체를 포함해 총 12개 작품이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30일이 넘게 진행돼 축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했다.

2014년, 재단이 진행한 네번째 브랜드공연축제는 그러나 32일간의 일정에 비해 광주 지역 브랜드 4개 단체 등 총 6개 작품으로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브랜드공연축제의 4년간을 돌아보며 되새겨야 할 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브랜드공연 축제의 명칭이다. 광주문화재단은 '페스티벌 오! 광주'라는 축제 명을 부여했다. '페스티벌



얼쑤의 인수화풍

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5월과 광주의 5개 자치구, 감탄사로서 '오!'까지 세 가지 중의적 단어에, 축제(祝祭)와 제의의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광주에서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온 다양한 축제들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축제로 변화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 수는 없을까”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당시 재단 담당자의 설명에서 갓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의 신선하고 진취적인 의지가 읽힌다. 두 번째는 문화나무예술단이다. 2011년 ‘페스티벌 오! 광주’ 축제사업의 일환으로 5월 한달 동안 구도심에서 거리 공연을 할 지역 단체를 모집한 결과 20여 개의 실력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재단은 이들에게 자발적 예술 재능 기부 단체이면서 브랜드축제 홍보대사의 성격을 부여하고 발대식을 거쳐 광주 곳곳에서 거리 공연을 진행했다. 그 해에만 8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고, 광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축제를 비롯해 도심 곳곳의 축제에 46회나 참여했다. 여기에는 거리예술(공연분야)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심지어 문화기획자, 행사진행(사회자, 아나운서), 시민동아리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문화나무예술단은 이후 2012년 130개 단체 1,600여명으로 확대되어 재단 행사는 물론 광주 권 지역 축제, 자원봉사센터, 상설공연 등 200여회의 공연을 함께했다. 2013년에도 300여회의 재능나눔 상설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2018년까지 운영됐다.

문화나무예술단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문화의 숲을 가꾸자던 광주문화재단의 캐치프레이즈와 가장 어울리는 일종의 문화협치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2019년 이후 자취를 감춘 문화나무예술단은 시민·예술인과 함께 앞으로 100년을 가고자 하는 광주문화재단이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뿌리 중 하나가 아닐까.

정율성음악축제

정율성은 광주가 낳은 걸출한 작곡가다. 1914년 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나 숭실학교에 다녔으며 전주 신흥중학교에 재학 중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 단원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37년 연안에 있는 노신예술학원 음악학부에 들어가 작곡을 배운 그는 이후 중국의 혁명을 노래하는 가곡 '연안송', 가곡 '삼림에서'를 작곡했으며, 1939년에는 유명한 '연수요'와 오늘날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지정되어 불려지는 '팔로군행진곡'을 만들었다. 그의 음악적 업적은 중국 3대 혁명음악인으로 선정될 만큼 중국에서 인정 받고 있다. 2000년대 초 광주에서 정율성의 중국 내 위상을 알게 된 뜻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 정율성 기념사업을 제안, 광주 남구 주최로 정율성축제를 시작했고, 이후 광주공연예술재단이 맡아 운영하던 정율성축제는 2011년 광주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재단의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초기 정율성축제는 정율성음악을 들려주는 정율성 음악회와 정상급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 혹은 앙상블을 초대한 클래식 중심의 관현악연주회, 그리고 정율성 선생과 인연이 있는 중국과의 교류 공연, 정율성의 음악과 생애를 연구하는 학술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피아니스트 한동일, 김다솔, 첼리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김봄소리, 클라라 주미강, 백주영, 야메이 유(대만), 비올리스트 오야마 헤이치로(일본) 등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그동안 정율성음악회를 매개로 광주의 음악팬들을 만났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앙상블을 비롯해 이탈리아 오카리나 연주 그룹 'Il Concerto delle Ocarine', 국내 연주단체인 루미나시아, MIK앙상블, TIMF(통영국제음악제)앙상블 등 수준 높은 실내악 단체들도 함께했다.

2012년에는 정율성 음악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편으로 광주성악콩쿠르를 부활시켰다.



2020 정율성음악축제 정율성과 쇼스타코비치

2020 정율성음악축제



2013 정율성음악축제



2020 정율성음악축제 정율성과 오페라의 향연

1996년 민간 영역에서 시작됐던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율성 선생의 가곡과 연결되는 축제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단숨에 국내 최고 수준의 성악콩쿠르로 자리잡았다. 특히 광주성악콩쿠르 수상자들의 국내외 활약이 눈부시다. 세계 최고 오페라단으로 손꼽히는 오스트리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심인성(베이스, 1996년 1위), 한국인 테너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데뷔해 유럽의 '한국인 칼라프'로 극찬받은 이정원(테너, 1996년 2위), 스위스 바젤 극장 주역가수로 활약하며 스위스 현지와 유럽 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서선영(소프라노, 2006년),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 2021년 영국 카디프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며 클래식 한류스타로 떠오른 김기훈(바리톤, 2015년) 등 수상자들의 수준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광주성악콩쿠르, 정율성 축제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광주의 터무니를 찾다

도시의 뿌리를 찾는 광주학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대체로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내 고장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연구 분야로 지역의 역사와 인물, 지리와 환경,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도시의 뿌리를 찾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미 서울학을 필두로 인천학·부산학·경기학·충청학·강원학·제주학 등 지역학 진흥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지역학 연구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을 두어 지역의 이름을 내건 '학'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학'을 강조한데 반해, '광주학'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정치지형에서 영남과 대비되는 호남의 정체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호남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 그리고 집합심성이 있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물론 전라도 옛 문헌의 번역과 해제를 주요 과업으로 연구하는 호남학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좀 더 실용적인 방법 즉 지역주민과 밀착하고 공공정책과 결합되어 실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역문화연구 또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지역민에게 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연구와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지역학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된다.



2015 광주학 포럼

근심지목(根深之木), 광주학 10년의 성과와 의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광주라는 토양에서 광주학은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 광주학은 세찬 바람과 가뭄을 견디며 계속 뿌리를 뻗어 나아가야 하는 장기전의 사업이다.

지난 10년간 광주의 뿌리를 찾고 광주의 문화사를 정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지역민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성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내외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부침의 과정이 광주학 사업에 그대로 스며 있으며 이것 역시 광주문화재단 역사의 일부이다. 광주학 연구는 크게 3기로(태동기, 안착기, 성장기)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1기는 광주학 태동의 시기로 근대 광주 산증인 故 박선희 선생의 『광주1백년』, 『무등산』 두 책의 지적재산권 기증이 주요한 계기이다. 1994년 출판된 『광주1백년』은 개화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광주의 역사·문화·지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귀중한 책이다. 『무등산』은 무등산의 풍광·역사·유적을 집대성한 인문지리지로 1976년 초판을 펴낸 뒤 2011년 7판을 내기까지 35년 동안 세심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저작이다. 근대 광주의 소중한 자산을 집대성한 지적재산권을 기증받고 증보판을 발행하며 광주학 사업은 시작되었다. 이후 재단은 김정호 선생의 『광주산책』을 기증받았고, 광주학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며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제2기는 광주학의 안착기로 지역을 공부하는 연구모임을 발굴해 광주학 콜로키움을 조직하고, 광주학 포럼 및 광주학 총서 시리즈 발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광주학을 널리 알리는 시기였다. 광주학콜로키움은 전남대 천득엽 교수를 중심으로 임영진(전남대 교수), 이동순(조선대 교수), 김덕진(광주교대 교수), 조광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사), 노성태(국제고 교사), 이계표(前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으



2014 광주1백년 출판 기념회



박선희 선생 광주1백년 1~3권 전집



2015 광주산책 출판 기념회

며 광주의 문화적 사건, 인물, 공간 등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광주문화 100년』 등 광주학 총서 시리즈 발간을 지속하였고, 광주학 자료에 대한 수집과 발굴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광주학아카이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지원은 미약했고 왜 광주문화재단이 지역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시기였다.

제3기는 광주학의 성장기로 ‘광주의 과거’나 역사 콘텐츠에서 벗어나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지역학의 범주를 확장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시기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광주학콜로키움은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소모임을 발굴 지원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주제인 광주의 길과 노포를 정리하여 ‘광주모노그래프’를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등산권 인물을 조명하는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 오방, 석아, 의재전> 심포지움과 특별전시를 개최, 무등산 자락의 원림과 영산강권의 누정을 조사하여 누정총서 시리즈도 출간하였다. 책에는 누정에 얹힌 인물과 역사, 작품, 조경의 특성은 물론 여행객을 위한 정보까지 수록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광주 관련 도서는 24권이 발간되었고 지적재산권 및 자료를 기증받아 약 2천 여 점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표1〉광주학 사업 추진 연혁(2012~2020)

시기	연도	주요내용
제 1기	2012. 6. 15.	박선희, <광주일백년1~3권>, <무등산> 지적재산권 기증
	2012. 12.	광주학총서 <광주1백년> 1권(박선희) 출간(증보판)
	2013. 8. 26.	김정호, <광주역사산책> 무등일보 기고문 저작재산권 기증
	2013. 9.	광주학총서 『무등산』 (박선희) 출간(증보판)
	2014. 12.	광주학총서 『광주1백년』 2권(박선희) 출간(증보판)
	2014. 12.	광주학총서 『광주산책 상(上)』 (김정호) 출간
제 2기	2015. 2.	광주학 자료실 <문화예술도서관> 구축 운영
	2015. 6. 23.	2015년 1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천득염)
	2015. 7. 23.	2015년 2차 광주학 콜로키움 -타지역 지역학 연구센터의 현황과 벤치마킹(김지원)
	2015. 8. 27.	2015년 3차 광주학 콜로키움 -호남, 광주의 사상문화사와 광주학의 방향(이종범)
	2015. 10. 8.	광주학 정책포럼_도시인문학으로서 광주학의 가능성과 전망(김기곤)
	2015. 11. 19.	2015년 4차 광주학 콜로키움 -유적유물로 본 선사고대의 광주(임영진)
	2015. 12.	광주학총서 『광주산책 하(下)』 (김정호), 『광주1백년』 3권(박선희) 출간
	2016. 3. 17.	2016년 1차 광주학 콜로키움 -호남문화로 본 광주(나경수)
	2016. 4. 21.	2016년 2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천(류영국)
	2016. 5. 19.	2016년 3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의 불교유적을 통해본 불교문화(박춘규)
	2016. 6. 16.	2016년 4차 광주학 콜로키움 -퇴계와 고봉, 소통하다(김세권)
	2016. 6. 16.	이동순, '광주 100년의 문학' 저작재산권 기증
	2016. 8. 18.	광주학 정책포럼 지역학으로서 광주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6. 9. 22.	2016년 5차 광주학 콜로키움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유적(조현종)
	2016. 10. 20.	2016년 6차 광주학 콜로키움 -일제강점기 광주의 건축물(한승훈)
	2016. 12.	광주학총서 『광주문학 100년』 (이동순)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2017. 3. 26.	2017년 1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천의 다리(조광철)
	2017. 4. 20.	2017년 2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의 지명(손희하)
	2017. 5. 25.	2017년 3차 광주학 콜로키움 -백제 동성왕의 무진주 출병과 토착세력의 추이(문안식)
	2017. 6. 15.	2017년 4차 광주학 콜로키움 -사직동의 역사와 문화(노성태)
	2017. 9. 21.	광주학 정책포럼 '광주문화해설사가 묻는다'
	2017. 10. 26.	2017년 5차 광주학 콜로키움 -노사학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연구방향(홍영기)
	2017. 11. 23.	2017년 6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 · 전남의 불교전래와 사찰창건 문제(이계표)
	2018. 4. 23.	2018년 1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 읍성과 관아(김덕진)
	2018. 5. 28.	2018년 2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 근대 도시시설(윤현석)
	2018. 6. 26.	2018년 3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천이 품은 역사(조광철)
	2018. 7.	광주문화재단 내 광주학 아카이브실 공간 구축
	2018. 8. 9.	故 박선희 선생 추모 1주기 & 광주학 콜로키움 북콘서트 개최
	2018. 8.	광주학총서 『광주학의 역사와 기원 찾기』 (공동저자) 출간
	2018. 10. 22.	2018년 4차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학생항일운동(김재기)
	2018. 11. 26.	2018년 5차 광주학 콜로키움 -어등산 한말의병(홍영기)
	2018. 12.	누정총서 1~6권 발간
	2018. 12.	광주학총서 『정율성의 음악세계와 현대성의 지평』 (공동저자) 출간
	2019. 4.	광주학 소모임 지원사업 「소탐대담 小探大談」 공모 · 선정
	2019. 10.1~31.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 오방, 석야, 의재 전시회
	2019. 10. 25.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 심포지움(전통문화관)
	2019. 12.	광주학총서 『광주 근현대 미술의 주요 지점들』 (공동저자) 출간
	2019. 12.	광주모노그래프 『길』 (공동저자) 출간
	2019. 12.	광주학소모임 연구결과서 『광주의 지문Ⅰ』 (소모임 4개팀) 출간
	2019. 12.	누정총서 7~10권 발간
	2019. 12. 18.	광주학 도서 북콘서트 및 대담회 <스토리콘서트 책과 마이크> 개최
	2020. 4.	광주문화자산발굴 소모임 지원사업 「광주문화 백년대계」 공모 · 선정
	2020. 5. 15.	지역학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2020. 6. 29.	2020년 1차 광주학 콜로키움 - 근대 광주의 노블레스(이동순)
	2020. 7. 27.	2020년 2차 광주학 콜로키움 -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김허경)
	2020. 9. 28.	2020년 3차 광주학 콜로키움 - 도시화 시대 광주천의 사람들(박경섭)
	2020. 10. 26.	2020년 4차 광주학 콜로키움 - 광주의 근현대 대중음악가(주광)
	2020. 11. 30.	2020년 5차 광주학 콜로키움 - 근대 광주의 건축문화와 건축가들(천득염, 김현숙)
	2020. 12.	광주모노그래프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 (공동저자) 출간
	2020. 12.	광주학소모임 연구결과서 『광주의 지문Ⅱ』 (소모임 4개팀) 출간

〈표2〉광주학 도서 발간 현황(2012~2020)

연번	발간연도	저자	제목	총서명
1	2012	박선희	『광주일백년 1권』 개정증보판	광주학총서1
2	2013	박선희	『무등산』 개정증보판	광주학총서2
3	2014	박선희	『광주일백년 2권』 개정증보판	광주학총서3
4	2014	김정호	『광주산책 상』	광주학총서4
5	2015	김정호	『광주산책 하』	광주학총서5
6	2015	박선희	『광주일백년 3권』 개정증보판	광주학총서6
7	2016	이동순	『광주문학 100년』	광주학총서7
8	2018	나경수 외 9인	『광주학의 기원과 역사 찾기』	광주학총서8
9	2018	국윤주 著, 김대현 驛	『독수정 명옥헌』	누정총서1
10	2018	천득염 著, 김대현 驛	『소쇄원』	누정총서2
11	2018	임준형 著, 김대현 驛	『면앙정』	누정총서3
12	2018	조태성 著, 김대현 驛	『환벽당 최가정 풍암정』	누정총서4
13	2018	임준성 著, 김대현 驛	『식영정』	누정총서5
14	2018	이상원 著, 김대현 驛	『송강정』	누정총서6
15	2019	박성천 著, 김대현 驛	『풍영정』	누정총서7
16	2019	박명희 著, 김대현 驛	『호가정 만귀정』	누정총서8
17	2019	김희태 著, 김대현 驛	『부용정 양과동정』	누정총서9
18	2019	정경운 著, 김대현 驛	『양파정 춘설헌』	누정총서10
19	2018	신정호 외 11인	『정율성 음악세계와 현대성의 지평』	광주학총서9
20	2019	장석원 외 8인	『광주 근현대 미술의 주요 지점들』	광주학총서10
21	2019	담다 외 3개팀	『광주의 지문Ⅰ』	소모임연구결과서
22	2019	장은진 외 5인	『길』	광주모노그래프1
23	2020	김형중 외 5인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	광주모노그래프2
24	2020	아따그라제 외 3개팀	『광주의 지문Ⅱ』	소모임연구결과서

〈표3〉광주학 관련 지적재산권 기증 현황

구분	기증일	기증자	기증자료
1	2012. 6. 15.	박선희	광주일백년1~3, 무등산 지적재산권 기증
2	2013. 8. 26.	김정호	광주역사산책 무등일보 기고문 저작재산권 양도
3	2016. 6. 16.	이동순	광주 100년의 문학 저작재산권 기증
4	2016. 6. 28.	김세곤	퇴계와 고봉 소통하다 외 4권 기증
5	2019. 10. 22.	박해광	광주학 관련 도서, 문화이론서 등 500권
※	~현재	범현이 외 다수	광주 관련 도서, DVD, 도록, 연속간행물 등

〈표4〉광주학 아카이브실 소장자료 현황(2020. 12. 기준)

구분	광주학 자료 현황：2018~2020				
종류	CD, DVD	연속간행물	단행본, 보고서	논문, 기타	합계
수량	223장	663건	1,093건	372건	2,017건

광주학의 전망과 과제

지난 10년간 광주학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며 연구의 기반과 성과물을 축적해 나간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헤쳐가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광주는 의향·예향·미향 문화도시 민주의 성지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지만, 근대도시 광주의 뿌리 찾기와 고유한 가치발굴의 노력은 여전히 부진하다. 따라서 광주학 콜로키움, 총서발간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문화사를 연구하고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일부 문화기관 및 문화원, 연구기관 등에서 광주에 대한 인문 사회 예술적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흩어진 자료와 연구성과를 총괄하는 중추기능이 부재한바, 광주학연구센터와 같은 기구 설립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언어 예술 역사 등 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고유한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지역 문화자원 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문화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근현대 광주의 문화 자원들이 유실되어 가고 있지만, 『광주1백년』을 저술한故박선흥 선생 이후 광주만의 사라져가는 원천자원을 보존하고 기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기억 박물관’을 가진 인물(원로 예술인, 향토학자, 수집가, 개인 아카이비스트)과 토박이 대상 구술아카이브 사업을 추진, 무형의 ‘기억’ 자원을 유형화 실물 자료화 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네 번째는 광주학 활성화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의 표현이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를 통해 광주학 관련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 광주를 알고 싶은 지역청년 및 연구소모임, 시민동아리 등을 발굴 지원하고 광주 문화자원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중심도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 경쟁력과 한계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연구가 선행될 때 지역은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학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응축된 결과물이 상당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성과물이 2차 콘텐츠로 가공되고 지역대표 문화브랜드로 승화될 때 비로소 꽃과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광주문화의 미래를 준비하다

영원한 개량주의

‘광주의 꿈! 문화가 희망이다’ 이 슬로건은 광주문화재단 창립기념 공연의 메인타이틀이자 문화가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년의 열망이 녹아 있는 문구이다. 지난 10년간 예술인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진흥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지만, 아직은 문화가 도시의 희망이 되고 먹거리가 되진 못한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광주도 하루아침에 문화도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문화예술의 힘과 긍정성을 믿고 영원한 개량주의자처럼 묵묵히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직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설정 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고 원년부터 실행해온 다종다양한 정책 사업을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 재단 10년의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거나, 내부 구성원이 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또한 연구범위도 너무 넓은 과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사업 분석과 자체평가를 통해 한계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정리했다.



2018 문화이슈포럼

〈표5〉광주문화재단 정책사업 추진현황(2011~2020)

	사업	예산	내용
2011	문화나무함께가꾸기	2,000천원	문화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협약체결
	정책자문단 운영	14,921천원	자문위원 회의, 정책집담회, 정책워크숍 등
	문화나무 상상강좌	31,000천원	일반시민 대상 명사 초청 문화예술 강좌(10회)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구축사업	200,000천원	무등산을 포함 아시아 명산 자원수집 및 아카이빙 산 스토리 수집, 콘텐츠 개발, 교류 및 시민참여 등
	아시아문화포럼	20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2012	광주문화재단중장기발전전략수립	35,000천원	재단의 중장기적 역할과 정체성, 주요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방향 연구
	문화나무함께가꾸기	3,096천원	국내 문화관련 기관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공유 등
	문화예술자문위원회	5,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문화나무 상상포럼	18,337천원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연수, 문화예술원로 초청 특강
	광주일백년편찬사업	20,000천원	『광주일백년』, 『무등산』 등 개정증보판 도서를 연차별 발간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구축사업	200,000천원	무등산을 포함 아시아 명산 자원수집 및 아카이빙 산스토리 수집, 콘텐츠 개발, 교류 및 시민참여 등
	아시아문화포럼	20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문화정책개발 사업	20,000천원	국비공모사업 수주(5건, 14억 수주), 여름문학특강, 학술행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2013	재단발전워크숍	25,000천원	문화융성 토론회, 재단직원 워크숍 추진
	MOU기관협력사업 및 교류활성화	10,000천원	문화기관협의회 운영 등
	광주문화아카이브 테마북 제작	8,200천원	〈광주 역사산책〉 저작재산권 양도 및 스토리텔링 테마북 책자발간
	광주일백년편찬사업	20,000천원	『광주일백년』, 『무등산』 등 개정증보판 도서를 연차별 발간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구축사업	200,000천원	무등산을 포함 아시아 명산 자원수집 및 아카이빙산스토리 수집, 콘텐츠 개발, 교류 및 시민참여 등
	아시아문화포럼	20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2014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000천원	전국문화재단 세미나, 대표자회의, 정책워크숍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4,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추진
	광주학총서 발간	42,000천원	『광주일백년Ⅱ』, 『광주산책(上)』 발간
	아시아문화포럼	20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2015	광주문화발전 중장기기본방향 2030 수립	6,000천원	광주 문화미래를 전망하고, 광주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제안
	광주학 총서 발간	23,000천원	『광주1백년 Ⅲ』, 『광주산책 下』 발간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4,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추진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7,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광주문화지표개발	6,000천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표 검토, 광주문화지표개발 등
	광주문예연감	6,000천원	지역 문화예술 10개 장르별 연간활동 현황 정리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교류사업	6,0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빛고을시민문화관활성화계획	15,000천원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관광 상징물로 리뉴얼 계획
2016	광주학 자료실 구축 및 운영	6,000천원	광주학콜로키움 및 광주학 자료 기증
	광주문화지표조사	36,000천원	문화시설 현황 조사 및 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광주학 총서 발간	20,000천원	『광주문학100년』 발간
	중장기 성과관리 연계계획	비예산	광주문화재단 성과관리 및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연계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7,000천원	문화다양성 인식, 사업 및 정책평가, 지원 조례제정 등 실태조사
	광주학 자료실 구축 및 운영	6,000천원	광주학콜로키움 6회 및 광주학 정책포럼 개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5,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교류사업	6,0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5,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추진

	사업	예산	내용
2017	청년문화실태조사	45,000천원	광주청년 1000명 설문조사. 청년문화 인식, 문화활동, 문화정책 조사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60,000천원	예술인 100인보 프로젝트, 기초예술활성화 정책 제언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및 활용사업	25,000천원	지역문화인력 1명 문화현장 배치 인턴십 프로그램,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광주학 자료실 구축 및 운영	8,000천원	광주학콜로키움 6회 및 광주학 정책포럼 개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8,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교류사업	11,0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5,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추진
	문화도시시간 교류사업	20,000천원	MOU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의 지속적 교류 · 협력 (상하이우호협회, 북해도문화재단, 홍콩예술발전위원회 등)
2018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4,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광주학 자료실 구축 및 운영	6,000천원	광주학콜로키움 6회 및 광주학 정책포럼 개최
	광주학총서 발간	20,000천원	『광주학의 기원과 역사 찾기』 발간
	광주문화예술아카이브	25,000천원	광주학 아카이브실 구축 및 기록물의 발굴수집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60,000천원	예술창작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공간지원 정책발굴
	생활문화실태조사	50,000천원	생활문화시설 및 생활문화 동호회 운영현황 조사
	예술인복지지원	40,000천원	예술인복지실태조사, 예술인 지원창구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123,000천원	청년 문화예술 일자리를 발굴제공, 예술단체 부족한 인력 10명 지원받아 창작활동에 전념함.
2019	시도문화재단 교류사업	9,7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3,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과제 추진
	문화도시시간 교류사업	14,000천원	MOU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의 지속적 교류 · 협력 (상하이우호협회, 북해도문화재단, 홍콩예술발전위원회 등)
	아시아문화포럼	15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451,000천원	청년 문화예술 일자리를 발굴제공, 예술단체 부족한 인력 20명 지원받아 창작활동에 전념함.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공동사업	60,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과제 추진 광주문화기관디렉토리북 제작
	시도문화재단교류	10,0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8,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2020	광주학활성화	100,000천원	광주 근현대 문화자산발굴 및 광주학 연구지원, 도서발간, 아카이브실 운영 등
	문화이모작 지역교육기관	34,000천원	지역 마을문화 매개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포럼	150,000천원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 관련 학술포럼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360,934천원	청년 문화예술 일자리를 발굴제공, 예술단체 부족한 인력 20명 지원받아 창작활동에 전념함.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공동사업	60,000천원	광주 문화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협력과제 추진 광주문화공간매거진 제작
	시도문화재단교류	15,000천원	전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교류협력사업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8,000천원	정책자문 및 정책의제 발굴
	광주문화자산구축	100,000천원	광주 근현대 문화자산발굴 및 광주학 연구지원, 도서발간, 아카이브실 운영 등
	광주예술인복지지원	40,000천원	예술인복지전용창구운영, 예술인 라운드테이블 등
	예술인파견지원사업	392,000천원	예술인이 지역사회(마을, 기업, 기관 등에 배치되어 협업활동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인은 창작지원금을 제공받는 사업

정책사업 10년의 성장통

정책은 조직의 목표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행위이다. <표5>은 조직의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소통채널 운영, 담론의 촉발, 공모사업 수주 등의 사례를 정리한 자료로서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의 문화정책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1년은 창립 원년으로 정책역량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춘 시기이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단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정책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광주로 초대해 문화 담론을 촉발하는 아시아문화포럼을 개최하였고, 무등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아시아의 명산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산테마스토리텔링 사업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시민사회 민관협력의 협치 역할 미흡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2년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 시기이다. 당시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 핵심가치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2013년은 정책연구팀을 신설하여 정책개발 및 국비 공모사업 수주에 전력을 다한 시기이다. 재단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재원마련이 시급했고, 국비 확보를 통해 재단의 기획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공공미술 2.0 양립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5건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2014년은 전국단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광주학 총서 시리즈를 발간하며 지역의 문화사를 차분히 정리했던 시기이다.

2015년은 경영2기가 본격화 된 시기로 '시민의 문화 주체화 광주정신·문화의 허브'라는 경영비전을 발표하고 정책연구 중심으로 재단의 핵심기능을 전환하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한 시기이다. 광주 문화미래를 전망하고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2016 광주학 콜로키움



2019 아시아문화포럼

과제를 제안하는 '광주문화발전 2030'을 수립하였고, 광주문화지표체계 개발, 광주문화예술연감 작성, 광주학 콜로키움 등을 운영하며 정책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2016년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 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한 시기로 광주문화의 지형도를 알 수 있는 광주문화지표조사 사업,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광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로 입안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7년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청년문화실태조사,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인 100인보프로젝트,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현황조사 등 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정책 연구조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시기이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및 일자리 사업 국비 예산확보, 예술인 복지정책제안, 생활문화실태조사 예산 확보 등의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8년은 경영3기가 본격화된 시기로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이라는 미션 아래 '광주문화를 바꾸는 협력 플랫폼'을 조직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생활문화실태조사, 예술인 복지실태조사, 창작공간운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광주문화기관 교류협력사업 시비 예산확보 및 광주학 관련 사업을 지속했다.

2019년은 광주학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광주문화자산 구축 및 기록물의 발굴 수집 등 광주의 뿌리를 찾는 광주학 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한 시기였다. 아울러 전남대, 국제교류센터로 이관되어 추진해 왔던 아시아문화포럼을 다시 추진하게 되어 문화정책 담론을 촉발하였으며 17개 광주문화기관 공동협력 사업의 결과물로 『광주문화기관 디렉토리북』을 발간하였다.

2020년은 예술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후속사업으로 국비공모를 통해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을 신규로 안착한 시기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임에도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를 초대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문화연대의 가능성을 아시아문화포럼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힘든 지역의 예술가를 위한 온라인 예술극장 운영 등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다. 한편 광주학 사업이 재단의 역할과 맞지 않다는 등의 내외부의 비판을 받은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광주학'이란 용어 대신 '광주문화자산구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광주의 과거나 역사 콘텐츠에서 벗어나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내용(강좌, 도서발간)으로 지역학의 범주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갔다.



2017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2019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정책모임

지속가능한 성장

지난 10년간 재단은 정책역량 기반을 닦으면서, 재단 역할과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시민사회와 협력네트워크를 위한 정책 소통채널을 운영해왔다. 또한 문화예술 정책담론을 촉발하기 위한 국제포럼 개최, 연구도서 발간 및 연구모임 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조례제정 및 후속 정책사업 운영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2021년 조직개편 이후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정책 사업은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 결정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 현황조사 및 연구는 부정기적이고 수행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조사결과가 현장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광주문화 현황에 대한 총체적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의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예술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재원의 조달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지역문화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차년 예술인복지실태조사, 2차년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3차년 문화다양성실태조사, 4차년 생활문화실태조사 등 지원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주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제안된 의견을 끊임없이 정책사업화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안정적 현재를 유지하는 기조로 예술지원과 위탁사업 위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일면 간편할 수 있지만, 타 지역과 차별되는 광주의 고유한 브랜드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재단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결국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흐름과 경향에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 요소를 파악·분석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재단의 이슈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적 의제를 사업화 해내는 도전이 문화재단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과제이다.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IV. 공간을 채우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공간이 되다

- 특화공간을 채우다
 - 미디어아트레지던스
 - 미디어특화공간 & 스페이스 5G네
 - 지역민을 위한 문화사랑방
- 공간을 예술로 채우다
 - 목요상설무대, 월요콘서트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문화가 있는 날
 - 우수공연 초청기획사업
 - 렉처콘서트
 - 뮤직페스티벌
 - 공연나눔

전통풍류의 산실, 전통문화관

- 무등산 자락을 전통문화예술로 채우다
 - 풍류로 채우다
 - 무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예술을 잇다
 - 무등산 문화를 전하다

도시에 문화예술을 담다

- 광주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해 도시곳곳을 누비다
- 도심 속 잠들어 있는 공간을 깨우다
 - 기억과 예술이 숨쉬는 공원으로
 -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 새로운 예술의 영토를 개척하기

광주 전역을 축제의 물결로

- 광장에 가면 축제가 있다
- 세계 최고의 거리극

IV. 공간을 채우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통문화관은
전문 기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공간으로 재탄생되었고,
공간의 변신은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로 이어졌다.

2011년 1월 광주문화재단 출범 후 공연·전시 문화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2개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빛고을 시민문화관은 2010년 2월 완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이 2011년 3월 관리 운영을 수탁 받았고, 2012년 1월부터 전통문화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광주 남구 옛 구동 체육관 자리에 505억원을 들여 2008년 11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0년 2월 22일 완공하였다. 시설은 지하2층, 지상4층의 전문 공연장을 갖추었다. 주요시설은 715석 규모 공연장과 연습실(4개소)은 각종 콘서트와 공연, 소규모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설이다. 3,4층은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주시에 부족한 공연장, 열린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에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놀이터와 5G(오지네)실증체험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빛고을 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우리나라 현대건축 1세대로 평가받고 있는 김수근의 작품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주변압반과 자연지형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2015년 일부 복원과정을 거쳐 현재 아트스페이스로 재탄생였다. 주요시설은 100석의 소공연장,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인 홀로그램극장(80석), 미디어아카이브, 미디어338,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레지던스6개소,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월 수탁 받은 전통문화관은 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와 보급 전수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힘쓰고 있다. 이 공간은 무등산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 프로그램이 매회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시설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서석당, 너덜마당, 입석당, 새인당, 무형문화재전수관, 전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관은 연중 광주의 전통문화콘텐츠를 발굴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대적 흐름에 맞춘 융복합형 프로그램들의 기획이 어우러지고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빛고을시민문화관 로비

협업의 성과는 매주 토요일상설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어 광주시민의 전통문화향유 기회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위탁시설 운영 이외에 광주시 전역에서 활력을 잃어 가는 공간에 문화예술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펼쳤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부터 인계 받은 동구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재래시장에 예술을 담고 시장 상인들의 일상에 문화의 꽃을 심는 사업이었다. 시민의 발길이 끊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예술가들이었다. 유희공간에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꾸러지고 버려진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과 전시장, 소 공연장으로 변화되면서 자투리 공간이 매일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다. 대인야시장의 즐길거리를 찾아 남녀노소가 모여들었고, 청년들의 인기 있는 핫 플레이스 장소로 자리 잡았다. 대인예술시장과 연계한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결되는 통로로서 장소성과 지형적 위치를 고려해 이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구 사직공원은 옛 광주시 동물원이 있었던 장소이고 팔각정과 수영장이 있던 광주의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동물원의 이전과 시설의 노후화로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겼고 오랫동안 방치되었었다. 2012년 남구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옛 기억과 추억을 되살리며 전문 건축가, 기획자,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어 그 명성을 잇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2014년 양림성장형 공공미술프로젝트는 현재 핫 플레이스 양림을 있게 한 단초가 된 사업이다. 양림이라는 장소를 다시 알고 재해석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근대 광주의 문화를 이끈 인물과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은 시민과 예술가들의 무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한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는 재단의 행정력, 기획력과 구청의 협업으로 이루어 낸 문화복합 시설로 그 의미가 크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폐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는 소촌공단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문화향유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에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광주 도심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 프린지 페스티벌



2019 프린지 페스티벌

빛고을시민문화관,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공간이 되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재단이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단순한 대관시설로 운영하면서 단순한 대관시설에 그치지 않고, 기획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 표는 최근 4년간 기획공연 프로그램과 추진횟수 및 참여관람객 현황이며, 빛고을시민문화관내에 있는 대공연장(715석)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100석)의 대관 및 프로그램의 현황이다.

〈표6〉 기획공연 운영 현황(빛고을시민문화관)

사업명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횟수	관람객	횟수	관람객	횟수	관람객	횟수	관람객
우수공연초청기획	4회	677명	4회	1,592명	4회	2,429명	1회	600명
공연장상주단체지원	12회	627명	10회	4,610명	18회	4,559명	13회	3,310명
월요콘서트	20회	530명	20회	1,780명	20회	2,018명	10회	824명
빛고을렉처콘서트	7회	204명	9회	665명	-	-	-	-
문화가있는날	8회	309명	9회	725명	9회	954명	4회	500명
SAC ON SCREEN 상영	8회	211명	10회	1,643명	16회	1,062명	25회	839명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지원	-	-	32회	5,412명	20회	5,345명	20회	4,646명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6회	51명	-	-	-	-	-	-
뮤직페스티벌	5회	688명	-	-	-	-	-	-

※2020년 코로나19 비대면 관람객 제외

〈표7〉 공연장 이용 현황(빛고을시민문화관)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대공연장	9,800명	59,500명	70,100명	60,500명
소공연장	4,337명	8,135명	9,951명	9,034명



2019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특화공간을 채우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2012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1층 6개 유휴공간 활성화와 지역 특화사업 기획·발굴에 따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미디어아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지역 내 예술장르 중 시각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두각을 보이며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 가는 시점이었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시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20년 9기까지 작가와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디어아트 창작 공간에 입주한 미디어아트 작가로는 이이남, 진시영, 박상화, 정운학, 권승찬 작가와 스토리텔링 분야의 인스토리(김인정, 박미현, 장상은, 정재경, 조영임, 최은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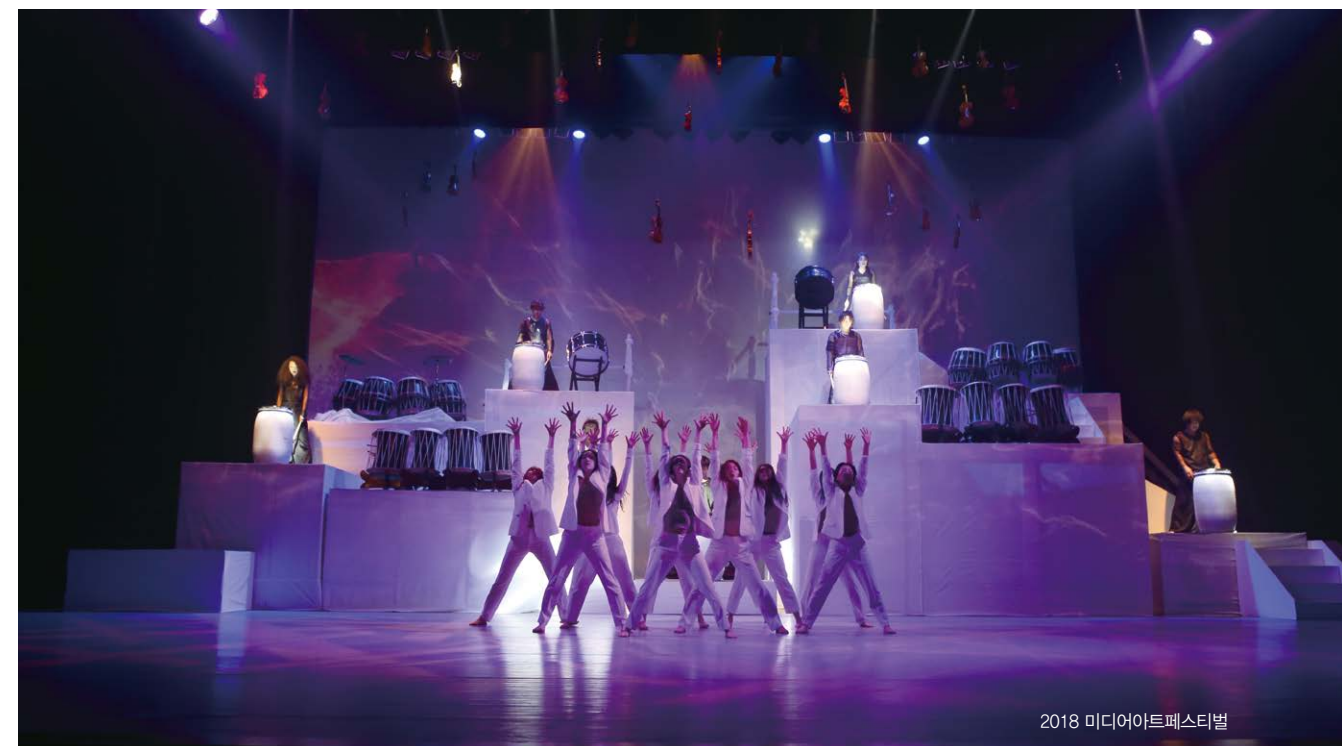
특히, 미디어아트와 스토리텔링 작가가 한 곳에 작업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연결시켜 콘텐츠화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기도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전 ‘광주미디어아트 Report-갤러리에서 갤러리를 만나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작고 빛나는 미디어 간판 드로잉전’, ‘미디어아트로 빛나는 구동의 가을밤’, 결과보고전시 ‘미디어아트+구동마을 Report 2012’ 등이 있다.

2013년 6인의 참여작가는 진시영, 설정환, 박상화, 권승찬, 정운학, 이조흠이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전 ‘빛과 어둠을 재생하다 「암전의 순간」,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4회),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은하수에 띄워 보내는 연서’, 결과보고전시 ‘미디어아트를 연주하다’ 등이었다.

2014년에는 정선희, 추민승, 김유석, 성유진, 개미필름(손승민, 이효희, 정태석, 임호성, 정광식), 이조흠이 활동하였고 타 지역 문화캠프(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상설 오픈스튜디오, 지역주민연계프로그램(미디어아트 유리벽화 만들기), 결과보고전시 ‘Light Night’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권승찬, 정선희, 김자이, 손승민, 비빔밥(박상화, 강운, 문소은), 이조흠 총 8인의 작가가 지역주민연계프로그램(공간 속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오픈스튜디오 및 시민 미디어 아카데미, 입주작가 개인전(권승찬, 손승민, 김자이, 이조흠, 비빔밥팀, 정선희), 결과보고전시 ‘구동을 밝힌 여섯개의 빛’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2015년 입주작가 개인전을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레지던스 공간과 전시장인 그 어느 해 보다 활기차게 운영되었다.

2016년 참여작가는 김자이, 미디어엑스(신도원, 핑크파마, 폴바주카), 박세희, 안유자, 이성웅, 임용현으로 젊은 작가가 대세를 이룬 해이기도 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워크숍(‘뷰직’과 함께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2016 레지던스 기획전시 ‘MMM(Media art in Mudeung Mountain)’,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페스티벌 ‘감각적



2018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현실 Sensible Reality'_서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오픈스튜디오, 시민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공간 속 미디어아트', 결과보고전시 '1층 사람들' 등 어느 해 보다 지역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7년 참여작가는 안유자, 윤일석, 문창환, 강수정, 임용현, 이성웅으로 6인의 작가가 시민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2017 기획전시 'The Bridge' 릴레이전(총 4회), 역량강화 워크숍(인터랙션 콘텐츠), 공공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I love 광주, 338Trailer), 오픈 스튜디오, 결과보고 전시 '탐험가들(Explorers)'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8년 다이엘(안유자, 변수진), 윤일석, 김혜경, 최하람, 문창환, 신창우 7인의 참여 작가들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2018 레지던스 기획전시(릴레이전) 'Hybrid Reality(혼성현실)', 역량강화 워크숍(vvvv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공공 미디어아트 작품 만들기, 결과보고전시 'Trace(흔적)' 등을 운영하였다.

2019년 임용현, 백나원, 최석영, 유지원, 김명우 총 5인의 참여 작가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아카데미 '하마터면 미디어아트를 모르고 살 뻔 했다', 2019 레지던스 기획전시 'Re Born City', 입주작가 역량강화 워크숍(로우테크),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김성호, 유원준), 공공 미디어아트 작품 프로젝트 '미디어 장롱', 결과보고 전시 'The Five Media Artists'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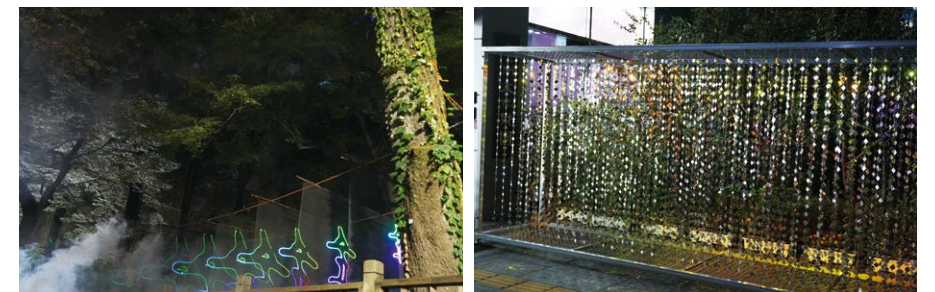
2020년에는 강수지, 김형숙, 이뿌리, 유지원, 김명우 총 5인의 참여 작가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특별기획전 'The bunker', 2020 레지던스 온라인 기획전 '충간기억', 역량강화 워크숍(키네틱아트),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조인호, 양초룡), 2020 온라인 결



2021 미디어아트레지던스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과보고전시 '셋길-오아시스' 등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비대면 전시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미디어와 아트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예술지형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양성, 지원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과 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유권을 확장해주는 주요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었다. 주요 추진 결과를 보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시민과 작가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구도심이었던 구동의 어두운 밤을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이 밝혀주는 공간 재생의 역할을 하였고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 스페이스
5G네

2014년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광주의 전략산업과 미디어아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적·창의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향유 할 수 있는 ‘휴먼 미디어아트(Human Media Art)’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단계별 전략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2016년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을 신설하고, 미디어아트를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특화공간 6개를 구축하였다. 미디어아트 특화 6개 공간은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놀이터, 홀로그램 파사드,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338, 디지털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3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을 공식 개관하고 관람객을 위한 체험 공간 운영을 하였다. 이 결과 2018년 12월 미디어아트 플랫폼 교육부지정 「교육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미디어아트의 최근 경향 및 실감콘텐츠 기술을 반영한 5G실증체험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총 7개 체험 공간이 빛고를 시민문화관과 아트스페이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8〉미디어아트 특화공간 현황

공 간 명	면 적	위 치	수용규모	콘텐츠	운 영
홀로그램극장	358㎡	아트스페이스 5층	1회80명	3개	1일6회
미디어놀이터	328㎡	빛고을문화관 1층	1회40명	7개	상설
홀로그램파사드	40㎡	빛고을문화관 옥상	무제한	10개	상설
미디어아트아카이브	92㎡	아트스페이스 2층	1회20명	상설전	상설
미디어338	186㎡	아트스페이스 2층	1회30명	기획전	기획전
스페이스5G네	225㎡	빛고을문화관 1층	1회40명	9개	상설
미디어아트레지던스	198㎡	아트스페이스 1층	6실	레지던스전	상설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7곳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먼저 전시 분야 활성화와 레지던스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 10월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미디어큐브 338’을 오픈하였다. ‘미디어 큐브338’ 전시공간은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분야의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고,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가입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이후 미디어338은 아트스페이스 2층으로 이전하여 연중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은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에 위치한 체험 및 교육 공간인 ‘홀로그램 전용관’이다. 홀로그램극장은 80석 규모로 인기 K-POP 콘서트 영상은 물론 교육용 콘텐츠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는 입체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는 ‘K-POP공원소녀’, ‘세계문명탐험대’, ‘번개맨’, ‘덕령이’ 등 6종의 콘텐츠로 취향과 연령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 극장과는 달리 양 벽면에 스크린이 설



5G 실증체험관

치돼 있고 중앙에 비치는 입체적인 홀로그램을 통해 실제와 같은 공연이 펼쳐지며 실제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웅장한 사운드도 더해진다. 특화 공간 중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공간이고 초·중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세 번째 공간인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 지역의 미디어아트 장르의 자료를 축적하고 작가와 작품을 수집·보관 정리하는 종합자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 내 ‘광주 미디어아트 연대기 전’이 상설 전시되어 있어 창의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여정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번째,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있는 ‘미디어 놀이터’는 아동 청소년의 다중지능을 자극하면서 미디어기술과 미디어아트를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놀이형 체험장이다. 미디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색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은 ‘생명의 바다’, ‘뉴판타스틱월’, ‘어썸런’, ‘판타스틱월’, ‘퍼즐 아틀리에’, ‘미디어 징검다리’ 등 7종이 운영 중이다.

다섯, 여섯 번째 공간은 미디어 놀이터 옆 1층 로비를 5G실증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하면서 디지털 갤러리를 포함해 함께 운영 중이다. ‘디지털 갤러리’는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가노트와 영상작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홍보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디어 아카이브실에 있는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콘텐츠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일곱 번째 공간으로 실증체험관은 SK텔레콤의 5G기반 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에 포함된 콘텐츠는



미디어아트 홀로그램극장

‘반짝반짝 유미씨’, ‘앉아보는 미술관’, ‘내가그린 거북이’, ‘네모네모 체험관’, ‘게임으로 만나요’이다.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들은 미디어아트의 최근 동향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아트 체험 기회 확대와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특화갤러리



2015 작은도서관 전통자문화 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문화사랑방



광주문화재단은 남구청과 협력하여 2015년 3월에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인 광주 남구의 10번째 작은도서관으로서 남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찾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개관 첫 해부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600여 권의 신규도서 뿐만 아니라 매달 30여 종의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비치하여 점차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책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특성화’ 작은도서관이라는 취지에 맞춰 문화예술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부터 전문서적까지 폭넓게 비치해 시민들로 하여금 예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년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0년 12월까지 43개의 독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6,353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광주의 전략산업과 미디어아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요상설무대

공간을 예술로 채우다

목요상설무대,
월요콘서트

목요상설무대는 창작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함께 발표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시민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예술가와 시민이 상호 공감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2년차부터는 창작과 공연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단체와 개인 20팀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상설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판소리를 비롯해 무용, 성악, 실내악, 재즈, 뮤지컬 갈라 등 관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해 관객들로부터 “작은 무대지만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는 호평을 이끌어 냈다. 관객이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46석 소극장의 장점 덕분에 고정 관객이 꾸준히 늘어 매 공연마다 보조 좌석을 들여놓을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고정 관객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매회 공연마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2013년도에는 리모텔링을 통해 46석이던 객석을 100석으로 증설하였다.

2014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2,000만원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목요상설 무대를 ‘월요콘서트’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말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총 167회의 공연을 통해 기회가 적었던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공연활동의 기회를, 17,592명 시민들에게는 공연예술의 진수를 체험 할 수 있게 하였다.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그린발레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빛고을시민문화관은 2012년부터 공연장 가동율 제고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2개 ~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상주공간, 연습실, 공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참여는 단체의 우수 레퍼토리를 유지하고, 공연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확보해 공연장 가동율을 높이고 있다.

상주단체는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통해 우수작품 창작과 발표기회를 확대해 나갔고, 이러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2018년에는 푸른연극마을 ‘다산 다정도 하도할샤’가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수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 문화가 있는 날(꼬라지밴드 공연)



2019 우수공연초청사업(타펠무지크)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 문화 확산과 문화 융성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했다. 재단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의 성공적 정착과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장,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을 활용해 '시민극장'을 운영하였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누리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점심 식사 후 즐길 수 있는 '런치콘서트'와 퇴근 후 문화를 누리는 '소공연장 콘서트'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공연관람과 폭 넓은 관객 유치를 위해 2018년부터는 재즈 음악과 월드 뮤직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회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활동을 제공하고 5,337명의 시민이 관람하였다.



우수공연 초청기획 사업

우수공연 초청기획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국민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2017년부터 자체 공모기획 역량강화, 지역공연예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다. 1차년도에 기획한 공연은 동양적 아방가르드 무용의 선구자로 불리며 세계 18인의 무용가로 선정된 홍신자 선생의 '홍신자의 소리와 춤-아라리요' 초청 공연되어 전석 매진되었다. 2018년부터는 국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을 매년 4회씩 초청 기획해 지역 간 문화적 격차 해소와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회 공연에 5,298명이 관람하였다.





2019 렉처콘서트

렉처콘서트

2019년부터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을 활용하여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신규 사업으로 기획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함께 예술적 감수성 함양에 노력하였다. 특히 토론, 음악 공연 등을 결합하여 관객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의 경우 예술인과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 녹화하고 행사 당일에 온라인 상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20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개관 10주년,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었던 만큼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인 홍신자 선생을 초청해 '자유를 찾아 인생 순례의 길에서'의 명상적 작품을 토크 콘서트로 진행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제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대상팀인 노래모임 '한줌의소리'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 '노래의 힘과 오월의 기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렉처콘서트는 16회 진행되었으며 1,846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관람하였다.



2021 뮤직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은 동시대성을 갖는 시계의 다양한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브랜드 공연 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준비하는 여름 축제이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신나고 흥겨운 라틴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특히 5일간 진행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살사, 플라멩코, 탱고, 라틴재즈, 레게 등 다양한 라틴 음악과 렉처가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공연 축제를 선보였고, 지역의 뮤지션들과도 콜라보를 추진하였다. 향후 공연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음악 등의 여행으로 매년 테마를 정해 한여름 밤의 음악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2021 현대 춤 차세대 안무가전

빛고을시민
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2020년부터 매년 광주지역 청년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창작과 공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 무료 대관, 공연시설, 인력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광주지역 실력있는 6개의 청년 예술 단체가 공연장 나눔 행사에 참여하였고 온·오프라인으로 2,039명의 시민이 관람하였다.



전통풍류의 산실, 전통문화관

무등산 자락을 전통문화예술로 채우다

무등산 자락 아래 전통문화관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 2012년 출발했다. 부지 6,471㎡, 연면적 2,618㎡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의 실내외 공연장과 다목적 체험실, 무형문화재 전수실, 남도의례음식체험실, 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전신인 호남은행을 설립한 故 현준호가 지은 옛 한옥건물 무송원은 현재 공연, 강좌, 체험 등의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12인이 입주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펼치며 기능보유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전시관이 지상 1층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전통문화관은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조직 개편에 따라 편제가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2012년 전통문화관으로 시작, 2016년 광주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운영팀과 무등사업팀으로 세분하여 무등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의 폭을 넓혔다. 2021년 조직 재개편에 따라 전통문화팀으로 편제되어 전통문화부터 무등산의 문화까지 아우르고 있다.

주말동안 시민들과 만나는 토요일상설공연과 일요일상설공연,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하는 전통문화예술강좌, 내외국인 관광객과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인 풍류노리 등 일상적으로 전통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전통문화관을 꽉 채우고 있다. 10월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예술축제인 무등울림, 무등산 자락 자미단을 사이에 둔 광주와 담양 인접 지역의 누정가사문화권을 활성화한 풍류남도나들이, 무등산권 문화예술 인물사 및 지역의 인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별기획프로그램이 시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풍류로 채우다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을 찾는 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예술공연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했다. 2012년 3월3일 첫 공연을 이후로 매년 40여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표9〉 토요상설, 일요상설공연 현황(2012~2020)

년도	토요상설공연	일요상설공연(무등풍류 년)	비고
2012	44회	—	매달 주제에 맞춰 공연 단체 선정
2013	75회	23회	토요:명인무대 / 일요:함께하는 무대
2014	38회	25회	토요:공모+기획
2015	47회	—	토요:공모+기획
2016	47회	24회	토요:공모+기획 / 일요:야외공연+나들장터
2017	46회	18회	토요:공모+기획 / 일요:야외공연+나들장터
2018	41회	31회	토요:공모+기획 / 일요:전통예술+문화체험
2019	38회	31회	토요:공모+기획 / 일요:월별 주제형 공연
2020	35회	13회	무등풍류 년 : 융복합 프로그램

2012년은 전통문화관과 국악협회가 함께한 공연으로 채워졌으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지역 명인, 예술단체, 신진예술인 등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로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무진주의 춘가, 문화제가 만드는 음식, 행다레시연회, 전통연회공연 등 전통문화관을 소개하는 행사구성의 개관특별 공연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모객확보를 위한 공연장비상주단체공연, 그리고 매월 주제가 있는 상설공연 등 총 44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2013년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전통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가·무·악 특별공연, 전통문화관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설맞이 민속놀이체험으로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희무대의 일요공연상설으로 공연 향유층을 넓혔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상여소리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제51호 줄타기 예능보유자 김태균의 줄타기 등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로써 관의 재미를 이끌었다.

2015년은 공연자(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타 지역이나 신진 예술인들에게 폭넓은 공연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문국악인 사회자의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을 도입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1인 창극, 전문 국악인들과 신인 국악인들의 함께 꾸민 송년 갈라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매회 사회자의 해설이 있는 친절한 공연은 2016년에도 이어졌으며, 일요일에는 솟을대문 앞 야외공연과 나들장터로 시민들과 더욱 밀착하여 무등산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7년은 클래식, 국악가요, 퓨전국악 등 전통과 어우러진 퓨전공연으로 열린창작무대를 마련했고, 경쾌하고 신명나는 야외버스킹 공연으로 꾸민 일요공연과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전통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무등산권 관광명소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8년은 임방울국악제 수상 청소년 국악인 초청공연 및 광복 73돌 북녘소리 초청공연과 정도 1000년 기념 등 풍성한 기획공연을 선보였다. 일요일에는 절기를 주제로 한 전통예술 +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다. 무형문화재 무대 + 세시풍속 체험, 연희마당 + 세시풍속 체험, 그림이 있는 전통문화관 + 공예체험, 신인풍류무대 + 악기체험 등 보고-만지고-느낄 수



있는 전통예술 +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호응을 얻었다.

2019년은 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가 연합한 무형문화재 합(합)공연과 인문학자가 함께 하는 국악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일요일에는 판소리, 굿, 연희, 창작국악, 무용, 산조 등 월별 주제형 전통예술 공연을 추진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토요상설공연도 SN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등 당초 대면에서 대면·비대면 병행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을 팬데믹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일요공연은 무등풍류 던으로 행사명을 변경, 절기를 주제로 한 무형문화재 중심의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문화전승과 전용의 실체를 체험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전통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주말상설공연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인 및 단체, 신진예술인에게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발표기회를 제공하였고, 시민들이 전통문화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통 공연의 길을 넓혀왔다. 관객 다변화를 위해 계층별 기호에 맞는 레퍼토리 보강이 필요하며, 무형문화재 추모제와 성년례 등 지역 문화유산을 지역민에게 전하는 재현행사의 지속과 여러 장르의 체계적인 구성 등 대중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공연 기획력이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관 7주년 기념공연



무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예술을 잇다

전통문화예술 강좌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정통성과 유익함을 생활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전통문화관에 입주한 무형문화재들이 직접 가르치는 국악실기와 공예, 음식을 비롯한 전문예술인들의 특화된 교육내용, 강좌 종강에 맞춘 수료생 발표회 등 수강생들의 눈 높이에 맞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일반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강좌와 여름·겨울 특별강좌로 구분하였다. 일반인 대상은 국악실기(판소리, 가야금병창, 판소리교법)과 전통음식, 전통공예(탱화, 민화) 등 학기마다 12강좌 정도 개설 운영되고, 청소년 대상은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등 국악실기가 주를 이룬다.

〈표10〉 전통문화예술체험 현황(2012~2020)

년도	횟수	내용
2012	18회	말레이시아 언론인, 부산문화재단,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
2013	32회	일본 오이타현 문화재단, Ace Fair 참가자, 캐나다 대사 등
2014	50회	광주컨벤션뷰로, 각 대학 대외협력과, U대회 사무국 등
2015	69회	하계 U대회 연계 외국인 대상 팸투어, 지역 문화부 기자단 등
2016	48회	방문객과 무등산 등반객 대상 주말 전통놀이체험, 재외동포 등
2017	44회	광주국제교류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등
2018	46회	인애빌, 형제익집, 무등육아원(기업과 협력한 사회공헌활동) 등
2019	53회	조각보 설치 전시 및 인애빌, 형제익집(기업과 협력한 사회공헌활동) 등
2020	45회	코로나 극복 전시, 유니크베뉴 중화권 대상, 코로나 봉사자, 지역아동센터 등

개설한 국악실기강좌는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춰 그룹별로 진행하고, 음식강좌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중장년남성 대상 전통음식강좌는 광주오미, 생일상 차리기 등 주제를 정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전통음식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레시피와 차별화를 두었다. 2015년에는 수료생들이 강좌 종료 후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맛있는 요리로 재능기부 함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강좌 수강생의 수련도 및 기호에 따라 반을 구분하여 수강생 맞춤형 강좌로 운영하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좌 내용을 다양화하였다.

전통문화예술강좌의 백미는 수강생 발표·전시회이다. 6월과 12월 개최된 발표·전시회에서 수강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감동을 함께 나눴고 무대매너도 학습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좌 수강생들은 분반하고,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같이 비대면 방식에 사용된 무형문화재 교육영상은 차후 보유자 자료보존 및 콘텐츠 구축의 근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통문화예술강좌는 기·예능 무형문화재의 강사진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보급으로 시민들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이으며, 생활화하여 전통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7 전통문화예술강좌



2019 국가무형문화재 송순섭 초청공연

무등산 문화를 전하다

전통문화관은 일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정고객층 이외 새로운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무등올림축제를 개최했다. 인근 미술관, 문화공간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축제, 지역의 참신한 문화예술 기획프로그램 유치,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기획 전시 등 무등산을 근간한 전통문화 융복합 예술행사들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윤림동 지역주민과 상가, 유관기관, 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이 참여해 무등올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 달 동안 축제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축제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8년과 19년에는 주민 참여 문화행사를 구성하여 공연자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무는 행사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정착시켰고, 윤림동 일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축제공간 확대, 무등산 일대 문화 공간을 스토리텔링 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공연과 소규모 대면 전시 위주의 온·오프라인 축제로 진행하였다.

지역 유산을 보존·전승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운영하였다. 광주광역시 남도의례음식장과 시민이 함께 전통음식을 발굴·보존하고 된장담그기, 고추장담그기, 김장담그기 등을 체험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인문학적 요소에 국악공연을 가미한 '우리소리 도올 인문학'의 향연 프로그램과 고추장 담그기, 보자기 싸기에 참여하여 무등산의 전통문화로 오감만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지역의 인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무등산권 문화예술 인물사를 탐구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무등산권 근

현대 인물을 조망한 무등 근대 3인 선각자의 삶과 사회공헌활동 관련 심포지엄 및 전시, 2020년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를 주제로 한 세미나, 아카이브 전시, 자료집 발간 등이다.

전통문화관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광콘텐츠 특화사업인 풍류남도나들이가 진행됐다. 광주MBC와 함께한 풍류달빛공연과 영산강 자락의 누정과 근대이후 누정 10곳을 대상으로 한 누정총서 발간, 무등산권 지질문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등산의 바위전' 등 다양한 결과물들이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처럼 전통문화관은 지난 10년 동안 예술인과 전통공연의 길을 넓혔고, 무형문화재와 전통을 전하면서 생활 속 전통문화예술이 될 수 있게 했다. 무등산 문화가 담긴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지역 문화 자산 구축에 이바지하고, 무등산권 자연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힘썼다. 다가올 10년도 전통문화관은 지역 전통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2019 전통문화관 음식강좌



2019 무등울림

도시엔 문화예술을 담다



2020 광주포럼페스티벌

재단의 10년은 광주 곳곳을 변화시켰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도시경관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실제로도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광주라는 도시 전역에 문화예술을 담아내고자 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의 그릇 속에 우리의 현실을 담아낸다.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제시하며 우리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이처럼 예술은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도시를 위해 재단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문화예술이 생활이 되고,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숨쉬는 광주를 위해 노력하였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광주 곳곳을 누볐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소촌 아트 팩토리 프로젝트,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사업(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사업)등을 통해 도심 속 잠들어있는 공간을 깨웠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과 축제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7 문화관광탐험대

광주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해 도시곳곳을 누비다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 갈 재단이라는 그릇이 갖춰졌고, 그릇에 내용물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했다. 광주는 그 특성상 큼직하게 눈에 보이는 요소보다 오밀조밀하게 숨어있는 문화자원들이 많다. 그러한 자원들을 발굴해 내고 시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화적 속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광주 시민들이다. 재단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시민들의 내발적인 동력을 ‘문화관광탐험대’라는 이름으로 풀어냈다.

문화관광탐험대는 병원 직원, 마을운동가, 대학생, 예술가, 사진작가, 주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탐험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 주 광주 구석구석을 발품을 팔며 생활 속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탐험하고 새롭게 일궈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광주견문록’이다.

현재 광주견문록은 6권까지 발간됐다. 이 책에 소개된 문화공간이나 장소들, 축제나 음식점들은 광주라는 문화관광명소가 지닌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광주 시민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해낸 문화명소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내재된 자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것이다. 이 책을 들고 도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또 다른 ‘문화관광탐험대원’이 될 것이다.



2020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도심 속 잠들어있는 공간을 깨우다

공공예술은 과정의 미학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공공예술은 도시를 재생하고 지속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문화적인 방법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가장 비문화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공예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예술이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 새로운 공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충돌속에서 비로소 공공성을 생성하게 된다. 한 장소(공간)를 놓고 주민, 수십개의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마땅한 연결고리도 없다. 따지고 보면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에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충돌’ 또한 아름다운 과정이다. 재단은 이 충돌을 무릅쓰고 ‘공공예술’을 통해 광주 곳곳의 숨은 공간을 깨우고자 했다.



사직 공공예술프로젝트

기억과 예술이 숨쉬는 공원으로

사직공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

첫 번째는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다. 광주 사직공원은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그 곳을 광주의 제2호 공원으로 삼았다(제1호 공원은 광주공원이자). 일반인이 범접하기 힘들었던 신비한 장소의 품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다. 그 후 60년대 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이 헐렸으나 1991년 동물원이 우치공원으로 옮겨지고 사직단은 복원된다. 도심에 마땅한 놀이 시설이 없던 시절, 사직공원은 동물원, 수영장 등으로 인해 광주 시민들에게는 소풍과 여가의 장소로, 인근 군 단위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사직공원은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지만 어느샌가 어두운 느낌으로 퇴색해버린 공간이 됐다.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는 기억조차 사라지고 있는 사직공원의 숨은 공간들을 예술로 재생시키고, 새로운 공원풍경 (Parkscape)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띄는 작품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인 만큼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했다. 개별 작가가 각각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한 공간에 다섯명의 작가가 유기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설계안을 도출했고, 수시로 현지 답사를 통해 골격을 잡았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기관, 단체만도 수십곳에 이르렀다. 광주시 내에서도 6~7개의 부서가 얹혀있었고 남구청, 양림파출소, 한국전력공사, 주민자치위원회, 배드민턴동호회 등과도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 당시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선 생소하기만 한 작업이었고, 관련법 및 행정절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다. 부딪혔던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구도 '그게 맞다'고 확언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사직공원의 식생분포, 시설물, 돌덩이 하나하나까지 조사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행의 과정은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드디어 다섯가지 공원풍경 '스텝', '기슭', '사직공원빈집', '흔적', '흐르는 풍경'이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자라나는 나무들을 배려한 스텝, 드러나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자꾸자꾸 걷고 싶은 길을 만든 기슭, 잔디와 어우러져 존재감을 뽐내는 사직공원 빈집, 자연을 비추어내며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흔적, 마지막으로 단절돼있던 운동장에 시원한 그늘막과 쉼터를 조성한 흐르는 풍경까지. 이 5개의 결과물들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장소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자연-예술-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양림산 자락에 터를 잡아 선교활동을 시작, 서양 근대 문물을 유입시키며 광주의 개화를 촉진시켰고 지금도 그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 유산뿐만이 아닌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 전통 유산도 잘 보존돼 있다. '정율성', '김현승' 등 여러 예술가들을 배출해 낸 동네기도 하다. 2009년 부터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규모 지원이 있어왔고, 현재는 명실상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동네가 됐다.

재단은 이러한 양림동의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커뮤니티 성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모든 기획과 제작·관리를 주민 주도형으로 유도하고 작가는 멘토와 관리 수준에서 협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참여·개입으로서의 공공미술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일상의 경험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렇듯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공공미술'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이었다.

양림프로젝트는 열린 소통과 실험적 활동이 용이한 Lab 형태로 추진됐다. Lab은 양림동의 서사와 이야기를 주민들이 만드는 '양림스토리 Lab', 작품 기획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주민 디렉터 Lab', 주민들이 직접 예술품 제작의 생산기지로 활용한 '도글도글 공작소 Lab'으로 이뤄졌다. 각 Lab은 독자적으로 운영됐지만, 워크숍을 통해 결과물을 공동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이러한 Lab들을 컨설팅하는 친구멘토단을 운영했다.

‘주민 디렉터 Lab’에서는 공공미술 아이디어 5건을 도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작가들과 함께 5개의 작품을 설치했다. ‘양림스토리 Lab’의 양림스토리탐험대는 4개월간 발품을 팔아 양림동의 숨은 이야기들을 발굴했고 ‘양림을 걷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양림동의 가옥을 리모델링한 ‘도글도글 공작소 Lab’에서는 물감냄새, 흙냄새, 사람냄새가 물씬 풍겼다. 자비를 들여 공공미술을 공부하겠다는 주민들 20여명이 회원이 됐고 주말이면 공방을 돌면서 자신들이 만든 아트상품(양림동의 건물과 역사를 소재고 한)을 마켓에 내놓고 주민에게 싼 값에 판매했다. 이들이 조직화되고, 공방이 확장돼가고, 양림동에 대한 애정이 퍼져나가면서 미술로의 공공미술을 뛰어넘어 일상의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프로젝트가 당시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지역문화융성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주민디렉터 양성 워크숍



2016 소촌아트팩토리 개관식

새로운 예술의 영토를 개척하기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산업단지에서 ‘예술의 새로운 영토’를 조성하는 도심(문화)재생 사업으로, 2014~2015년 2년간 진행됐다. 소촌농공단지는 1988년에 준공됐고 규모는 33만평, 사업 추진 당시 68개 입주업체에 1,59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가 50%를 차지했다. 따라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술을 통해 노동의 피로를 달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된다면 산업단지에 활력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인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오래된 건물로써 바닥 균열·누수 등 각종 결함이 발생한 상태였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쿤스트할레’를 이곳으로 옮겨와 아시아문화마루란 장소성을 이어받는 동시에 건물 외관의 디자인적 요소와 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20개를 무상임대 받았다.

이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했다. 공단 근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공단 근로자에게 문화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촌 라디오, 미디어아트 가상공간



레지던스, 근로자를 위한 기타교실 등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소촌아트팩토리는 공단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공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갔다.

소촌아트팩토리의 운영과 관리는 건물 소유주인 광산구로 이관됐지만 꿈을 만드는 예술 공장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예술가들에게 창작 욕구를 증진하고, 공단 근로자에게 힐링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 넣는 감성의 쉼터가 되고 있다.

광주 전역을 문화의 물결로...

일반적으로 예술은 공동체와 공간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듯이 특정 예술 행위로 인해 죽어있는 공간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축제는 더욱 그렇다. 축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제사’, 즉 일종의 의식을 뜻하지만, 현재는 일반 문화예술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넓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축제의 본질은 ‘일상에서의 일탈’이다. 일탈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보다 충실하고 윤택하게 한다. 결국 축제는 지역 구성원, 즉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9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020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장에 가면 축제가 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광주 시민들에게는 거리가 익숙하다. 거리로 모이고 거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익숙하다. 공동체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거리로 모였다. 5월의 어느 봄 날.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모였고, 현재는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모여든다. 그 거리는

바로 금남로이고 금남로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말 지역민들의 큰 관심속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으나, 구도심이 되어버린 문화전당 일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광주시와 문화전당은 관객들을 문화전당으로 유입시킬만한 색다른 이벤트를 필요로 했다. 전당 주변과 5.18민주광장을 문화예술이 넘쳐나고 관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공간적 변화가 필요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많은 논의 끝에 2016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시작됐다.

프린지는 5·18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구 도청, 분수대,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집약되어 있는 광장 문화를 활성화 하고 문화전당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매 주 토요일마다 민주광장, 금남로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진행됐고 이는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상설 축제였다.

2017년부터는 재단이 직접 프린지를 주관하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매 주 토요

일 광장에 가면 축제를 볼 수 있더라”라는 입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광주시민들은 낮설기만 했던 거리공연에 점차 적응해갔다. 공연을 보고 돈을 지불할 줄 아는 관객들이 늘어났으며 작가는 관객과 함께 어울려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익혀갔다. 실제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프린지를 찾는 관객들은 더욱 많아졌고 매 주 토요일 문화전당 주변은 프린지를 찾는 관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객수는 보장이 되니 프린지와 연계해서 행사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아진것도 이때쯤이다. 그렇게 5.18민주광장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광주 프린지는 5·18민주광장뿐만 점차 광주전역으로 공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2018년 구시청 사거리, 양림동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찾아가는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수완지구, 첨단지구, 상무지구까지 공간적 범위를 넓혔다. 바로 집 앞에서 찾아가는 프린지를 접한 시민들이 메인 행사를 구경하러 금남로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2020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는 역시나 프린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대면’과 ‘현장감’을 본질로 한 축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고 전국의 수 많은 축제들이 취소됐다. 그러나 프린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축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수 많은 고민 끝에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가을에는 오랜만에 광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행사를 구경하는 관객들은 여느때보다 즐거워보였고 예술가들의 열정 또한 여느 해보다 뜨거웠던 것 같다.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게 광장은 뜨거웠다. 비가 오던 행사 날 아침, “어제 공연 너무 좋았고, 비가 오는데 직원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다”는 한 시민분의 전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쩡하다.

올 해 프린지는 5·18민주광장을 포함, 광주 곳곳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 6년째를 맞이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그 동안 문화전당 일대와 5·18민주광장을 활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20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2019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세계 최고의 거리극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

거리는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거리는 대중의 공간이며 비관습적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인 것이다.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다. 또한, 단순히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거리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처럼, 거리예술은 공공의 예술이고 비관습적 예술이며 일상의 공간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2017년, 광주에서도 전문 거리예술축제가 시작됐다.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 그것이다. ‘프린지’라는 단어 반복으로 인해 얼핏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부속 행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둘은 철저히 별개의 축제이다. 광주프린지가 매 주 토요일 진행되는 상설적인 행사 성격이라면,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전문적인 거리예술축제를 지향했다. 타 지역에도 거리예술축제들이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고, 더군다나 거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주라면 당연히 거리예술축제는 있어야 했다.

프린지 인터내셔널은 대담하게도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고 그것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국내·외 거리극에 찬사를 보냈고, 예술가들은 시민의 찬사에 답했다. 파랗게 분장을 한 기이한 모습의 배우들이 금남로를 점령했고 거리의 악단이 공중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소외, 경쟁, 불안, 장애’ 등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다.

매 해 가을에 진행됐던 이 축제는 시민들의 일상공간을 거대한 무대로 만들었고,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예술이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시민들에게는 먼 나라 같던 아시아문화전당 역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편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되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건강한 일상을 위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라는 축제는 사라졌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다시 금남로에서 전 세계의 거리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2018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V. 시민과 동행하다

문화예술로 채우다

-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인 · 예술단체와의 동행과 성장>
- 토요상설지원 <시작하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무대>
- 미디어아트레지던스 <낮선 길 함께 걸으며 찾은 새로운 길>

생활속으로 들어가다

- 무지개다리사업 <고려FM>
- 정음성사업 <광주성악콩쿠르>
- 통합문화체육관광광이용권

삶을 바꾸다

- 삶 · 예술 · 교육을 융합하는 '실험형 예술학교' <창의예술학교>
- 당신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요 <경자씨와 재봉틀>
- 문화예술로 삶이 바뀌는 경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열정적인 참여자에서 창의적인 기획자로 <대학생 기자단>

V. 시민과 동행하다

이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형태가
소극적 관람에서 직접적 참여형태로 변화되면서
시민이 단순한 문화향유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창작자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에서 향유자 중심의 정책으로 기본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문화 발전에 있어서 주체가 문화 창조의 담당자인 예술인에서 문화의 수용자, 향유자인 국민, 시민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형태가 소극적 관람에서 직접적 참여형태로 변화되면서 시민이 단순한 문화향유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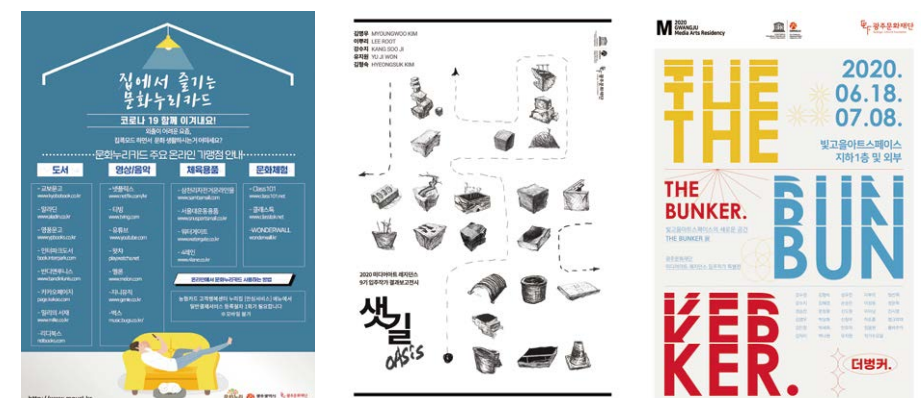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동행은 수많은 사업들을 통해 시민과 예술 현장에서 문화향유를 확산하며 예술가와 단체들을 성장시켜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에 창단한 <비상무용단>은 지난 2019년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두 해 정도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단체가 공연장 상주단체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역량축적에 이은 결과이다. 올해 10년차 퓨전국악 단체로 성장한 <프로젝트 앙상블 '련'>은 2012년 학부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출발해 전통문화관 토요상설 공연과 첫 인연이 되었고, 재단 지원 사업을 디딤돌로 정기연주회도 꾸준히 개최하면서 이제 10년차 중견 퓨전국악 단체로 성장했다.

재단의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사업이다. 신진 작가들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미디어아트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창작소인 셈이다. 그동안 미디어아트 작가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작업들을 해왔으나 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업의 중요성을 익히고 있으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레지던스 기간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빅풋(Bigfoot)'이다. 설치, 영상, 음악, 프로그래밍 등에 전문성을 갖는 작가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영역 간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지역에서 미디어아트 협업작업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정율성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에서 시작한 광주성악콩쿠르는 올해 14회제를 맞이했다.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실력 있는 차세대 성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광주성악콩쿠르는 국내 최고의 신진 성악인 등용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 젊은 성악가들이 선망하는 콩쿠르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의미 있는 성과는 콩쿠르에서 수상했던 많은 성악가들이 국내외 최정상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성악가는 지난 2015년에 우승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다. 그는 광주성악콩쿠르 우승 이후 계속 도전을 이어가 2016년 프랑스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에 이어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파리 국립극장 등에서 초청받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기회가 더 많이 이어졌다. 최근에 팸텀싱어, 복면가왕 등의 예능프로그램도 출연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통합문화체육이용권 사업은 문화재단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에게 포괄적인 문화향유 지원을 해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증가해 현재는 개인별 10만원씩 지원을 통해 6만8천여명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향유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고려인 마을의 '고려 FM' 또한 지역공동체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동반성장 시키는 촉매제가 된 프로젝트이다. 처음에는 한 달간 주파수를 임대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후에는 어플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지난 7월 말, '고려 FM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를 받아 '93.5 MHz GBS 고려방송'으로 개국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려 FM방송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방송해왔으나 내년 3월에는 청소년·청년 이야기, 음악, 고려인·이주민 뉴스 등 12개 프로그램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행해 24시간 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인·예술단체와의 동행과 성장

박종임 비상무용단 단장



1. 비상무용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007년에 창단한 현대무용단체인 비상무용단은 현대무용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단체로 문화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공헌 교육으로 지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인 공연은 물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무용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인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18, 2019년에는 광산구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출하여 수완지구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은 2016년에 삼곡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으로 2020년, 2021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사업 이외에도 2016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3. 지역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 축소 등 갈수록 공연 여건이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무용단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예술관련 학과 축소가 지방만 그런게 아니라 수도권도 예술학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문화예술계는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공연 준비 과정, 공연 당일까지 생기는 다양한 변수 등으로 무용단 운영은 물론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잘 따라라준 단원들과 같이 작업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이기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4.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019년에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수상작 '펜로즈의 시계'는 12개 숫자로 이뤄진 영역이자 뚝배기처럼 틈을 내주지 않는 시계를 통해 꿈과 현실, 욕망과 이상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20여 명의 단원들이 이 작품을 준비하느라 4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 대통령상은 단원들과 제작진들로 인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는 전국무용제에서 수차례 대상을 차지하는 등 무용이 강한 도시입니다. 무용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광주시, 광주무용협회에도 정말 감사했죠.

5. 비상무용단이 설계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실력있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며 광주 무용계에서 더 나아가 우리지역 문화예술계가 더 많이 발전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상설 지원

시작하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무대

류세운 프로젝트 앙상블 런 대표

1. 프로젝트 앙상블 런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2012년 당시 전남대학교 국악과, 음악과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해수로 10년 쯤 활동했던 단원들이 유지하고 있는 크로스 오버 뮤직 팀입니다. 아쟁 유세운, 대금 임희철, 퍼커션 박상민, 타악 임지영, 소리 이미소, 진반 홍은혜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2. 프로젝트 앙상블 런의 성장과정에 광주문화재단과의 인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토요상설이 처음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토요상설을 꼭 했었고, 전통 문화관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육성 지원사업을 받아 2회, 3회, 4회 정기 연주회를 진행하였고, 단원들도 문화재단의 육성 지원 사업을 받아 독주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창작물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성장함에 있어 광주 문화재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프로젝트 앙상블 런이 다른 퓨전국악 단체들과 차별되는 장점과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별화까지는 아니지만, 순수 창작음악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점입니다.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팀은 광주, 전남에서 15회 동안 저희 팀이 유일합니다. 새로운 창작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국악의 세계음악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 대표님의 기억이 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연이나 작업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수상을 한 점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2020년에 국립국악원 국악 프로젝트, 국악콘서트 다담, 민속국악원에서 진행한 토요상설등도 기억에 남고, 올해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FNL'이라는 공연을 반석 아트홀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그 공연이 뜻깊었던 점은 화성시문화재단과 반석아트홀에서 초청해서 하는 공연 팀들 중에 국악팀이 최초였고 그게 저희팀 이라는 점입니다. 그간 서양음악팀들이 주를 이루었던 공연장에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이 가슴에 남습니다.

5. 프로젝트 앙상블 런이 꿈꾸는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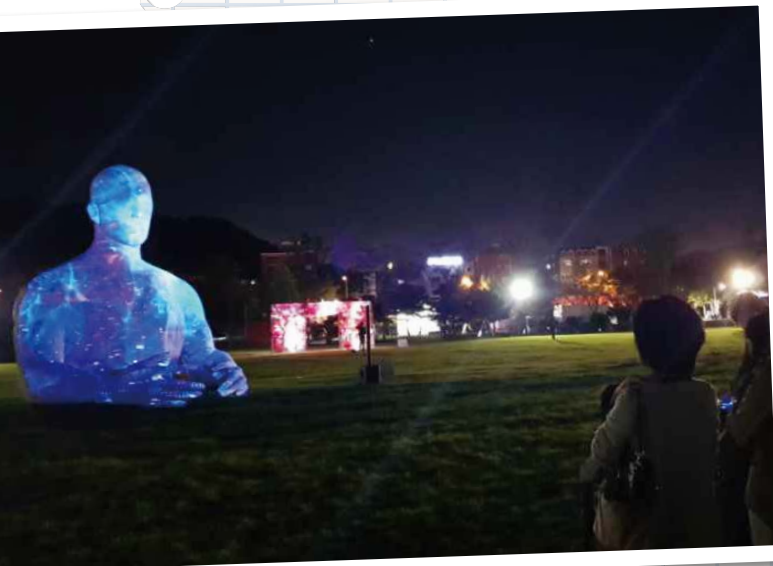
10년 후면 저희 평균 연령이 42정도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중년의 나이에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활동하겠지요. 그때까지도 앙상블 런은 계속 창작 활동을 하고 있을거예요. 그 때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과 성숙된 음악이겠지요. 정말 저희의 음악 이야기가 계속 잘 이어지면, 광주문화재단과 상생하며 광주 지역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미디어아트레지던스

낯선 길 함께 걸으며 찾은 새로운 길

이성웅 미디어아트레지던스 2015~2017 입주작가/프로젝트 그룹 빅풋



1.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작업에 연장선상이라고나 할까요? 설치작업이 주였던 작업에서 미디어를 접목시켜 작품의 방향을 좀 더 대중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미디어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의도로 레지던스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에 비해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 어떡하지 했는데 같이 들어 왔던 풀바주카, 임용현 작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작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었지요. 이게 레지던스에 들어가는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2. 레지던스 기간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빅풋의 결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레지던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건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빅풋 같이 작가와 작가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홀로그램상영관 덕에 홀로그램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3. 프로젝트 그룹 빅풋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빅풋은 개인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커피이라는 카페에서 전시를 하는데 각자의 작품으로 설치하고 오픈ing 공연을 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설치해 공연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시를 했더니 작가분들이 좋다고 해서 작품을 설치하고 그 작품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잘 끝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임용현 작가가 자기 영상을 맵핑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자 옆에 있던 풀바주카가 그러면 자신이 음악을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의 빅풋이 되었어요. 지금 활동은 많지 않지만 코로나 전에는 다수의 공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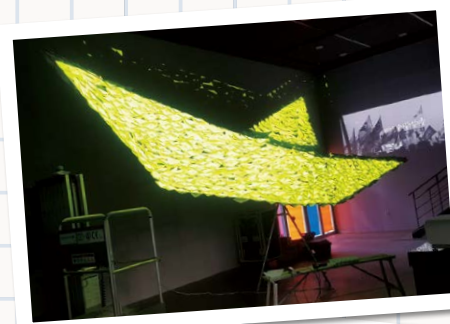
시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어요. 여러장소와 형식에서 공연과 전시를 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무등보육원에서 공연했을 때인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초롱초롱하던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저희 빅풋은 미디어아트를 쉽고 접근하기 편한 장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계속 활동하려 합니다.

4. 멤버들의 현황, 현재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솔마다 톡, 페이스북하는 풀바주카는 휴가와 공연 감독을 겸하고 있고, 임용현 작가는 개인 작품에 더 집중하며 팀을 꾸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차기 작품을 위해 잠시 쉬며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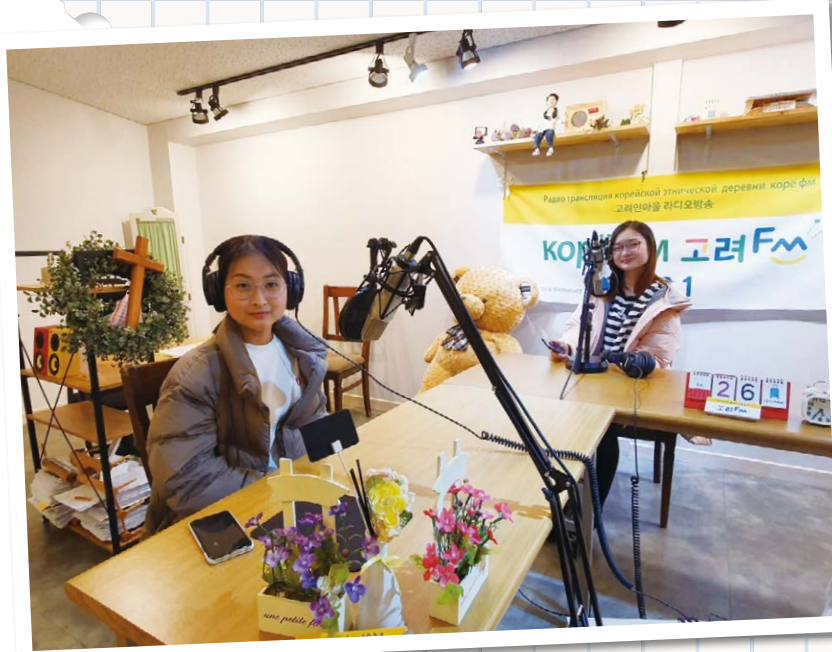
5. 새로운 미디어아트의 시도를 보여준 빅풋,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미디어아트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덜어 주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갈 생각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 진행하는 ‘빅풋’,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지개다리사업 생활 속으로 들어가다

이민을 고려 FM PD



1. 본인 소개

저는 이민입니다. 고려 FM 방송의 엔지니어, PD, 작가, 통역 등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는 통괄 관리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려 FM에 참여하게 된 계기

2016년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고려 FM' 개국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다시 '고려 FM 방송'은 주파수를 임대해

시험사업으로 한 달간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플을 이용해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전세계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24시간 방송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활동해온 것에 대해 항상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 문화다양성 사업과 연계 / 고려 FM 활동 상황

2016년 '고려 FM 방송'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월곡동의 고려인들은 약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7,000여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인들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고려인들의 정착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려 FM 방송'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을 안내하고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과 주고 있기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믿고 오는 것입니다. 고려 FM 방송은 러시아어 70%, 한국어 30%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전하는 학교와 일상의 경험, 어른들이 경험하는 사회생활과 직업 등 한국의 생생한 실상이 해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지의 고려인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와 주거, 직업, 법률상담, 돌봄, 병원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고려인들의 이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고려 FM의 의미(본인 및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세대,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주제가 참여하면서 방송을 청취하는 계층들이 늘어났으며, 고려인들 관심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비로소 투명인간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도 해주시 않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을 대변하는 여론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면 동등한 한국인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려 FM은 단순한 라디오 방송을 넘어 고려인들의 관심제이자 대변인, 마음과 정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인 셈입니다.

5.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고려 FM 방송'은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를 받아 '93.5 MHz GBS 고려 방송'으로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설립된 고려FM 방송은 지금까지는 휴대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방송해왔으나 내년 3월에는 청소년·청년 이야기, 음악, 고려인·이주민 뉴스, 지역 인사 초청 인터뷰 등 12개 프로그램틀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행해 24시간 방송할 계획입니다. 러시아·CIS 지역의 고려인 방송은 기존 방송국의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하는 수준이었다면, '93.5 MHz GBS 고려 방송'은 자체 방송국으로서 150여 년 고려인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마을 라디오 방송이 앱을 통해 '고려 FM 방송'으로 공동체의 관심점 역할을 하고, 나아가 자체 방송국을 포함해 고려인 유튜브 채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율성사업 광주성악콩쿠르

길병민 베이스바리톤



1. 본인소개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성악가를 꿈꾸며 열심히 활동하고있는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입니다.

2. 광주성악콩쿠르에 참여하게 된 계기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 시절 저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수많은 콩쿠르에 도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오페라무대의 주역으로 활동 중인 테너 김정훈 선생님과 소프라노 박혜상 선생님과 등 가까운 선생님들이 광주 성악콩쿠르를 거쳐갔는데,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평가받는 자리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귀감을 얻었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자연스럽게 광주 성악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3. 광주성악콩쿠르 이후 활동 상황

저는 2015년에 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는데, 이후 계속 도전을 이어가다보니 이듬해인 2016년 9월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영국의 로열오페라하우스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오스트리아 빈 국립극장, 프랑스 파리 국립극장의 러브콜 및 다양한 마스터클래스 기회와 페스티벌에 초청받듯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어졌고 그러한 귀한 경험과 경력을 발판삼아 현재 국내외로 열심히 활동중입니다.

4. 본인에게 광주성악콩쿠르의 의미

2015년을 회고하면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이었고, 수상에 대한 욕심없이 그저 준비한 무대를 잘 마치자는 생각 뿐이었어요. 학생 시절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못하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스스로 학비와 꿈을 위한 성장 비용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잘 알기에 등에 호명되었을 때에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으나, 돌아보니 당시의 절박한 마음과 열심히 준비

한 무대가 잘 전달되어서 큰 상을 받게 되었나싶고 수상을 통해 소중한 공부비용을 얻어 더 넓은 세계로의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저의 잠재력과 재능을 높게 평가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되었고 이 길에 책임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광주성악콩쿠르에 대한 기대 또는 발전 방향 등

이미 광주 성악콩쿠르는 뛰어난 성악가들이 전국에서 모여 뜨겁게 경쟁하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홈 커밍 콘서트를 기획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를 개최하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공연방송으로도 송출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사라지지않고 지금처럼 꾸준히만 이어가주신다면, 성장을 갈망하는 저와 같은 성악도들이 광주를 거쳐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거라 생각합니다.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소외계층에게 포괄적인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기본 권리인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표1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변천 과정(2014~2021)

연도	사업명	내용	예산
2014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 (세대당 10만원, 청소년·시설 5만원)	3,105,000천원
2015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전용 카드발급 및 프로그램 제공 (개인별 5만원)	4,293,200천원
2016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 (개인별 5만원)	3,354,000천원
2017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 (개인별 6만원)	4,149,000천원
201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 (개인별 7만원)	4,852,980천원
201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 (개인별 8만원)	5,511,480천원
2020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 (개인별 9만원)	6,437,830천원
2021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 (개인별 10만원)	6,728,800천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노력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찾아가는 가맹점의 일종인 ‘문화장터’와 자체 기획 이벤트 운영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했으며, 행사 현장에서 이용가능품목, 결제불가품목, 이용기한, 재충전 시기, 본인 충전금 입금방법을 안내 등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존 문화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했던 식음료 결제를 축제 기간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문화누리카드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률이 증가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 방향은?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가맹점의 폐업 등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열악한 환경이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이용 편의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품목을 판매하는 가맹점은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병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삶을 바꾸다

우리들이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배움터

인간은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문화를 가꾸어왔다. 인간의 놀이에 대한 가치를 교육적 가치로 환원시켜 광주시민들의 창의성과 생동감 넘치는 삶을 디자인 하는 곳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2004년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팀이 신설되고 ‘창의한국’, ‘예술의 힘’이라는 새 예술정책에 힘입어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광주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을 타 시도에 비해 빨리 정착시켰고 성장시켰다. 2007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북구문화의집의 ‘바퀴달린학교’가 첫 발을 내딛은 후 2009년 2월 광주광역시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했다. 2010년 사동시대의 막을 올리며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은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원년 멤버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운영 1년여만에 사동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획자들의 사랑방이 되어갔다. 2014년 사동에서 구동의 빛고를 시민문화관으로 이전과 센터라는 명칭에서 문화예술교육팀으로 편제가 바뀌는 변화를 겪게 된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은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풍성하고 섬세해져갔다. 10년 사업을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삶의 경험학교’로서 <창의예술학교>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집중시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대표 사업이다.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경험학교’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브랜드모델로서 자랑할 만하다.



2019 아트날라리

‘시민의 삶을 변화’ 시키고 다양한 계층과 만나는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중앙주도형이지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동네문화예술교육으로 성장하였고,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사업>,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은 각 대상층 특화사업으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삶을 디자인’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경자씨와 재봉틀>, <병태씨와 고래사냥>, <지영씨의 인생부록>,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번쯤 지나가야 하는 위기의 시기를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말고 함께 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어 보자는 취지의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모임에서부터 특별하였다. “나는 경자씨입니다”라는 편지를 받았고, ‘지영이 000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첫 호흡을 시작한 프로그램들이다. 용기를 내서 참여해준 그날의 경자씨, 병태씨, 지영씨들 덕분에 콘텐츠는 단단해지고 의미는 깊어졌다.

‘잘 나가는 동네 형들’ 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기획자양성 프로그램인 <모담모담>, <아장아장>, <창의예술연구소>를 통해 기획력과 교수법, 교과연계 연수과정 등을 개설하여 역량강화와 현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함께 성장’ 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각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과정을 개발 운영한 <아트힐링스쿨>, <문화예술교육교류사업>, <자율연계모임>, <학교운영회의>, <실무자워크숍>, <자문위원회> 등과 각종 포럼과 워크숍들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서로가 성장하는 기회들을 만들어갔다.

‘놀이가 교육’ 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주제가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을 추구한 문화예술교육 축제들이 있다.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

어린이목수축제>, <문화예술교육축제-아트날라리>는 사라져가는 동네 놀이터 문화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끌어들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년의 기록은 2009년부터 운영된 홈페이지의 자료와 97호가 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약100여명의 통신원의 생생한 현장 탐방기로 확인 할 수 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한 개인의 ‘배움의 장’ 을 통해 끊임없이 세계와 관계 맺으며 자아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며, 동시에 그 경험과정 안에서 존재론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향후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가 나아갈 비전인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문화예술교육’ 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고 동네예술배움터들을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배움생태계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우리들이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0 창의예술학교 교파소년단



2017 어린이목수축제

‘삶·예술·교육’을 융합하는 실험형 예술학교 <창의예술학교>

광주시민의 창의성을 신장하고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며 나아가 삶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중심의 통합 운영모델을 개발 확산시키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운영지원 사업이다.

<표12> 창의예술학교 운영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육대상
1	복구문화의집	바퀴달린학교 ※사무국	초등학생
2	문화공동체 아우름	따순마을 노래학교	양산동 마을 주민
3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시소마을디자인학교	청소년
4	생활문화 일상	시골도시락예술학교	꽃할매 : 송학마을 70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 삼도동 아동동반 가족
5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춤추는 마더’ 무용학교	20~60대 마더

창의예술학교 소개

창의예술학교는 공교육 밖에서 일상 속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동네예술학교로, 기존 교육영역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0년 차 되었으며, 해년 마다 3~4개 단체가 참여하여 각 학교별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사무국을 주축으로 공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 춤추는 마더 무용학교



2018 창의예술학교

〈표13〉 창의예술학교 성장과정(2012~202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모형태	컨소시엄 (개별공모버전)	컨소시엄	컨소시엄	개별공모, 리드단체	개별공모, 리드단체	개별공모, 리드단체
참여단체	3개 단체	3개 단체	4개 단체	4개 단체	4개 단체	4개 단체
통합학교 관리주체	광주문화 재단	살과예술배움청		사무국 (리드단체 - 북구문화의집)		
공통 프로그램	· 예술캠프 · 모내기 · 가을운동회 · 축제	· 입학식, 졸업식 · 예술캠프 · 운동회 · 통합(교차)수업	· 입학식, 졸업식 · 예술캠프 · 운동회, 축제 · 교차수업	· 입학식, 졸업식 · 운동회, · 교차수업	· 입학식 · 졸업식 · 봄소풍 · 운동회 · 교차수업	· 입학식 · 졸업식 · 봄소풍 · 운동회 · 교차수업
사무국 업무	—	· 네트워크포럼 · 뉴스레터발행 · 모니터링사업	· 예술선생 워크숍 · 운영자 워크숍 · 포럼 · e-우편배달부	· 운영자 워크숍 · 운영협의회 · 포럼 · 모니터링	· 아트카제작소 (콘텐츠 개발 연구모임) 시범운영 · 평가워크숍 · 예술선생 크숍	· 아프르릉 배움학교 (입문편, 실전편) · 배움포럼



2020 시소학교 '함세드루앙'

2018	2019	2020	2021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4개 단체	4개 단체	5개 단체	5개 단체
살과예술배움청2 사무국 (리드단체 - 북구문화의집)		살과예술배움청3 사무국 (리드단체 - 북구문화의집)	
· 입학식 · 졸업식 · 봄소풍 · 운동회 · 교차수업	· 입학식 · 졸업식 · 봄소풍 · 운동회 · 교차수업	· 입학식 · 졸업식 · 교차수업 · '살과예술배움청' 영상기록물 제작	· 입학식 · 졸업식 · 봄소풍 · 운동회 · 교차수업
· 운영진 워크숍 · 동네예술학교 네트워크모임 · 네트워크포럼 · 웹진<월간 동네예술학교> · 배움여행	· 운영진 워크숍 · 동네예술학교 네트워크모임 · 네트워크포럼 · 좌담회 · Youtube채널<창의예술학교>	· 운영진 워크숍 · 운영진 회의<더하기+모임> · 배움살롱<계 추리는 날>	· 배움청 워크숍 · 월례회<계 추리는 날> · 배움살롱 · 네트워크 포럼

창의예술학교의 가치와 프로그램

창의예술학교는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배움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장르 중심의 프로그램화된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참여자 개인의 삶에 주목하는 경험중심 학교를 운영하면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퀴달린학교의 전신과도 같은 <땅과예술>은 사계절을 통해 이뤄지는 농사를 예술과 접목시켜 땅의 소중함을 예술로 승화시켜내는 대지미술학교로, 담임 선생님인 박문종 화가의 작업실과 인근의 논밭에서 진행한다.

바퀴달린학교가 ‘어린이 노작학교’를 지향하는 이유는 <땅과예술> 프로그램이 갖는 의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부터 개설된 <땅과예술>반은 자연과 교감하는 모내기, 작은 밭 만들기와 같은 노작활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이 어떻게 아이들 스스로에게 체화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땅과예술> 프로그램은 예술가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호흡이 매우 좋으며, 예술가의 자유분방함이 난무할 듯 하지만, ‘시스템’이 균형감 있게 작동하며 10년간 장수하는 유일한 반이기도 하다.

사례

– 바퀴달린학교에 6년간 참여한 김승유 학생은 수북초 1학년(당시 8살)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참여하였다. <땅과예술>반을 좋아했던 승유는 반을 바꾸지 않은 채 매년 개근에 가까운 출석율을 보이며 바퀴달린학교와 함께 성장한 친구다. 특히, 승유의 진면목은 해를 거듭하면서 나타났다. <땅과예술>반은 황토흙, 논과 밭과 같은 야외에서의 활동이 많은데 매년 신고 날라야 하는 도구와 재료들을 앞장서 나르는 것은 늘 승유 몫이었다. 땀 뻘뻘 피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 대신하여 수업에 따라오게끔 일러주는 것도 승유 몫이었다. 언젠가 수업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읽어내고서는 선생님이 놓친 준비물을 먼저 구루마에 싣기도 했던 똑부러진 아이였다.

– 현재 수북중 1학년(14살)에 재학 중인 승유는 아쉬운 졸업을 끝으로 올해부터 현장 부담임으로 활동 중이다. 승유가 먼저 <땅과예술>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냐며 물었고 흔쾌히 승낙했다. 올해 <땅과예술>반에 발달장애 학생 3명이 입학하였는데, 이 친구들을 곁에서 살뜰히 챙기는 역할과 함께 6년간의 배움을 동생들과 나누는 경험을 하고 있다.

창의예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좋은)변화 또는 롤 모델 사례 등

따순마을 노래학교의 <내 인생의 음악자서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례. 2020년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 6명이 펴낸 음악자서전 「노래가 위로한 삶」은 음악 이야기로 인생을 노래한 책이다.

– 김경현(남, 73세) 함평군 공직생활 정년퇴임 후 소소하게 마을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는 할아버지다. 어렸을 때 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다소 무료한 직장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노래 한 곡 즐기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고, 마음속으로만 노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았다. 어깨너머로 배운 기타를 집에서 혼자 연주하면서 가끔 트롯을 부르곤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다.

– 정경민(남, 74세)은 광주 북구청 공직생활 퇴임 후 노인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어르신은 사모곡이었던 조경수의 ‘행복이란’ 노래로 책을 썼다. 평소 봉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을 참여해왔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노인대학 등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강의에 ‘나의 이야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삶’ 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다. <내 인생의 음악자서전> 프로그램은 노년세대가 본인의 이이기에 집중하고 이를 노년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목표와 결을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요

경자씨와 재봉틀

임아영 경자씨와 재봉틀 담당 및 기획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버리



2014년, 광주문화재단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시작되었다. 엄마, 아내, 아줌마, 할머니, 여자라는 이름표 다 떼고, 훌쩍 집 밖으로 걸어 나온 50~60대 그녀들을 만나보는 프로그램. 한때 멋쟁이 아가씨였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몸과 마음을 돌보고, 과거와 현재, 앞날을 그려보는 여덟 번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울엄마 편 ‘경자씨와 재봉틀’이었다. 2021년 현재까지도 꿈을 찾아 나서는 여행(나만의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기), 청춘 런웨이(나만의 웃을 만들고 패션쇼), 원스텝(나만의 신발을 만들고 탭댄스) 등의 주제로 ‘한때 꿈’을 찾아 문밖으로 나서는 그녀들을 응원하고 있다.

1. 경자씨와 재봉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2014년 노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해야 했어요. 제 엄마 또래인 50-60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싶은지 궁금했거든요. 단박에 쓴 몇 줄의 프롤로그를 들고 배우 추말숙님을 만났어요. 보시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들리시더라고요. 스타프부터 강사들까지 앉은 자리에서 섭외를 마쳤어요. 그렇게 추 감독님과 함께 환경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덟 번의 자리를 열었어요. 특히 ‘노인’이라는 말로 뭉뚱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경자’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싶었고, 어딘가에 또 다른 경자들이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엄마 편’이라고 정했어요.

2. 경자 씨는 혹시?

하하,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학교와 학원에서 이십여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2012년에 은퇴하고 장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쉬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엄마네 코앞으로 이사를 했죠. 아이를 엄마가 봐주신 덕에 휴아휴직 마치고 복직할 수 있었고 그때때 ‘경자씨와 재봉틀’을 생각했어요. 엄마는 “아가지 때, 옷 그래서 양상점에 가져갔어. 네로도 원피스 아직도 생각 나. 패션디자이너 하면 잘 했을 텐데.”라고 종종 말했어요. 손일곱 살의 경자 씨 곁에 재봉틀이 놓여있는 상상을 했죠. 엄마 같은 경자 씨들이 자기만을 위해,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길 바랐어요.

3. 제목부터 형식까지 모든 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첫 해에는 지원서를 순편지로 받았다는데?

무뎠죠. 편지도 전화도 없더니 마감 하루 전인가 고3 딸이 엄마 ‘경자 씨’를 위해 야자시간에 몰래 쓴 순편지가 왔어요. 갑자기 딸, 아들들의 편지나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엔 순천에서 ‘연암 씨’가 직접 부친 편지를 받았어요. 자신을 “배우지 못해 항상 기죽고 남 앞에 떳떳이 글씨 한 번 맘 편히 써보지 못했던 가엾은 나”로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려는 새벽 버스를 타고 맨 먼저 도착했고 모든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일곱 명의 경자 씨는 2014년 가을에 소극장에서 영화 보고, 심리극으로 속앓이를 풀어내고, 네일아트와 피로 마사지 받고, 짝지어 인터뷰하고, 바느질로 손가방 만들어 마지막엔 단양 여행을 했어요.

4. 많은 참가자 중 기억에 남는 ‘경자씨’가 있나요?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웃는 얼굴이 여전히 또렷해요. 오륙십 년을 살아낸 성실과 인내를 따구 칭찬하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연암 씨는 아직도 불현 듯 생각해요. 전강히 잘 계실까. 작은 세탁소에서 여전히 꽃과 사람들을 그리면서 이것저것 쓰고 계실까. 온전한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한 설움을 수십 년 묵혔지만, 남을 미워하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경자 씨라는 생각을 해요.

5.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마흔이예요. 몸도 마음도 전과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중인가’ 싶은데 방향과 목적지를 잘 모르겠어요. 멈춰서 가만히 생각할 때 같은데, 익숙하기가 살던 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멈추면 다시 걸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불려 세워 묻고 기다려주고 대답을 듣는 존재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냐, 전강하냐, 진짜 괜찮으냐.”라고요. 딱 한 사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로 삶이 바뀌는 경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보미 놀이요점빵 대표



1. 놀이요점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저희 이름은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놀이요’와 동네가게를 부르는 전라도 사투리 ‘점빵’을 합성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motto로 다양한 분야 예술가나 예술강사가 협업해서 ‘예술’을 ‘놀이’처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2. 놀이요점빵의 성장과정에 광주문화재단과의 인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2017년 광주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떨어졌어요. 얼마 후에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탈락한 지원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처음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가 완성됐어요. 저는 이때 가장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먼저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랐던 딱딱함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단체들에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인큐베이팅 인연이 토요문화학교로 이어져 서창마을에서 아이들과 4년 동안 지지고 볶으며 동고동락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기획된 2020문화예술교육 컨설팅제 ‘아트살라리’는 새롭고 소소한 정근을 통해 기획자로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올해 2021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들의 자립 프로젝트 ‘시작시작’을 통해 자립에 꼭 필요한 교육과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놀이요점빵이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으로 예술가나 참여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참여자만의 소통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경험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소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활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작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4.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2019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운영되었던 ‘달려라, 서창이네 작은농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온 아이들과 노미 한변 들어보지 않았던 초보강사들의 ‘실현과 도전의 상질’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땀 흘려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재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작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길러 요리하는 ‘느린 먹거리’를 알아가고 이 과정에서 마을 어른님과 소통하며 배우는 조화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하였지만, 아이들은 농사가 즐겁지 않았고 전강한 먹거리는 입에 맞지 않았습다. 저희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실패했지만, 괜찮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워갑니다.

5. 놀이요점빵이 꿈꾸고 설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미래가 궁금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던 저희가 출하는 다양한 사람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보호종료청소년, 직장인(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아가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우리의 고민들이 실생활에서 ‘조금씩, 점점 더, 이론’ 문화예술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놀이요점빵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열정적인 참여자에서 창의적인 기획자로

기자단 통신원 활동

김소진 대학생기자단3기 / 독립큐레이터



1. 광주문화재단 대학생기자단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대학생 기자단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건 무동현대미술관에서 초회원 작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낯선처음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을 만나 인터뷰를 해본 터라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감의 원천, 재료 선정과정, 작품 내용구성 등등 제법 귀찮을 법한 저의 질문에 작가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작품을 통해 작가만의 라포 형성을 느껴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실제 독립큐레이터가 되고 나서 많은 작가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작업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후시 재단과의 인연이 현재 내 모습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재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제삼자의 입장으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켜봐 왔습니다.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가며 '내가 이곳에 속해있다면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취업 준비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와 예술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일한다면 자부심을 느끼며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재단에서의 대리활동은 대학 졸업 후 독립적으로 기획 활동을 하면서 광주 문화예술계에 자신 있게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3. 기획자 김소진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저의 관심사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참여 작가들에게 아티스트 피를 지급할 때마다 항상 전에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님! 작가님의 노고와 공들인 시간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그 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가에게 적은 아티스트 피를 지급할 때마다 늘 미안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의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스스로 지급할 수 있는 기획자 사례비를 볼 때마다 '내 밥그릇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좌절감과 무기력함은 제가 지독가능한 창작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방에 박혀 바깥만 쓰고 싶다는 친구, 고주 참치 한 캔과 소주 한 병만 있다면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친구,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믿으며 돈 이상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친구 등등. 예술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4. 새롭고 다양한 기획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동안 해온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대학 졸업 후 친구와 독립큐레이터 팀 '장동컬렉티브'를 결성해서 전시 기획과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왔어요. 80년 9월, 광주에 계셨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레시피와 그날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영상 콘텐츠인 '오월 식탁'을 제작했고,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를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Young Artist Story - YAS! 광주'를 제작했습니다. 2020년 90년대생 작업자들과 함께 서울에서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출해 광주에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기획해왔습니다.

5.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광주의 문화예술환경은 어떤가요?

①오랜 시간 내 마음과 머릿속에 머물러 있던 응어리를 예술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 늘 기회는 생긴다는 점 ②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③지독가능한 창작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때 '쉬어갈 줄 알아야 한다. 지치지 말아라' 조언해주는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광주 문화예술환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6. 예술가이자 기획자로서 김소진의 앞으로 꿈?

제 꿈은 예술과 도시, 행정, 기술 그리고 대중을 잇는 예술 매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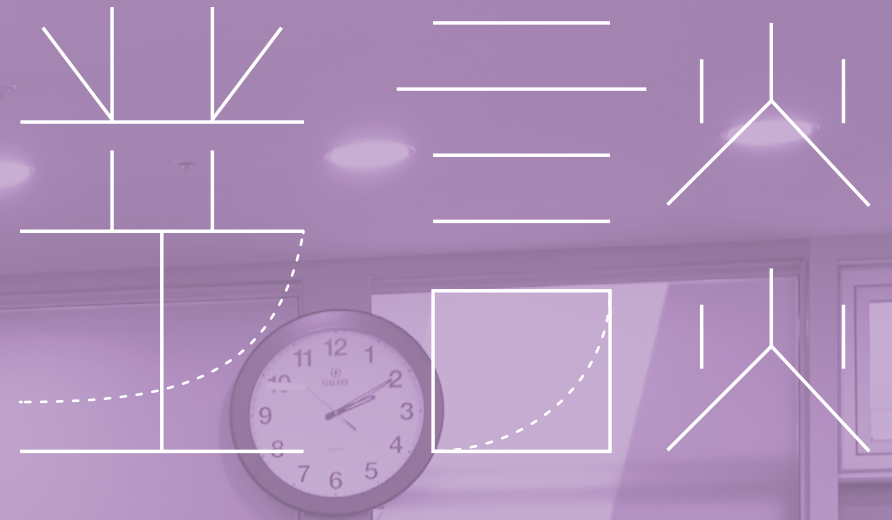
①예술과 도시: 문화도시를 향한 여정 속에 예술과 예술가가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고 예술이 주체가 되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②예술과 행정: 예술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문화 행정 체계인데, 아티스트 피를 비롯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끌어안아 연구자로서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싶어요. ③예술과 기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융합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조명하고 예술에 적용될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려고 합니다. ④예술과 대중: "대중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전시 주제는 무엇이 있는가?" "대중과 예술가의 거리를 좁혀나갈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중들의 여가생활에 전시 관련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전시문화'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VI. 10년을 설계하다

주제 : 지나온 10년 다가올 10년

참석자 : 김정호, 이기훈, 김인설, 황풍년,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10주년 전문가 대담(對談)

광주문화재단 지난 10년과 미래를 이야기하다



광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재단이 걸어 온 10년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의 미래를 이야기 하였다. 대담은 2021년 7월 30일 재단 4층 문화사랑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담자는 김정호(전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인설(가톨릭대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황풍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회는 김지원(경영혁신본부장)이 맡았다.



김지원 지금부터 재단 창립 10주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내용은 재단 10년 백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성장해 갈 것인가에 심층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김인설 교수님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줌(Zoom)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온 10년에 대한 간략한 평가들을 해보고,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을 기획하고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과 광주문화재단의 향후 10년 비전 한마디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창립 10주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나온 10년에 대한 평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기훈 상임이사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지역문화 정책 영역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켜보시기에 한계와 아쉬움 또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성과와 한계

이기훈 재단 10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 반성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단 설립 초기에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벤트 회사 아니냐, 광주시 문화사업 위탁기관 아니냐,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이나 지역의 협력 부재, 초기에 이런 비판들이 매우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하여튼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지역문화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주의 근현대 문화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사업,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창작지원사업 활성화, 다양한 시민문화사업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 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과연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문화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광주문화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동반자나 파트너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전히 지역의 문화계와 예술인들은 '광주문화재단' 하면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존재'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부족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성과로 축적된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은 아쉬움으로 있지 않으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김지원 그동안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학 총서, 광주 모노그래프 발간, 광주학 콜로키움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역학,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재단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광주 1백년’, ‘광주산책’ 말고도 문화재단에서 광주학 총서 시리즈로 여러 지역학 관련 책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교양을 높이는 데 일단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 지원정책도 상당히 체계가 잘 되어있고 창작활동 지원체계도 10년이 된 재단다운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원래 설립 모범이 어디를 근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예술 중심 재단운영을 하는 그런 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이나 인문 문학 분야의 지원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문화재단이라고 할 때는 예술재단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트(Art)하고 컬처(Culture)를 완전히 구분해서 재단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통합한 재단이니까 모범의 근거를 어디다 댔는지를 모르지만 문화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광주학 같은 것은 인문 분야에 말입니다. 저는 광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학문으로서 정착시키려면 전문가 집단이 체계화하고 구조적으로 제도화, 기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전에 관계자들에게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광주학을 하려거든 기초 자료 수집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민속 박물관하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같이 합동해서 기록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기록 수집이 그렇게 그냥 수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연구 결과물이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 은행 기능을 해줘야지, 토론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문화재단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될 수 있으면 재단이 일종의 문화 발전소 또는 충전소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술인들한테 필요하다면 충전도 해주고 인큐베이터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재단이 그런 기능을 하려면 시에서 간섭받지 않는 어떤 재원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재단은 예술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재단에서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지원하는 체계로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광주가 남원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국악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광주의 상당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야겠다 하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퓨전 음악, 예를 들어서 담양 사람 이남치 이름을 빌린 이남치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창조적인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대목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문화 운동, 결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 도시가 아니고 시민들이 교양 높은 도시라는 것이요, 교양을 높이는 도시,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지원이 계속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원 광역문화재단들은 모두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재단들과 비교해서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교육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김인실 기존에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이나 비전과 미션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을 진행해왔고 10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지역공동체들의 성과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자씨와 재봉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들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여러 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에 큰 역할을 했었고,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나 참여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지원사업, 물론 여기서 시민지원사업도 포함되겠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차원에서 10년이 지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는 측면에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은 과연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을까?” 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못 짚어낸 지원사업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고 그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역에 간힌 사고방식들을 우리 스스로 떨쳐내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체부 산하기관 심사를 가보면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예술교육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광주 지역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가장 많은 지역의 예술가들은 부산, 대구 쪽이고요, “왜 광주의 예술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왜 지역의 지원사업에는 본인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이나 규모로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환경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는 지속되었지만 실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지원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

단순한 계량적 성과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성과축적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으로 선순환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10주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 황풍년 대표님은 이제 내부자적 시각과 외부자적 시각을 함께 갖고 계시는데, 우선 먼저 외부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지난 광주문화재단의 10년의 성과와 평가를 하신다면? 특히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대, 시민, 예술인(단체)들과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 해주십시오.



황풍년 지금 내부자적 시각과 외부자적 시각을 팽팽하게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단이라는 기관 자체의 위치가,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를 고민해봤습니다. 현장의 시민, 예술가와 그 관계 그리고 문화재단이 대행하는 정부와 광주시 문화행정의 중간자적인 매개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지면서 어떤 일들을 기능적,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10년 동안 많이 길들여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계 맺기의 부분에 있어서 창작의 현장과 시민들하고의 끈끈한 연대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느 쪽에 훨씬 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은 정부, 광주시도 그렇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관련한 서비스라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에 있어서도 문화재단하고 10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어떤 예술가나 단체나 시민이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부류는 문화재단하고 아예 일을 안 하고 관계도 없고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7개월을 봤는데 직원들이 각자 굉장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에 좀 치여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의 새로움을 계속 추구할 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을 만들려면 조직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의 향후 10년의 비전

김지원 다음 질문들은 문화재단의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내용으로 이야기로 좀 끝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사회적 가치, 예술의 트렌드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향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인설 예술의 사회적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우려되는 지점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약간 인기몰이식으로 어떤 한 용어가 관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과도하게 과열되면서 모든 방향성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현장 자체가, 요즘에 가장 핫(Hot)한 용어는 사회적 가치인 것 같아요.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워낙 창의성과 실제 예술가의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어떤 예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공동의 선의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좀 열어놓는 그런 실험적 시도들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문화예술의 활동과 연계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저는 광주 시민이든 광주 예술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어젠다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예술가들

이 “이것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또는 우리 도시의 어떤 문제점 또는 장애물을 해결 해 보고자 해” 이런 지성들을 많이 열어놔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정책 대상자들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차원으로 접근 가능성이 커질 거로 생각합니다.

김지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면을 일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설 저도 이젠 되게 좀 고민인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동 연구자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 트렌드 연구에서, 저희가 2024년까지를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만이 정답이고 디지털 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만이 강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더해서 여러 가지 전망되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블루라든가 절망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대면 상황에서 만나지 못해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원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할 무슨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시국에서 사업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사업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했을 때 기존의 코로나 시국 전이었으면 금액 예산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팬데믹 상황과 또 앞



으로의 한두 달 또는 내년의 상황들이 예측 불가능하기에 정책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적정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창작도 이제 기술을 뗄 수 없다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 예술가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과정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시류를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이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원이나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지점이 현장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광주시와 문화재단, 예술인(단체, 시민사회)들과의 밀도 있는 협업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문화도시 광주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협업과 거버넌스를 어떤 원칙과 관점에서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훈 일단 몇 가지 제 생각을 전한다면 우선 협업과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행정이나 기관이 구축했다고 하는 협업이나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면 포장은 협업 시스템으로 표방하지만, 내용물은 천편일률적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영역이고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어려운 것을 못 해 왔는데 한두 달, 1년 사이에 협업, 거버넌스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다만 이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이나 기관이 협업, 거버넌스 하자고 어떤 기구를 먼저 제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은 거의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 듣고 “어떻게 협업, 거버넌스를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광주시는 그 광주시 협치 조례를 제정했고 그 제도의 기반으로 둔 민간 협치 이 중에서도 문화예술분과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의 기반을 둔 문화협치가 처음으로 실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좀 더 광주시와 문화재단이 기존의 협치와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생각과는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래, 시민사회나 예술인들 한 번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그것 보고 들어 줄게 마음에 들면...” 여전히 이런 태도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협업,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은 기존에 자문위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협치 구조가 제대로 되려면 협치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 공유는 행정하고 기관이 먼저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협업,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면서 정보를 딱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시민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행정이나 기관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함께 책임지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만이 실질적인 협업과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원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존립 가치는 시민사회와 예술인들, 예술단체로부터 오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화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문화재단!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기훈 불가피하게 시민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아직 지역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능과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단체와 예술인들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관리 내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이 동반자와 파트너로써 새롭게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제하에 저는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해 문화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해결은 못하더라도 길잡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은 못 얻어. 그런데 좀 숨통은 트일 것 같아” 이러한 신뢰가 전제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능과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잖아요.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술인과 시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와 운영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또한, 굵직굵직한 문화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체나 예술인들은 이런 정책의 변화를 접할 수 있다든지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광주문화도시 2030비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들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얼마나 알까요? 가능하다면 문화재단이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서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문화단체에 서비스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 보면 어떨까요? 제 기억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10년 중에 이런 서비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서비스 같은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예술단체와 예술인,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자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 문화재단에서는 광주문화자산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근현대 문화자산 기록물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고 문화예술인 구술과 채록, ‘지역출판진흥조례’제정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시고 싶으신 사업영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광주문화자산이 파악이 되어 있는가 나는 의문스러워요. 문화자원이 무엇무엇인지 파악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비교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광주의 예술인들이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가? 또는 예술 학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일종의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해요. 문화관광부 쪽에 문화 통계는 있지만 광주시 통계연구에도 광주문화자원이 조사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일종의 자원 조사마저도 불분명한 가운데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이죠.

두 번째는 사회조사,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전문가의 의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의식은 어떤가 조사해본 적 있는지 나는 참 질문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집행하거나 어떤 것을 수립할 때는 기초자료, 기존에 조사가 철저하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하든 아니면 재단에서 별도로 하든지 해서 광주문화자원 조사를 해야 해요.

광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록물이 필요하고 기록되지 않은 구전도 필요하고 또 일반화되지 않은 기록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것이 광주학의 기초예요. 광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초인 기록물을 재단이나 민속박물관, 아시아문원 등이 수집한다고 하는데 그 기록물도 장기 계획이 없어요. 모두가 즉흥적으로 해요. “무슨 내용의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해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기록물을 수집해야겠다”고 구체화해야 해요. 그래야 기록물이 수집되지 막연히 “기록물이 있으면 가져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기록물 수집이 안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무슨 기록물을 수집해야겠다”는 목표와 연차계획을 수

립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물을 “기록물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광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물도 보상을 해줘야 기록물이 들어오지 그냥 막연히 그저 가져오라고 해서 누가 가져다 줘니까.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도 책정하지 않고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록물을 그냥 공짜로 기억을 기록한다. 기억을 기록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기억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공짜로 남의 말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채록, 구술을 해도 구술료를 줘야 합니다.

지역출판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광주에 많은 출판사가 있어도 유통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아무리 좋은 책 만들어봤자 유통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진흥을 하듯이 출판진흥을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할 것인가, 유통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좋은 책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박선홍 선생이 낸 책이 무등산도 있고 광주 100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료로 배부를 받는 사람만 보고 나머지 다른 시민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문화재단에서 낸 책도 유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도 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황풍년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예술가가 예술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향후 10년의 구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풍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창작활동을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만들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 자체가 예술인들의 보듬소통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곳이 문화예술인들은 많은데 민간 영역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상품이나 소비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간극을 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문화예술의 도시이지만 공짜 티켓으로 무언가를 지탱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생태계로 전환시키는 정직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분위기와 현실을 바꾸는 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1사 1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스포츠단을 육성하고 있듯이 예술단체나 예술가들과 결연을 맺거나 매칭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도시 자체의 풍토를 조금씩 바꾸기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늘 뭔가 큰 예산으로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과 관계 맺기에 대한 새로운 틀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풍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광주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문학 강좌나, 공연, 전시 및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주면서 일상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그것을 축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장소, 인물 등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장르도 확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자산과 방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김지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기훈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여러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책역량들을 강화하고 담론생산과 문화정책의 발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훈 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정책의 산실, 아이디어 뱅크 이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역할은 문화재단이 해야 되지만 정책 컨트롤 타워가 문화재단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광주시와 문화재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광주시는 뭐 하는 거냐?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화재단이 하면 거기에 맞는 권한과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권한과 예산은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냐? 광주



문화재단이 정책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보다는 끊임없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담론 생산과 발신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화재단은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독립성과 창의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관 운영은 행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기관운영도 좀 더 문화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그 개성이 필요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역량 강화, 담론생산, 발신지 역할을 문화재단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시민 문화계나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하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 대신에 단기간에 정책역량 강화, 담론생산, 발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차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지원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예술대학이 통폐합되고 특히나 우리 지역의 예술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추세죠. 미래세대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진 세대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청년예술정책과 관련해서 고견들 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훈 생애 주기별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은 저도 솔직히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최

근에 광주문화재단이 했던 사업 중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호평 내지 박수를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연구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시켰던 사례인데,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단체나 청년예술인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문화계와 청년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확장을 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생애주기별 예술인지원정책 사업도 예산과 맞물려지더라고요. 결국은 정책의 확대는 곧 예산과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광주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하거든요. 문화재단은 우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내실 있게 하는 쪽에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문화재단 향후 10년을 위한 준비

김지원 이제 저희가 향후 10년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향후 광주문화재단이 가장 역량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광주는 예술 공급이 과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부족해요. 수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진도에서 ‘굿’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갑니다.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진도에는 판소리 잘하는 판소리꾼은 없는데 민속 노래는 모든 주민이 해요. 그것이 수요 창출의 비결입니다. 지금 전문가 집단을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이 수요 창출에 참여해서 시민의 기호도를 높이면 이어서 예술은 저절로 실현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너무 많은 예술가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지요. 진도처럼 굿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예술 일상화 운동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광주문화재단이 앞장서 줘야 돼요.

또 하나 직원들을 다른 문화재단이나 예술기관에 파견 연수를 시켜서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고 직원 연찬을 강화해 주세요. 여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대학원도 다니게끔 지원해주고, 문화재단 하면 ‘아, 거기는 상당한 전문가집단이다’는 평가를 받게 하라고요.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훈 상임이사님 말씀해주세요.



이기훈 하여튼 문화재단 직원들이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과 협치가 체질화된 기관 이것을 좀 부탁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원사업 정책서비스 기관으로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시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백을 남겨놔요. 좋겠네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계나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도 해보고 또 향후 10년의 비전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10년 계획 세우면 그게 크게 변하지 않고 가는데 최근에는 3년이 1년 될 수 있고 또 1년이 또 한 달 만에 바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과 계획을 세우더라도 끊임없이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같이 함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설 교수님 너무 기다리셔서 질문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김인설 예, 앞서 두 분께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그것과 겹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연구 역량이나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것이 기관 자체의 브랜드 파워도 될 수 있는데 문화재단은 향후 전략적 거버넌스 또는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신경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략적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저는 바비칸 센터가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바비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경쟁하는 동일한 문화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또는 같은 지역 내에 다른 기관이 돈을 많이 들여 어떤 아티스트를 불러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워크숍을 같이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교육도 그 사람들이 “체류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우리 센터에 와서 뭔가를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런 전략적 거버넌스를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약간 손가락을 얹는 것, 그런데 그것이 없어 보이지 않게 어떤 협업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거버넌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를 불러왔을 때 “우리 광주문화재단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워크숍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 좀 어때?”,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기획하는 그런 방식으로 훨씬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지원 예, 마지막으로 황풍년 대표님 말씀해주세요.

황풍년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창작에 관해서는 문화재단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원의 선경도서관이나 수원화 종합자료실 같은 곳을 견학을 다녀왔고 제주학 연구 센터도 지역 특화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고 왔습니다. 시민과 창작자들의 집단 지성과 공감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나 소통이 왜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지지가 없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80년대 민중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콜로키움에서 하면 시민사회가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과의 거버넌스, 소통은 문화재단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광주문화재단 비전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친구 같은 문화재단’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줄 것 같은 문화재단’



황풍년 저는 좋아하는 전라도 말로 ‘항꾸네 싸목싸목’입니다.

김인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주문화재단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갈 길은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기준을 정하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목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야심 찼나요(웃음)?

김지원 예정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만 문화재단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과 예술인,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0 years.

2011
-
2020

Gwangju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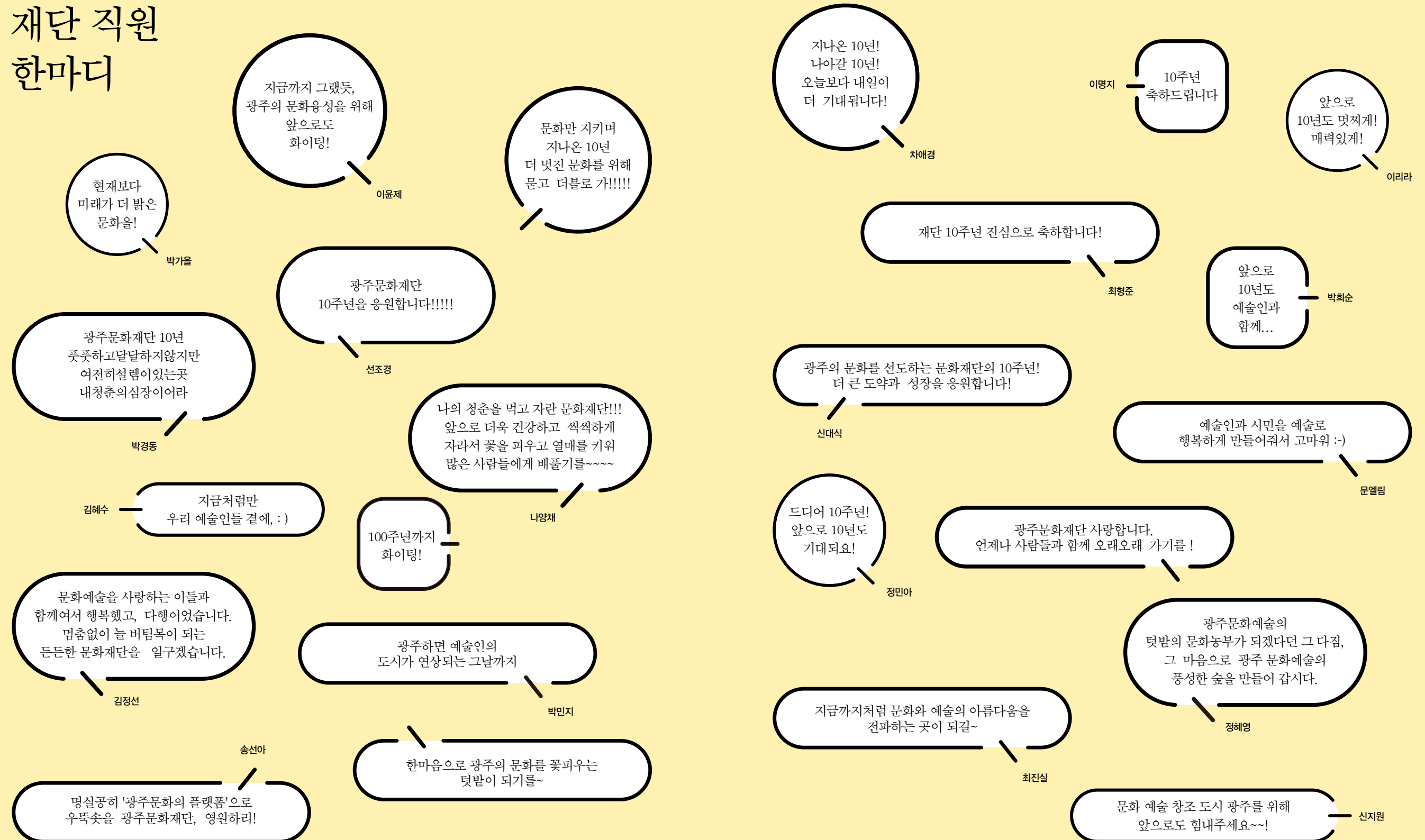
VII. 부록

10주년 기념 한마디(직원 & 시민)

재단 10년 사업 리스트

광주문화재단 10년, 나의 성장기

재단 직원 한마디



시민 한마디

광주에 문화적 즐거움을 주는
재단이 되어주세요~

우분투!
재단이시민과
예술인들에게
기댈수있는 넓은품이
되어주기를...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는
광주문화재단이 되시길~~!

문화재단 화이팅!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꼭!
함께해주세요

실질적인
정책
부탁합니다

문화는 삶의 기쁨입니다.
빛의속도로보게되는 미디어의 반영도
필요한시대이지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특정하게 성장단계에

필요한 연령 직업 선호도에 문화생활의 맞춤형도
필요하고 문화재단이 전세대가 누구나 함께할수 있는
좋은 공동체 문화를 선도해서 함께해서 행복한 인간중심의
문화활동영역을 적극 계승 발굴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곳!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기를!
10주년축하합니다.

다른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주최해 주세요!

예술과 가까워지는 광주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화이팅 !!

광주문화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늘 파이팅입니다!!!

진시영 시민

굽이굽이 자연스러운
광주의 문화생태계를 보전하고
살려내는 살림의 행정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명진 무등산풍경소리 아하갤러리

열려진 네트워크, 세계로 확장되는 개방성,

핑크파마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도 광주의 문화 허브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광주문화재단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달구벌과 빛고을의 달빛동맹,
문화예술 교류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요!

대구문화재단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었으면
해요~!

최진아
시민

광주문화재단
화이팅!

폴바주카 작가

광주문화재단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대구와
많은 교류와 협력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축하 드려요^^

김소리 대구문화재단

예술로 행복한 광주시민을 위하여~

양승수 광주문화예술회관

최근영 시민

문화재단 화이팅!!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합니다!

홍준성 시민

이영미 시민

이임광 시민

박의혁 지휘자

오하랑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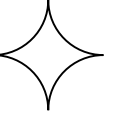
재단 10년 사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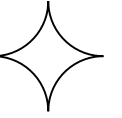
2011년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청소년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 사진 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 광주폴리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
- 전남도청 리모델링공사 차단막예술작품화 사업
-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 아시아문화포럼
- 아시아 도시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
- 페스티벌오! 광주 - 에든버러 사업
- 페스티벌오! 정울성축제
- 아트광주11
- 페스티벌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 페스티벌오! 광주 - 여성 합창축제
- Adieu2011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방학예술캠프
-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워크숍
- 문화바우처 사업
- 여행바우처 사업
- 꿈꾸리 오케스트라
- 이탈리아모자이크 스쿨 워크숍 및 전시
- 해외 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지원 사업
-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
- 국제문화 예술교류 지원사업
- 북해도 문화재단 연극교류 공연
-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사업
-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젝트
- 문화나무 상상강좌
- 문화나무 상상 포럼
- 기업메세나
- 문화나무예술단
- 인터넷 웹진 운영사업
-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 활성화
- 문화매거진 문화나무 발간 사업
- 문화마실 제작 사업
- 산테마 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문화관광탐험대 사업
- 데굴데굴문화기행
- 문화광주 스토리텔링인터넷 공모
- 문화나무 창작공간 미디어 - 프론티어 프로그램
- 미디어특화 갤러리
- 브랜드공연 개발사업 : 자스민 광주
- 오감만족 광주여행
- 목요상설무대

2012년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
-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
-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
-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 아시아문화포럼
- 광주폴리유지관리및활성화
-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 해외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및 교류지원
-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 북해도문화재단연극교류공연
- 문화나무함께가꾸기사업
- 광주문화재단정책자문단
- 광주문화재단상상포럼사업
- 광주문화재단중장기발전전략연구
- 문화나무상상강좌
- 인터넷웹진운영사업
- 광주문화재단기획홍보활성화
- 광주문화재단문화매거진문화나무발간사업
- 문화마실 제작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 광주창의예술학교운영
- 시민문화예술교육상상워크숍
- 토요문화학교운영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아트힐링스쿨
- 문화카드사업
- 기획바우처사업
- 꿈꾸리오케스트라운영
- 꿈꾸리오케스트라교류및동절기
- 무지개다리 '다모여문화돌레로'
-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 문화관광탐험대
-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 - 광주일백년편찬사업
- 광주문화재단 특별전시기획
- 페스티벌오!광주 - 미디어아트
- 미디어큐브338전
- 무등산의사계등
- 목요상설무대
- 마당극 '최고네'
- 여행바우처사업
- 데굴데굴문화기행
- 희망2012사랑해무등산
- 남도문화탐방
- 페스티벌오!광주 - 정울성축제
- 한중전통문화교류
- 광주세계아리랑축전
- 아트광주
- 광주-에든버러축제교류
- 페스티벌오! 광주 - 브랜드공연축제
- 페스티벌오! 광주 - 여성합창축제
- 오월창작가요제
- 광주고싸움놀이축제
- 광주광역시문화의날 운영
- 페스티벌오! 광주 - 통합브랜드사업
- 페스티벌오! 광주 - 문화나무예술단운영
- 토요상설공연
- 전통문화강좌
- 풍류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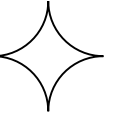


2013년

- 여행이용권사업
-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
 - ‘광주문화아카이브테마북제작’
-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 문화관광탐험대
-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 – ‘광주일백년편찬사업’
- 광주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 미디어아트2013시리즈
- 5·18민주화운동기념공연상설화사업
- 미디어아트레지던스
- 문화관광상설프로그램운영 – 무등산의사계 등
- 목요상설무대
- 아시아문화포럼
-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
- 문화재단간국내외교류사업
- 문화정책개발
- 재단발전정책워크숍
- MOU기관협력사업및교류활성화사업
- 공공미술2.0양림성장형프로젝트
- 광주문화재단 문화백서 사업
- 조직진단연구
- 광주문화재단기획홍보활성화
- 광주문화재단매거진 『문화나무』 발간사업
- 문화마실 제작사업
- 시청각기록물활용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 아시아문화예술교육교류사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토요문화학교운영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아트힐링스쿨
-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
- 동북아한민족교육포럼
- 문화이용권사업
- 무지개다리사업 ‘우리누리’
-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
- 문화복지기획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
-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 기부금지원사업
- 창작지원컨설팅
- 페스티벌오! 광주 – 정월성축제
- 페스티벌오! 광주 – 한중전통문화교류
- 전통예술상설공연프로그램개발(세계아리랑축전)
- 아트광주
-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공연축제
- 페스티벌 오! 광주 – 여성합창축제
- 오월창작가요제
- 페스티벌 오! 광주 – 통합브랜딩사업
- 페스티벌 오! 광주 – 문화나무예술단운영
- 주말상설공연
- 전통문화예술강좌

2014년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지원사업
-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청소년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 아시아문화포럼
-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
- 양림성장형 공공미술프로젝트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 통합형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
- 문화동네 기획인력양성사업
- 문화예술거점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양성사업
- 광주문화재단백서사업
- 문화정책개발사업
-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활성화사업
- 문화마실
- 온라인 홍보
- 문화도시간 교류사업
- 아시아문화예술교육 교류사업
-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 광주일백년 개정 발간
- 충효동 백중놀이 한마당
- 문화관광탐험대 사업
- 아카이브 테마북 제작
- 페스티벌 오! 광주 미디어아트 사업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사업
- 시민문화향수지원 사업
- 페스티벌 오! 광주 – 정월성축제
- 한 · 중전통문화교류 사업
-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사업
-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공연축제
-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상설화 사업
- 시와 음악이 넘치는 문화동네 운영
- 주말상설공연
- 풍류노리
- 생생문화재사업
- 전통문화예술강좌
- 액티브시니어전통음식특별강좌
-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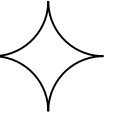


2015년

-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기획홍보 활성화
- 온라인 홍보
- 문화마실 제작
- 재단 백서 발간
- 광주학 총서 발간
- 문화재단 5년, 문화보듬 1년
- 광주학자료실 운영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교류
- 광주문화정책 개발
- 예술의 새로운 영토 '소촌아트팩토리'
- 문화도시간 교류사업
-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 재단 기금 조성
- 정음성음악축제
- 인생나눔교실
- 미디어아트페스티벌
- 한 - 중 전통문화 교류
- 광주 - 전남 문화주간 '문화로 상생'
- 광주 - 대구 달빛동맹 강화 문화예술 교류
- 문화관광탐험대
- 아리랑대축전
- 통합문화이용권
- 사랑티켓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무지개다리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문화예술 활동단체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 학교예술강사 지원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 미디어아트 시리즈
- 목요상설무대
- 시민극장 운영
-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상설화
-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운영
- 빛고을시민문화관 · 아트스페이스 무대예술
- 빛고을시민문화관 · 아트스페이스 시설관리
- 전통문화관 운영 · 관리
- 생생문화재

2016년

- 재단 경영지원
- 재단 종합 기획
- 기획홍보활성화
- 광주수첩 제작
- 문화마실 제작
- 온라인 홍보
- 재단 백서 제작
- 광주문화지표조사
-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 광주학자료실 운영
- 시 · 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교류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 광주학총서 발굴 및 지원
- 문화도시간 교류
- 재단 회계관리
- 재단기금조성
- 달빛 어울림 한마당(달빛 오작교)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문화나무예술단
- 광주전남문화주간 문화로 상생
- 인생나눔교실 운영
- 풍류남도나들이
- 정음성음악축제
- 한 - 중전통문화교류
- 광주 - 대구 달빛동맹강화 문화예술교류
- 문화관광탐험대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사랑티켓
- 무지개다리
-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
- 야외상설브랜드공연창작지원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의예술학교
- 경자씨와 재봉틀
- 학교예술강사지원
-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
-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 토요문화학교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자율연계협력기획
- 미디어아트관광레저기반구축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빛고을시민문화관 · 아트스페이스 시설관리
- 목요상설무대
- 시민극장운영
- 공연장상주단체 운영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 문화예술작은도서관운영
- 애꾸눈 광대 공연
- 아리랑브랜드 공연
-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아트스페이스 무대예술
- 전통문화관 운영 관리
- 토요상설공연
- 일요상설공연 · 나들장터
- 전통문화 예술강좌 '청사초롱'
- 전통문화 예술체험 '풍류노리'
- 생생문화재
- 무등울림



2017년

- 재단 경영지원
- 재단 종합기획
- 기획홍보활성화
- 광주수첩 제작
- 문화마실 제작
- 온라인 홍보
- 재단 백서 제작
-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 광주학자료실 운영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 시·도문화재단 교류
- 문화도시간 교류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청년문화실태조사
- 재단 회계관리
-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 ACC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
- 정율성 음악축제
- 무지개다리
- 한 - 중 전통문화교류
- 달빛청년 어울림 한마당
- 문화관광탐험대
- 문화나무예술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
- 야외상설브랜드공연 창작지원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의예술학교 운영
- 경자씨와재봉틀Ⅳ
-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과정
-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2미디어338 공간 운영 관리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운영
-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운영
-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 유네스코 창의도시 플랫폼 AMT센터 조성 지원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단 구성
- 미디어아트관광레저기반시설콘텐츠개발 및 운영
- 홀로그램극장프로그램개발및운영
- 미디어놀이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홀로그램파사드 및 디지털갤러리 운영
- 문화메세나운동
- 빛고을시민문화관·아트스페이스 관리운영
- 공연장상주단체 운영
- 시민극장운영
- 월요 콘서트
- 애꾸눈 광대 공연
- SAC ON SCREEN 상영
-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운영
-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소공연장 무대예술 운영
- 전통문화관 운영·관리
- 토요상설공연 '흥겨워라'
- 일요상설공연·나들장터
- 전통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
-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
- 특별기획 프로그램 '장담그기'
- 생생문화재
- 무등울림
- 무등산 남도피아 관광문화제
- 풍류남도나들이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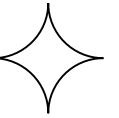
- 재단 경영지원
- 재단 종합 기획
- 홍보업무활성화
- 문화마실 제작
- 온라인 홍보
- 재단 백서 제작
- 광주학 자료실 운영
- 광주문화예술아카이브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예술인 복지지원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 청년문화생태계 조성
- 아시아문화인 교류의 장
- 전국 문화활동가 대회
- 문화도시간 교류
- 재단 회계관리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 달빛청년 어울림 한마당
- 문화나무예술단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 정율성 음악축제
- 전통문화교류
- 무지개다리
- 문화다양성 증진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
- 야외상설 브랜드공연 창작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지원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창의예술학교 운영
- 경자씨와 재봉틀 V
-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과정
-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운영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미디어338 공간 운영 관리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운영
-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운영
- 미디어아트 창의랩 구축 운영
-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협의체 및 자문단
- 유네스코창의도시 플랫폼 AMT센터 조성 지원
- 미디어아트 관광레저기반시설 콘텐츠개발 및 운영
- 홀로그램극장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미디어놀이터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 홀로그램파사드 및 디지털갤러리 운영
-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 및 운영
- 문화메세나운동
-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관리·운영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무대예술팀 운영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월요콘서트
- 애꾸눈광대공연
- SAC ON SCREEN 상영
- 우수공연초청기획
-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 전통문화관 운영·관리
- 토요상설공연
- 일요상설공연
- 전통문화예술강좌
- 전통문화예술체험
- 특별기획 프로그램
- 풍류남도 나들이
- 무등울림
- 제4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2019년

- 재단 경영지원
- 기획업무 및 성과관리
- 홍보업무 활성화
- 온라인 홍보
- 문화마실 제작
- 광주문화재단 유튜브채널 운영
- 광주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
- 재단 백서 발간
- 시도문화재단교류
- 문화예술자문위원회운영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공동사업
- 광주학활성화
- 예술인복지지원
- 청년문화생태계조성
- 문화이모작 지역교육기관
- 지역주도형청년문화일자리지원
- 아시아문화포럼
- 재단 회계관리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 정율성 음악 축제
- 무지개다리
- 문화다양성 증진
- 전통문화교류
- 달빛청년어울림한마당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및동아리지원
-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
- 야외상설 브랜드공연 창작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미디어338 공간 운영 관리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운영
- 미디어아트 창의랩 구축 운영
-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운영
-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 ZERO1 아메리칸 아트 인큐베이터
- 유네스코창의도시 플랫폼 AMT센터 조성 지원
-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시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홀로그램극장 콘텐츠라이선스계약 및 티켓 판매 대행처 운영
- 미디어놀이터 콘텐츠 유지
- 홀로그램파사드 및 디지털갤러리 콘텐츠 유지
-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 및 운영
- 문화메세나운동
-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 관리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관리
-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 월요콘서트
- 수요 LECTURE 콘서트
- SAC ON SCREEN 상영
- 518민주화운동기념공연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우수공연초청기획
- 전통문화관 운영
- 토요일상설공연
- 일요일상설공연
- 전통문화예술강좌
-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
- 특별기획프로그램
- 풍류남도 나들이
- 무등울림
- 제4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 무등산 시가문화권 문화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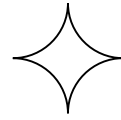
2020년

- 재단 경영지원
- 기획업무 및 성과관리
- 홍보활성화 및 홈페이지 운영
- 광주 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 문화마실 제작
- 재단 백서 발간
- 온라인 홍보
- 문화마실TV 유튜브채널 운영
- 시도문화재단 교류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
-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
- 광주문화자산구축
- 아시아문화포럼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 청년문화 생태계조성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 정율성음악축제
-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 무지개다리사업
- 5 · 18 40주년 기념 연극공연 교류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 야외공연 창작지원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 지역장애인 문화예술지원
- 온라인예술극장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지원
- 코로나19 극복 예술배너사업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 예술동아리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운영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젝트
- 미디어338 및 아카이브 운영
- 미디어아트 창의랩구축 운영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운영
- 5G 실증체험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유 · 무료 공간 운영
-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 및 운영
-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 '清지수 프로젝트'
- 문화메세나운동
- 지역특성화매칭펀드사업
-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관리
- 월요콘서트
- 문화가있는날 열린소극장
- 우수공연 초청 기획사업
- 빛고을시민문화관 개관10주년 기념행사
- SAC ON SCREEN 상영
- 빛고을 렉처콘서트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관 운영관리
- 토요일상설공연
- 무등풍류던
- 무등울림
- 전통문화예술강좌
-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
- 특별기획 프로그램
- 풍류남도나들이
- 무등유람 팸투어
- 광주·전남 문화주간
- 달빛청년어울림 한마당



2021년

- 기획업무 및 성과관리
- 홍보업무 활성화
- 문화마실 제작
- 재단 백서 제작
- 온라인 홍보
- 광주문화재단 기자단
- 재단 유튜브 채널 운영
-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운영
- 광주문화자산 구축
- 무지개 다리사업
- 광주형 문화메세나운동
- 대내·외 협력 강화
- 예술인파견 지원사업
-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 디지털(온라인)문화일자리 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 미디어아트 창의랩 구축 및 운영
- 미디어아트338 및 아카이브 운영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 예술인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지역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
-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 활성화
- 우수공연 초청기획
- 빛고을 뮤직 페스티벌
- 월요콘서트
- 빛고을 LECTURE 콘서트
- 문화가 있는날 열린 소극장
- SAC ON SCREEN 상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남도문화유산향유기(紀)
- 광주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사업
-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 문화예술교육기관 협의회
- 창의예술교육연구소
-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 갭이어(Gap year)예술학교
- 광주문화예술교육 축제
- 문화예술교육 국제 협력 사업
-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터(거점 지정) 조성 사업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운영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운영 지원
- 창의예술학교 운영지원
-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사업
- 시도문화재단 교류사업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공동사업
-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젝트
- 광주전남문화주간
- 전통문화관 관리운영
- 토요상설공연
- 무등풍류 던
- 전통문화예술강좌
-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
- 특별기획프로그램
- 무등올림축제
-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 정율성 음악축제
-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 빛고을시민문화관 통합홍보 운영
- 공연장상주단체지원
- 빛고을시민문화관과함께하는 공연나눔
- 빛고을시민문화관 관리 운영
-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관 및 무대 관리
- 아시아문화포럼
-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



“광주문화재단 10년, 나의 성장기”

본 인터뷰는 ‘광주재단이 10년 성장하는 동안 나의성장기’ 를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긴 인연을 가진 직원 몇 분들께 질문지로 진행하였다.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자신의 성장한 모습과 부지불식간에 변화된 마음을 짧은 글로 요청하였고 직원들의 솔직하고 위트 있는 답변들을 통해 지난 온 함께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다가올 미래도 그려보게 되었다.

질문은 재단 지원동기, 재단 근무 만족도, 첫 배정업무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 업무 추진능력,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미래 재단에 던지는 메시지,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바라는 점이었다.



재단 근무의 만족도

Q 재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지원’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특채”(?)라고나 할까요??? ㅎㅎ ㅎㅎ. 청와대 채용비리TF팀에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명칭도 낯선 ‘기획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단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재단 근무에 대한 현재의 만족여부를 묻는다면?

A 100점 만점에 51점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선거를 51:49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51점을 얻은 후보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반면, 49점의 후보는 토굴 속으로, 바다로 때론 외국으로 사라지는게 현실이지요. 51점의 만족도라는 것은 재단 권력의 정점을 지향하겠다는 포부와 목표!!!

처음 담당 업무를 배정 받았던 때 자신의 마음, 태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Q (업무관련)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

A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늘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당할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지요.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투명하고 공정한가?? 등등

Q (업무추진능력) 첫 문화행정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나의 정도? 변화,

사업기획서 작성의 달인이 되었는가?

A 달인이 되었다면, 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차가 누적되었다고 업무가 수월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업무속에서 같은 업무를 2년차에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결재권자), 환경이 바뀌고(코로나 같은...), 지역이 요구하는 것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늘 항상 처음하는 듯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변한 태도나 마음가짐

Q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이해도나 태도의 변화

A 지역의 예술인과 활동하는 단체가 신명나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을 늘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이나 단체에 대해 소위 ‘갑질’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재단의 시스템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할 때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재단의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했는지 / 미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 ?

A 성장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구체적으로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남들에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 씩 늘 듯, 나도 개미 허리 만큼은 성장(?)했다고 믿으며 살고자 합니다. 미래에 시골마을을 지키는 커다란 당산나무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주의 문화예술계에 작은 그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미래 재단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지역민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기대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기관의 내공을 더욱 튼튼히 하여 예술 행정 혁신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0000을 해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존 F 케네디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즉,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000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가 재단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재단 근무의 만족도

Q 재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2~3년 함께 일했던 분이 재단에서 일하면 좋겠다면서 추천을 해 주셨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다 재단에서의 좋은 기회가 와서 지원하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를 걸쳐 정규직 채용 시험을 통해 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하게 되었다.

Q 재단 근무에 대한 현재의 만족여부를 묻는다면?

A 어디서든 100% 만족이라는 건 없겠지만 내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근무환경에 관해서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나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의 다양한 시스템 구축 및 인식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휴가나 병가 사용 등)에 만족감이 높아진 것 같다.

처음 담당 업무를 배정 받았던 때 자신의 마음, 태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Q (업무관련)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

A 처음에는 업무를 모르고 닥치는대로 했던 것 같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약간 위커홀릭이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하다보면 인정도 받고, 업무의 고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닥치는대로 하기보다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피면서 조금은 숙련된 자세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대신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구와 협업을 해야 좋을지를 살피는 일머리가 생긴 것 같다.

Q (업무추진능력) 첫 문화행정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나의 정도? 변화,

사업기획서 작성의 달인이 되었는가?

A 사업이나 업무에 따라 운영 매뉴얼이나 행정 절차가 있지만, 신생 기관에서 업무 경험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서로가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 절차가 있기에 거기에 맞춰 진행하면서 추가로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은 지 한번 더 검토하고 재단 규정집을 많이 참고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변한 태도나 마음가짐

Q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이해도나 태도의 변화

A 처음 근무한 부서인 문화예술지원팀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예술인, 단체들과 가깝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첫째는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하다보니 그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다. 그 다음해부터는 현장 방문과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술인 및 단체들과 교류하는 시간

들이 많아지면서 현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들을 그들 또한 이해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Q 재단의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했는지 / 미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 ?

A 재단에서는 많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것처럼 나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각 부서마다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잘 이해하면서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업무 수행 능력을 토대로 ‘업무 고수’로 성장하여 내부 직원들과 외부 예술인들에게 문제 해결사로 도움을 주고 싶다.

Q 미래 재단에 던지는 메시지는?

A 문화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자.

Q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0000을 해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행복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일이 많아도, 일이 힘들어도 일하기 좋은 시스템과 분위기라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에 대한 공부가 필수겠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단 근무의 만족도

Q 재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더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학창시절엔 교사의 길을 꿈꾸고 대충 수능 점수 맞춰서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교사는 내 길이 아니었다(물론 가치있고 멋있는 직업이지만).

아무튼 대학 졸업직후 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고가 있길래 무작정 지원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부끄럽지만 당시에는 문화재단이 어떤곳인지 몰랐다.) 재단에 들어와보니 이 쪽 업계에서 뼈를 묻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 더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재단 근무에 대한 현재의 만족여부를 묻는다면?

A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그 날 그 날 다르다. 당연히 그만두고 싶은적도 몇 번 있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지는것만 같아서 이기고 싶었다. 전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다. 그렇지만 재단의 일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땐 언제라도 바로 그만 둘 용의가 있다.

처음 담당 업무를 배정 받았던 때 자신의 마음, 태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Q (업무관련)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

A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재단에서 유일한 줄 알았는데 '나 모 형님'도 그렇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살짝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다. 직급만 변했다 뿐이지 마음가짐은 지금도 똑같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Q (업무추진능력) 첫 문화행정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나의 정도? 변화, 사업기획서 작성의 달인이 되었는가?

A 문화행정 업무는 역시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는게 제일인 것 같다.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문화다양성 사업을 할 땐 광주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았고, 축제를 할 땐 매 주 토요일 아침 현장에 나가서 새벽까지 있었다. 해외에서 오는 공연팀을 직접 픽업해오기도 했다.

몇 년 동안 거의 주말을 반납하고 일하다보니 이제야 좀 뭔가 보이는 것 같다. 기획력, 현장 운영 능력, 행정능력 등은 당연히 입사때보다 월등히 올라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아마 '달인'은 죽을때까지 되기 힘들 것 같다.

요즘엔 관련 텍스트들을 다치는 대로 읽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만 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변한 태도나 마음가짐

Q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이해도나 태도의 변화

A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다. 분야, 장르를 막론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택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만날 때마다 영감을 얻고 좋은 자극을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그 생각은 똑같다.

Q 재단이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했는지 / 미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 ?

A 나를 성장하게 해 준 수많은 분들과 재단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좋은 사람들 덕에 그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제는 가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내 업무에 관해 자문을 구해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미래의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에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Q 미래 재단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지역성에 매몰돼지 말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Q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0000을 해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코로나 끝나면 유학좀 보내주세요 ~



재단 근무의 만족도

Q 재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

A 음악 분야 전공 후 학창 시절부터 교내 합창단 집행부 활동 경험 및 졸업 후 프로 합창단에서 오랫동안 무대 위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의 행정적인 마찰을 두루 겪게 되었고, 막연하게 무대 밖에서의 행정 업무 추진 및 지원 등에 대해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고민을 하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재단 근무에 대한 현재의 만족여부를 묻는다면?

A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담당 업무를 배정 받았던 때 자신의 마음, 태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Q (업무관련) 재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

A 과거 연주자로서의 사고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파트로서 오랜 시간 지내다보니 많이 삭막해져버린 제 자신을 가끔씩 발견하곤 합니다.

Q (업무추진능력) 첫 문화행정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나의 정도? 변화,

사업기획서 작성의 달인이 되었는가?

A 솔직히 맨 처음의 나와는 달리 전문가급은 아니더라도 문서, 엑셀, ppt, 포토샵 등을 어느정도 만질 수 있게 된 것은 뿌듯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정해져 있거나 한시적인 사업들을 맡게 되면서 기획 다운 기획을 세워보지는 못한 듯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변한 태도나 마음가짐

Q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이해도나 태도의 변화

A 재단에서 연주단체 섭외나 지원사업 등을 맡으면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의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화 되고 보편화 되면서 누구나 예술인이라고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는 합니다.

Q 재단의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했는지 / 미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 ?

A 맨 처음 들어와서 가졌던 마음이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였는데, 그동안 잘 지키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미래에는 광주의 문화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찾아서 달려보고 싶습니다.

Q 미래 재단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업무라든지 절차 등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 재단에서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 0000을 해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년도에 차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신규사업을 제안받기는 하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통영 윤이상음악재단처럼 중장기 계획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2011- 2020

광주문화재단 10년 백서

발행처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황풍년
발행일	2021년 10월
기획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 기획전략팀
집필진	강현미, 박규호, 김지원, 김임호, 박가을, 박경동, 박희순, 유수형, 정진경, 정혜영
주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길)
전화	062) 670-7434
팩스	062) 670-5769
이메일	gpark@gjcf.or.kr
홈페이지	www.gjcf.or.kr
디자인	(주)씨몬
인쇄	맥스타

